

기독교 가정 회복 모델 개발을 위한 주제분석 연구:

전문가 칼럼 및 상담 사례 기록을 중심으로

A Thematic Analysis Study for Developing a
Christian Family Restoration Model: Focusing on
Expert Columns and Counseling Case Records

Kwang Bok Oh

A Thesis Presented to the Faculty of Christian Counseling
Of HARVEST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Christian Counseling, March
2026

**A Thematic Analysis Study for Developing a Christian Family
Restoration Model: Focusing on Expert Columns and Counseling
Case Records**

Kwang Bok Oh

APPROVE

DATE

SUPERVISOR

READER

READER

초록

오광복

2026

기독교 가정 회복 모델 개발을 위한 주제분석 연구: 전문가 칼럼 및 상담 사례 기록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현대 기독교 가정이 직면한 정서적 단절과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실천적 회복 모델을 개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연구자가 지난 2009년부터 10년간 연재한 79편의 전문가 칼럼과 25년간의 상담 임상 기록을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연구 방법으로는 브라운과 클라크(Braun & Clarke)의 주제 분석법(Thematic Analysis)을 적용하였다. 방대한 질적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기독교 가정 회복의 핵심 주제는 ‘향기나는 대화’, ‘정서적 필요 충족’, ‘건강한 경계 설정’, ‘용서와 치유’, ‘부모 됨의 소명’, ‘세대 간 전수 끊기’, ‘고난의 의미 재해석’, ‘영적 공동체 회복’, ‘독서상담을 통한 성장’ 등 10가지로 범주화되었다.

도출된 주제들은 ‘뿌리(영성)-기둥(관계)-가지와 열매(성장 및 사명)’의 유기적 구조를 가진 ‘생명 나무(Tree of Life) 모델’로 통합되었다. 특히 본 연구는 선행연구(장세호, 2020)에서 입증된 긍정정서와 대인관계 역량이라는 심리적 기제가 기독교 영성과 결합될 때 가정의 회복탄력성이 극대화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전문가의 장기적인 성찰 기록을 학술적 자산으로 전환하여 현장 중심의 통합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독창성을 갖는다. 이는 향후 지역 교회와 상담 현장에서 기독교 가정을 치유하고 세우는 실천적 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기독교 가정 회복, 주제 분석법, 전문가 성찰 칼럼, 상담 임상 기록, 생명 나무 모델, 회복탄력성

Abstract

Kwang Bok Oh

2026

A Thematic Analysis Study for Developing a Christian Family Restoration Model: Focusing on Expert Columns and Counseling Case Record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practical restoration model to overcome the emotional disconnection and crises faced by contemporary Christian families. To this end, 79 expert columns published over a ten-year period beginning in 2009, along with counseling clinical records spanning 25 years, were utilized as primary data sources.

Thematic Analysis, as proposed by Braun and Clarke, was employed as the research methodology. Analysis of this extensive qualitative data revealed ten core themes of Christian family restoration: "Fragrant Conversation," "Fulfillment of Emotional Needs," "Healthy Boundary Setting," "Forgiveness and Healing," "The Calling of Parenthood," "Breaking Intergenerational Cycles," "Reinterpreting Suffering," "Restoring Spiritual Community," "Growth through Bibliotherapy," and "Mission and Legacy."

These ten themes were integrated into the "Tree of Life Model," which features an organic structure comprising "Roots (Spirituality)," "Trunk (Relationships)," and "Branches and Fruit (Growth and Mission)." Notably, this study confirmed that family resilience is maximized when psychological mechanisms — namely, positive emotion and interpersonal competence as

established in prior research (Jang, 2020) — are combined with Christian spiritual principles.

This study holds scholarly originality in that it transforms a practitioner's long-term reflective records into academic assets and presents a field-oriented, integrated model of family restoration. The findings are expected to serve as a practical guide for healing and strengthening Christian families in local church and counseling contexts.

Keywords: Christian Family Restoration, Thematic Analysis, Reflective Expert Columns, Counseling Case Records, Tree of Life Model, Resilience

Harvest University Theological Seminary in America.
Doctor of Christian Counseling in A Thematic Analysis
Study for Developing a Christian Family Restoration Model

헌정 (DEDICATION)

이 논문을 사랑하는 나의 부모님, 그리고 Grace, Daniel, Michelle, Sharon, Asher, Rohi 와 나의 삶의 거울이 되어주었던 모든 내담자와 오랫동안 이름 없이 기도로 사랑으로 함께한 동역자들과 나의 완전한 구속자, 완전한 상담자 예수 그리스도께 바칩니다.

감사의 글 (ACKNOWLEDGEMENTS)

전도자로, 목회자로, 상담자, 선교사로 40 여년의 삶의 여정속에 늘 동행하시고 많은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치유사역, 상담사역, 가정사역에 큰 도움을 주신 주서택 목사님과 김선화 사모님, 그리고 은사 정동섭 교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베스트대학교에서 가르침과 배움의 기회를 통해 계속 성장하도록 기회를 주신 이성상 총장님과 본 논문이 완성되기까지 학문적 통찰과 따뜻한 격려로 지도해 주신 홍순아 교수님, 장세호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늘 기도와 사랑으로 함께 해 준 가족들과 선교 동역자님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긴 시간 동안 하베스트에서 함께 삶을 나누었던 많은 선교사님들과 상담사역 동역자님들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본 연구가 상처 입은 가족을 치유하고 회복하며 향기나는 부부, 향기나는 가정을 세우기를 갈망하는 모든 부부와 부모들에게 좋은 가이드가 되고 우리 주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는 성장과 성숙을 향한 작은 디딤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목 차

초록(ABSTRACT)

헌정 (DEDICATION)

감사의 글 (ACKNOWLEDGEMENTS)

목차 (TABLE OF CONTENTS)

1. 서론	12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2 연구문제	
1.3. 용어의 정의	
1.3.1. 기독교 가정 회복	
1.3.2. 전문가 성찰 기록	
1.3.3. 긍정정서	
1.3.4. 대인관계 역량	
1.3.5. 회복탄력성	
1.4. 연구의 제한점	
1.4.1. 질적 연구로서의 일반화 한계	
1.4.2. 자료 수집 범위 및 대상의 국한성	
1.4.3. 기독교적 가치관의 특수성	
1.4.4. 연구자 주관성과 성찰적 도구로서의 한계	

2. 이론적 배경 20

2.1. 성경적 인간 이해와 가정관

2.1.1. 하나님의 형상(Imago Dei)과 관계적 존재성

2.1.2. 신적 기관으로서의 가정과 언약적 원리

2.1.3. 죄로 인한 관계의 왜곡과 회복의 필연성

2.1.4. 성경적 인간론 및 가정관의 역사적·신학적 고찰

1) 아우구스티누스(St. Augustine)의 인간 이해와 가정 공동체

2) 마틴 루터(Martin Luther)의 가정관: ‘거룩한 소명’으로서의 일상

3) 존 칼빈(John Calvin)의 ‘작은 교회(Ecclesiola)’와 언약적 회복

2.2. 상담심리학적 관계 이론 및 정서적 필요

2.2.1. 가족체계이론과 관계적 역동: 보웬(Bowen)의 이론을 중심으로

2.2.2. 구조적 가족치료(Minuchin)와 경험적 모델(Satir)의 계보

2.2.3. 소진(Burnout)의 다차원적 이해와 최신 연구 동향

2.2.4. 회복탄력성(Resilience)의 개념과 동적 기제

2.2.5. 정서적 필요와 긍정정서 및 대인관계 역량

2.3. 기독교 상담에서의 가정 회복 담론

2.3.1. 통합적 접근의 필요성: 심리-신학적 통섭의 지평

2.3.2. 회복의 단계와 촉진 요인: 소진에서 전인적 안녕으로

2.3.3. 성찰적 실천과 ‘향기나는 가정’ 담론의 2정립

2.4. 소결: 성경적 가치와 상담심리학적 원리의 통합을 통한 가정 회복의 기틀

2.5.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의 차별성

2.5.1	선행연구의 비판적 검토 및 연구의 차별성	
2.5.2.	기존 기독교 가정 사역 프로그램과의 비교 및 차별성	
	표 2-1	
2.6.	개념적 기틀: 기독교 가정 회복의 10대 범주와 생명 나무 모델	
3.	연구 방법.....	40
3.1.	자료 수집 및 표집 절차	
3.1.1.	주 분석 자료: 전문가 연재 칼럼(Primary Data)	
	표 3-1	
3.1.2.	보조 분석 자료의 유의표집(Purposive Sampling): 상담 사례 기록	
3.1.3.	분석 자료의 학술적 가치 및 타당성	
3.2.	연구 방법론의 선정 및 타당성	
3.2.1.	주제 분석법(Thematic Analysis)의 학술적 토대	
3.2.2.	타 질적 방법론과의 비교를 통한 주제 분석법의 채택 당위성	
3.2.3.	브라운과 클라크의 주제 분석 6단계 수행 절차	
3.3.	연구의 진실성 확보	
3.4.	윤리적 고려	
4.	연구 결과: 기독교 가정 회복의 핵심 주제 분석.....	48
4.1.	향기나는 대화: 부드러운 대답과 언어의 온도	
4.2.	부부의 정서적 필요: 상호 충족을 통한 관계의 심화	
4.3.	건강한 경계 설정: 갈등 관리와 정서적 분화	
4.4.	분노의 치유와 용서: 쓴 뿌리 제거를 통한 회복	

- 4.5. 세대 간 전수 끊기: 역기능 가정의 대물림 방지
- 4.6. 고난과 시련의 의미: 위기를 통한 가정의 성숙
- 4.7. 부모 됨의 소명: 자녀의 정서적 지지와 훈육
- 4.8. 영적 공동체로서의 가정: 예배와 기도의 회복
- 4.9. 독서상담을 통한 성장: 책 읽는 부모와 성찰적 가정
- 4.10. 사명과 전수: 향기나는 삶의 열매

5. 논의 및 결론 73

- 5.1. 연구 결과 요약 및 논의
- 5.2. 이론적 및 실무적 시사점
 - 5.2.1. 신학적·상담학적 이론적 시사점
 - 5.2.2. 실무적 시사점: ‘향기나는 가정 회복’ 10주 프로그램
- 표 5-1
- 5.3. 연구의 한계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 5.4. 결론

부록 94

부록1

부록2

부록3

부록4

참고문헌 (Bibliography) 118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인간에게 있어 가정은 창조주가 설계한 가장 기초적인 공동체이자, 생애 최초의 사회화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형상(Imago Dei)을 회복해 나가는 인격적 성숙의 요람이다. 특히 부부 관계는 가정이라는 시스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핵심 하위체계로서, 이들의 정서적 결속과 소통의 질은 자녀의 발달적 과업 수행 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 전체의 심리적 안녕(Well-being)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변인이다. 그러나 현대 한국 사회는 급격한 구조적 변화와 물질 만능주의적 가치관의 확산으로 인해 가정의 본질적 기능이 급격히 약화되는 ‘가족 해체’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최근의 사회적 통계와 선행연구들은 가정 공동체가 직면한 위기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통계청(2023)의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이혼 건수는 매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결혼 20년 이상의 ‘황혼 이혼’ 비중이 급증하는 추세는 가정 내 정서적 단절이 일시적 갈등을 넘어 장기적이고 누적된 결과임을 시사한다.¹ 또한, 현대 사회의 치열한 경쟁 풍토는 부모들로 하여금 자녀 양육을 ‘성취’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함으로써, 부모-자녀 간의 인격적 만남보다는 성적과 진로 중심의 기능적 관계에 치중하게 만든다. 이러한 현상은 부모와 자녀 사이의 정서적 거리감을 증폭시키며, 가정 내 의사소통의 부재와 갈등의 고착화를 야기한다.²

많은 현대 부모들은 자녀 양육과 경제적 생존이라는 이중적 과업 속에서

¹ 통계청. (2023). 2022년 혼인·이혼 통계. 통계청. <https://kostat.go.kr>. 동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이혼 건수는 93,232건이며, 혼인 지속 기간 20년 이상의 황혼 이혼 비율은 전체 이혼의 37.0%를 차지한다.

² 유계숙. (2010). 가족가치관이 결혼, 출산 및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5(3), 1-26.

극심한 심리적 압박과 양육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스트레스는 부모의 자아존중감을 저하시키고,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냉소적인 태도를 유발하여 결과적으로 부모로서의 효능감을 상실하게 만든다.³ 이러한 심리적 상태가 지속될 경우, 개인은 정서적 고갈(Emotional Exhaustion)과 비인간화(Depersonalization)를 특징으로 하는 ‘소진(Burn-out)’ 상태에 빠지게 된다.⁴ 가정 내에서의 소진은 단순한 피로를 넘어 가족 구성원에 대한 정서적 무관심과 적대감으로 나타나며, 이는 중국에는 가정 공동체의 본질적인 파괴로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적 위기 요인이 된다.⁵

이러한 위기 국면 속에서 기독교 가정 또한 세속적 가치관과 성경적 원리 사이에서 심층적인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다. 성경적 가정관은 부부의 온전한 연합과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는 거룩한 공동체를 강조하지만, 실제 갈등의 현장에서 이를 구체적인 상담 기법 및 실천 원리와 연결하여 회복을 이끌어낼 수 있는 통합적 모델은 여전히 미비한 실정이다.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양적 연구를 통한 통계적 경향 파악이나 특정 프로그램의 단기적 효과성 검증에 편중되어 있어, 실제 회복이 일어나는 ‘심층적인 역동’과 그 과정에 담긴 ‘영성적 의미’를 전문가적 통찰로 분

³ 이경숙, 정석진. (2015).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양육 효능감이 양육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8(2), 45-67.

⁴ 소진(Burnout)의 개념과 구성 요소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Maslach, C., & Leiter, M. P. (1997). The truth about burnout: How organizations cause personal stress and what to do about it(pp. 17-34). Jossey-Bass. 최근 부모 소진(Parental Burnout) 개념으로의 확장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Roskam, I., Raes, M.-E., & Mikolajczak, M. (2017). Exhausted parents: Development and preliminary validation of the Parental Burnout Inventory. *Frontiers in Psychology*, 8, 163. <https://doi.org/10.3389/fpsyg.2017.00163>

⁵ Maslach, C., & Leiter, M. P. (1997). The truth about burnout: How organizations cause personal stress and what to do about it. Jossey-Bass.; Roskam, I., Raes, M. E., & Mikolajczak, M. (2017). Exhausted parents: Development and preliminary validation of the parental burnout inventory. *Frontiers in Psychology*, 8, 163. <https://doi.org/10.3389/fpsyg.2017.00163>

석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⁶

특히 선행연구(장세호, 2020)에서는 부모의 긍정정서와 대인관계 능력이 회복탄력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침을 입증하며 모델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으나, 이러한 심리적 기제들이 실제 장기간의 상담 현장과 성찰적 기록 속에서 어떠한 주제적 패턴으로 나타나는지에 대한 질적 규명은 여전히 학술적 과제로 남아 있다.⁷ 질적 연구 방법론 중 하나인 성찰적 실천 연구(Reflective Practice Research)의 관점에서 볼 때,⁸ 전문가가 10년이라는 장기적인 임상 현장에서 기록한 텍스트는 이론적 사변을 넘어 실천적 지혜(Phronesis)를 담고 있는 고유한 학술적 자산이다.⁹ 이에 연구자는 2009년부터 약 10년간 「크리스천 저널」에 '향기나는 가정'을 주제로 연재한 전문가 칼럼 총 79편과 지난 25년간 상담 현장에서 축적된 상담 사례 기록물을 주요 분석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이 데이터는 전문가로서 가정의 위기와 회복 현장을 지켜온 종단적 기록물(Longitudinal Records)로서, 성경적 인간 이해와 상담학적 원리가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융합되었는지를 입증하는 전형적인 실천적 지침이 된다.¹⁰

⁶ 이관직. (2007). 기독교 상담학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통합적 접근. 신학과 실천, 13, 233-258.

⁷ 장세호(2020, pp. 1-4)는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들이 양육스트레스로 인해 긍정정서가 저하되고 대인관계 역량이 약화되며 회복탄력성이 감소하는 악순환 구조를 지적하고, 코칭 기반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이 세 변인을 유의미하게 향상시킴을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 장세호. (2020). 부모 코칭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성 검증: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의 긍정정서, 대인관계, 회복탄력성을 중심으로. [박사학위 논문, 광신대학교 대학원 코칭심리학과].

⁸ 성찰적 실천 연구(Reflective Practice Research)의 이론적 토대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Schön, D. A. (1983). The reflective practitioner: How professionals think in action(pp. 49-69). Basic Books.

⁹ Schön, D. A. (1983). The reflective practitioner: How professionals think in action. Basic Books.

¹⁰ Creswell, J. W., & Poth, C. N. (2018).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approaches (4th ed.). SAGE Publications.

본 연구에서의 ‘회복’은 단순히 갈등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기능적 복구를 넘어, 고난 속에서 성경적 원리를 재발견하고 성찰적 질문을 통해 가정의 새로운 질서를 세워가는 전인적 성장의 과정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전문가의 성찰적 기록물인 『향기나는 부부 향기나는 가정』의 핵심 텍스트를 주제 분석법(Thematic Analysis)으로 심층 분석하여 기독교 가정 회복의 핵심 원리들을 범주화 하는 데 있다.

최종적으로는 도출된 10가지 핵심 주제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통합적인 ‘기독교 가정 회복 모델’을 구축하고자 한다. 이는 정서적 단절과 소진 상태에 있는 위기의 가정이 어떻게 다시 성경적 안녕을 되찾고 ‘향기나는 가정’으로 거듭날 수 있는지에 대한 실천적 경로를 제시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기존의 양적 연구들이 제시한 회복의 지표들을 질적으로 뒷받침하는 동시에, 향후 교회와 상담 현장에서 부모와 부부를 돕는 실제적인 가이드라인이자 영성적 상담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1.2 연구문제

현대 기독교 가정이 직면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그간 학계와 상담 현장에서는 다양한 노력이 경주되어 왔다. 그러나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다음과 같은 학술적·실천적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점, 즉 리서치 갭(Research Gap)을 극복하고자 하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첫째, 기존의 기독교 가정 및 부모 교육 관련 연구들은 주로 양적 연구(Quantitative Research)에 편중되어 있다. 선행연구(장세호, 2020)를 포함한 다수의 연구가 통계적 분석을 통해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입증하는 데 성공했으나, 이는 ‘무엇(What)’이 중요한지에 대한 수치적 근거를 제공할 뿐, 실제 상담 현장에서 회복이 ‘어떻게(How)’ 일어나는지에 대한 역동적이고 심층적인 서사(Narrative)를 보여주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둘째, 기독교 상담 분야의 질적 연구들은 대개 단기적인 상담 사례나 소수의 인터뷰 대상자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 데이터의 종단적 깊이(Longitudinal Depth)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한 가정이 위기를 겪고 회복에 이르기까지는 오랜 시간의 인내와 성찰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전문가가 10년 이상의 장기적인 호흡으로 현장을 관찰하고 기록한 성찰적 결과물을 분석한 연구는 매우 드문 실정이다.

셋째, 기독교적 가치관과 상담심리학적 원리를 이론적으로 통합하려는 시도는 지속되어 왔으나, 이를 현장 중심의 실천 모델(Restoration Model)로 구체화하여 제시한 연구는 미비하다. 특히 전문가 자신의 임상적 실패와 성공이 응축된 ‘성찰적 기록(Reflective Journaling)’을 학술적 자산으로 전환하여, 위기에 처한 평범한 기독교 가정들이 즉각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을 도출할 필요성이 강력히 제기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연구자가 10년간 연재한 79편의 칼럼과 25년간의 상담 임상 기록이라는 방대한 질적 데이터를 활용하여, 수치화된 지표 이면에 존재하는 기독교 가정 회복의 실제적 경로와 핵심 주제들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는 기존의 양적 연구가 도달하지 못한 ‘회복의 질적 실체’를 규명하는 작업이며, 이를 통해 보다 입체적이고 전인적인 기독교 가정 회복 통합 모델을 구축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에 근거하여 본 연구가 탐구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전문가의 10년간의 성찰 기록(칼럼, 2009~2019) 및 25년 상담 임상 사례에 나타난 기독교 가정 회복의 핵심 주제는 무엇인가?
2. 도출된 주제들은 상담심리학적 원리 및 기독교 영성과 어떻게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가?
3. 위기의 기독교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한 통합적 모델(Restoration Model)은 어떠한 구조를 갖는가?

1.3. 용어의 정의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핵심 용어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1.3.1. 기독교 가정 회복 (Christian Family Restoration)

기독교 가정 회복이란 성경적 인간 이해를 바탕으로 가정 내 깨어진 관계를 치유하고, 구성원들이 하나님의 형상(Imago Dei)을 회복해 나가는 전인적인 변화 과정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단순한 갈등 해소를 넘어, 영성적 원리와 상담심리학적 기제가 결합하여 가정 공동체가 본연의 건강성을 되찾는 상태로 규정한다.

1.3.2. 전문가 성찰 기록 (Expert Reflective Records: Columns)

본 연구의 주요 분석 자료인 전문가 성찰 기록은 연구자가 2009년부터 10년간 기독교 매체 등에 연재한 79편의 칼럼을 의미한다.

이는 상담 현장의 임상적 경험과 연구자의 신학적·심리학적 성찰이 응축된 ‘자기 보고적 서사 데이터’로서, 기독교 가정 회복의 실제적 양상을 추적할 수 있는 종단적 자료를 뜻한다.

1.3.3. 긍정정서 (Positive Emotion)

긍정정서란 개인이 경험하는 기쁨, 감사, 희망 등과 같은 심리적 상태를 의미한다. 선행연구(장세호, 2020)의 관점을 계승하여, 본 연구에서는 부모 및 가족 구성원이 코칭적 상호작용을 통해 경험하는 긍정적 심리 에너지가 사고와 행동의 범주를 확장시키고 관계 회복을 견인하는 핵심 동력으로 정의한다.

1.3.4. 대인관계 역량 (Interpersonal Competence)

대인관계 역량이란 타인과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공감적 소통 능력과 심리적 경계 설정 능력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독교 가정이 직면한 정서적 단절을 극복하고 상호 존중의 관계를 구축하게 하는 실천적 기술이자 심리적 자산으로 규정한다(장세호,

2020).

1.3.5. 회복탄력성 (Resilience)

회복탄력성이란 위기와 고난의 상황에서도 이를 성장의 기회로 전환하여 이전보다 더 높은 차원의 적응 상태로 복귀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긍정정서와 대인관계 역량이 영성적 원리와 결합하여 나타나는 최종적인 ‘가정 회복의 열매’이자, 위기 속에서도 가정을 지탱하는 심리적·영적 복원력으로 정의한다.

1.4.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전문가의 장기적인 성찰적 기록물을 분석하여 기독교 가정 회복 모델을 구축하고자 시도되었으나, 연구 방법론과 자료의 성격상 다음과 같은 학술적 제한점을 지닌다.

1.4.1. 질적 연구로서의 일반화 한계

본 연구는 특정 수치를 통해 보편적 경향을 파악하는 양적 연구가 아닌, 전문가의 기록에 담긴 심층적 의미를 탐구하는 질적 연구이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10가지 핵심 주제와 회복 모델을 모든 일반 가정이나 타 종교적 배경을 가진 가정에 통계적으로 일반화하여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다만, 본 연구는 통계적 일반화 대신 질적 연구의 가치인 ‘전이 가능성(Transferability)’을 확보하기 위해 상황적 맥락을 상세히 서술하고자 노력하였다.

1.4.2. 자료 수집 범위 및 대상의 국한성

본 연구의 주된 분석 자료는 2009년부터 2019년까지 특정 매체 「크리스천 저널」에 연재된 칼럼과 연구자의 임상 기록으로 제한된다. 비록 10

년과 25년이라는 종단적 깊이를 확보하였으나, 분석 대상이 된 상담 사례들이 특정 지역이나 특정 교단 배경을 가진 내담자들에게 편중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현대 사회의 모든 다양한 가족 형태(예: 다문화 가정, 조손 가정 등)에서 나타나는 특수한 역동을 모두 포괄하기에는 자료의 범위적 한계가 존재한다.

1.4.3. 기독교적 가치관의 특수성

본 연구는 성경적 인간관과 신학적 원리를 전제로 한 ‘기독교 가정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연구 모델의 핵심 동인이 신앙적 가치와 영성적 자원(예배, 기도, 용서 등)에 기반하고 있으므로, 신앙적 배경이 없는 일반 상담 현장이나 타 종교 기반의 가정 상담 모델로 그대로 치환하여 적용하기에는 개념적·실천적 거리가 존재할 수 있다.

1.4.4. 연구자 주관성과 성찰적 도구로서의 한계

질적 연구에서는 연구자 자체가 분석의 도구(Instrument)가 된다. 본 연구는 연구자 본인의 성찰적 기록을 스스로 분석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분석 과정에서 연구자의 주관적 신념이나 이론적 편향이 개입될 소지가 있다. 연구자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전문가 검토(Expert Review)와 동료 연구자와의 피드백 과정을 거쳐 객관성을 유지하려 노력하였으나, 완벽한 불가치성(Value-free)을 확보하는 데에는 본질적인 한계가 있음을 인정한다.

2. 이론적 배경

본 장에서는 기독교 가정 회복 모델 구축을 위한 학술적 토대로서 성경적 인간관과 가정관을 고찰하고, 상담심리학적 관점에서의 관계 이론과 소진 및 회복의 개념을 검토한다. 이를 통해 기독교 상담에서 논의되는 가정 회복의 통합적 담론을 분석하고자 한다.

2.1. 성경적 인간 이해와 가정관

기독교 상담 및 가정 회복 연구의 신학적 토대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Imago Dei)으로 창조된 인격적 존재로 인식하는 데서 출발한다.¹¹ 이는 인간을 단순한 심리적 기제의 집합이나 사회적 기능의 단위로 보는 세속적 관점을 넘어, 존재론적으로 관계를 지향하며 창조주와의 연합 속에서만 참된 안녕을 누릴 수 있는 존재임을 선언하는 것이다.

2.1.1. 하나님의 형상(Imago Dei)과 관계적 존재성

성경적 관점에서 인간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상호 내주적 관계를 반영하는 ‘관계적 존재’로 설계되었다. 창조주와의 수직적 관계는 타인과의 수평적 관계를 규정하는 기초가 되며, 인간은 이러한 관계성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삶의 의미를 발견한다.

그러나 현대 사회의 성과 중심적 가치관과 물질주의적 풍토는 인간의 존재론적 고귀함보다 ‘기능적 가치’를 우선시하게 만든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현대인들은 자신의 존재가 지닌 영성적 깊이를 상실한 채, 무한 경쟁의 현장으로 내몰리고 있다.¹² 특히 부모들은 사회적 성취와 자녀의 성

¹¹ Imago Dei 개념의 신학적 함의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Grenz, S. J. (2001). *The social God and the relational self: A trinitarian theology of the Imago Dei*(pp. 141-167). Westminster John Knox Press.

¹² Moltmann, J. (1985). *God in creation: A new theology of creation and the spirit of God*. Harper & Row.; 한국어 번역: 몰트만, J. (1987). *창조 안에 계신 하나님* (김균진 역). 한국신학연구

공을 동일시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심리적 압박을 경험하며, 이는 인간 본연의 관계적 역량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결국 관계적 존재로서 창조된 인간이 관계의 본질을 상실하고 기능적 경쟁에 매몰될 때, 내면의 정서적 에너지는 고갈되며 심각한 정체성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¹³

2.1.2. 신적 기관으로서의 가정과 언약적 원리

가정은 인류 역사상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최초의 기관이자, 하나님의 사랑과 통치가 가장 밀접하게 구현되어야 할 언약 공동체이다. 성경은 가정을 단순히 혈연적 결합을 넘어 부부가 한 몸을 이루는 영적 연합의 장으로 규정하며,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부성(Fatherhood)과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하도록 설계하였다.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부모의 역할은 자녀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투영하는 대리적 사명을 내포한다. 그러나 선행연구에 따르면, 현대 기독교 가정의 부모들조차 사회적 요구와 신앙적 가치 사이의 불일치로 인해 부모로서의 효능감을 상실하고 있으며, 이는 가정 환경 전반의 질적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¹⁴ 가정은 마땅히 정서적 안식과 영적 성장이 일어나는 처소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대의 가정은 구성원 서로를 향한 정서적 지지 능력을 잃어버린 채 갈등과 단절의 공간으로 변질되고 있는 실정이다.¹⁵

소.

¹³ Maslach, C., Schaufeli, W. B., & Leiter, M. P. (2001). Job burnout.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2, 397-422. <https://doi.org/10.1146/annurev.psych.52.1.397>

¹⁴ 현대 기독교 부모의 효능감 저하에 대한 연구는 다음을 참조: 이원일. (2012). 기독교 부모교육의 현황과 방향 탐색. *기독교교육논총*, 32, 157-188.

¹⁵ 박성연, 도현심. (2006). 아동발달. 법문사.

2.1.3. 죄로 인한 관계의 왜곡과 회복의 필연성

인간의 타락은 창조 본연의 관계성을 파괴하였으며, 이는 가장 먼저 부부 관계와 부모-자녀 관계의 왜곡으로 나타났다. 죄는 타인을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보게 하거나, 관계 내에서 지배와 종속의 역동을 유발한다. 이러한 관계적 왜곡은 현대 사회에서 ‘의사소통의 단절’, ‘정서적 유기’, ‘세대 간 역기능의 전수’와 같은 구체적인 병리 현상으로 발현된다.

특히 부모와 자녀 간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은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며, 이는 다시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와 회복탄력성 저하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형성한다.¹⁶ 따라서 기독교 상담에서의 가정 회복은 단순히 표면적인 갈등을 봉합하는 기술적 접근이 아니라, 왜곡된 관계를 성경적 원형으로 되돌리는 본질적인 영성적 작업이어야 한다. 이는 창조 본연의 질서를 신뢰하고, 인간 내면에 잠재된 회복의 자원을 신앙 안에서 재발견하여 전인적인 안녕을 추구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2.1.4. 성경적 인간론 및 가정관의 역사적·신학적 고찰

기독교 가정 회복의 당위성을 학문적으로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교회사 속에서 전개된 인간론과 가정관의 변천 과정을 원전 중심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

1) 아우구스티누스(St. Augustine)의 인간 이해와 가정 공동체
초기 기독교 신학의 기틀을 마련한 아우구스티누스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Imago Dei)으로 창조된 존재로 규정하며, 가정 회복의 본질을 이 형상의 회복 과정으로 파악하였다. 그의 저서 『삼위일체론(De

¹⁶ Satir, V. (1972). Peoplemaking. Science and Behavior Books.; 한국어 번역: 사티어, V. (2000). 사람만들기(한국버지니아사티어연구회 역). 김영애가족치료연구소.

Trinitate)』에 따르면, 인간 내면에 새겨진 하나님의 형상은 타락으로 인해 오염되었으나 사라지지 않았으며, 오직 창조주와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만 온전해질 수 있다.¹⁷ 그는 인간이 자기 자신을 알고 사랑하는 행위 속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흔적(Vestigia Trinitatis)이 남아있다고 보았으며, 이러한 관계적 존재성은 가정 내에서 부부와 부모-자녀 간의 인격적 결속을 통해 구체화된다. 특히 그의 대작 『신국론(De Civitate Dei)』에서 아우구스티누스는 가정을 ‘지상의 도성’ 속에서 ‘천상의 도성’을 예표하는 가장 기초적인 사회적 단위로 정의하였다.¹⁸

“가정의 평화는 구성원들 사이의 잘 정돈된 명령과 순종의 조화이다 (pax domestica, ordinata imperandi obediendique concordia cohabitantium).”¹⁹

그는 가정 내에서의 평화가 국가와 사회의 평화로 확장된다고 보았으며, 부모의 권위는 지배가 아닌 ‘사랑에 근거한 돌봄’이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그는 『혼인의 유익(De Bono Coniugali)』을 통해 결혼이 지닌 세 가지 선(tria bona)으로 자녀(proles), 정절(fides), 성례(sacramentum)를 제시하며 가정을 성스러운 언약 관계로 규정하였다.²⁰

2) 마틴 루터(Martin Luther)의 가정관: ‘거룩한 소명’으로서의 일상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가정을 단순히 세속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첫 번째 학교’이자

¹⁷ St. Augustine, 『삼위일체론(De Trinitate)』, 김중흠 역 (서울: 경세원, 1993), XIV, 8, 11.

¹⁸ Augustinus, A. (413-426/2004). 신국론[De Civitate Dei] (추인해 역, 제19권 13장).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원전 집필 413-426 AD)

¹⁹ 원문: "pax domestica, ordinata imperandi obediendique concordia cohabitantium." 번역: "가정의 평화는 함께 사는 사람들 사이의 잘 정돈된 명령과 순종의 조화이다." 번역 출처: Augustinus, A. (413-426/2004). 신국론(추인해 역, 제19권 16장, p. 892). 크리스찬다이제스트.

²⁰ Augustinus, A. (401/2019). 혼인의 유익[De Bono Coniugali] (성염 역, pp. 45-67). 분도출판사. (원전 집필 401 AD)

교회'로 정의하였다.²¹

루터는 그의 저서 『대요리문답(Large Catechism)』에서 제4계명을 해설하며 부모의 지위는 하나님 다음으로 높은 권위임을 역설하였다.²²

“부모의 지위는 하나님 다음으로 가장 높은 것이며,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 이 세상의 질서를 보존하고 생명을 유지하신다.”²³

그에 따르면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통로이며,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양육은 곧 하나님께 드리는 최상의 예배이다. 루터는 일상적인 가사 노동과 자녀 돌봄을 수도원의 고행보다 더 가치 있는 ‘거룩한 소명(Vocation)’으로 보았는데, 이러한 관점은 연구자의 칼럼(오광복, 2009-2019)에서 강조된 ‘향기나는 대화’가 일상의 사소한 순간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는 영적 행위라는 논리적 근거가 된다.

3) 존 칼빈(John Calvin)의 ‘작은 교회(Ecclesiola)’와 언약적 회복
존 칼빈은 가정을 하나님의 통치가 가시적으로 구현되어야 할 ‘작은 교회(Ecclesiola)’로 명명하며, 가정이 지닌 신학적·교육적 기능을 극대화하였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Institutio Christianae Religionis)』에서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이 심각하게 오염되었음을 전제하면서, 가정을 통해 이 형상이 점진적으로 회복될 수 있다고 보았다.²⁴

그는 가정을 하나님과의 언약이 전수되는 거룩한 훈련장으로 보았으며

²¹ 마틴 루터, 『루터의 대요리문답』, 최주훈 역 (서울: 복있는사람, 2015), 141.

²² Luther, M. (1529/2017). 대요리문답[Der Große Katechismus] (지원용 역, pp. 89-102). 컨콜디아사. (원전 출판 1529)

²³ 원문: "Der Eltern Stand ist der höchste Stand nach Gott." 번역: "부모의 지위는 하나님 다음으로 가장 높은 것이다." 번역 출처: Luther, M. (1529/2017). 대요리문답(지원용 역, p. 95). 컨콜디아사.

²⁴ Calvin, J. (1559/2003). 기독교 강요[Institutio Christianae Religionis] (원광연 역, 제2권 1장, pp. 223-241). 크리스찬다이제스트. (원전 출판 1559)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하나님께서서는 가정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여지는 훈련을 받게 하신다.”²⁵

부모가 자녀에게 보여주는 자비와 공의는 하나님의 부성(*Fatherhood*)을 경험하게 하는 일차적 도구가 되며, 이러한 언약적 회복 과정은 선행연구(장세호, 2020)에서 규명된 긍정정서와 대인관계 역량이 실제 삶의 현장에서 영적 안녕으로 승화되는 경로를 신학적으로 정당화한다.

2.2. 상담심리학적 관계 이론 및 정서적 필요

본 절에서는 가정 내 역동을 이해하기 위한 학술적 기저로서 현대 상담심리학의 주요 이론들을 검토한다. 가정을 하나의 유기적 체계로 파악하는 가족체계이론을 통해 관계의 구조적 역동을 살피고, 현대 가정이 직면한 심리적 고갈 현상인 소진의 개념을 고찰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심리적 자산으로서의 회복탄력성을 탐구하고자 한다. 가족 시스템 내에서 구성원들의 정서적 필요(*Emotional Needs*)가 적절히 충족될 때 관계의 선순환이 일어난다. 이와 관련하여 장세호(2020)는 부모 코칭을 통해 유발된 긍정정서(*Positive Emotion*)가 부모-자녀 간의 정서적 필요를 채워주는 핵심 동력임을 입증하였다.²⁶ 또한, 건강한 관계 형성을 위한 대인관계 역량은 단순한 소통 기술을 넘어 가족 시스템 내의 회복탄력성을 구축하는 필수 선행 변인이 된다(장세호, 2020).

이는 본 연구가 제4장에서 다룰 ‘향기나는 대화(4.1)’와 ‘부부의 정서적

²⁵ 번역 출처: Calvin, J. (1559/2003). 기독교 강요(원광연 역, 제4권 1장 1절, p. 1189).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칼빈은 이 맥락에서 가정을 교회의 기초 단위(*Ecclesiola in Ecclesia*)로 규정하며, 부모의 언약적 책임을 강조하였다.

²⁶ 장세호. (2020). 부모 코칭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성 검증: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의 긍정정서, 대인관계, 회복탄력성을 중심으로(pp. 26-28). [박사학위논문, 광신대학교 대학원 코칭심리학과].

필요(4.2)'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심리학적 근거가 된다.

2.2.1. 가족체계이론과 관계적 역동: 보웬(Bowen)의 이론을 중심으로

가족체계이론은 가정을 개별 구성원의 단순한 집합이 아니라, 구성원 간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하나의 유기적 체계(System)로 정의한다. 특히 보웬(Bowen)은 가족 내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정서적 미분화가 어떻게 세대를 거쳐 전수되는지에 주목하였다.²⁷

첫째, 정서적 분화(Differentiation of Self)는 체계이론의 핵심 개념으로, 개인이 타인과 정서적으로 연결되면서도 자신의 고유한 자율성과 가치관을 유지하는 능력을 의미한다.²⁸ 분화 수준이 낮은 부모는 배우자나 자녀와의 관계에서 과도한 정서적 융합(Fusion)을 보이거나, 반대로 극단적인 단절을 선택함으로써 갈등을 심화시킨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부모의 정서적 분화 수준은 자녀의 사회·정서적 발달과 정의 상관관계를 맺으며, 가정이 건강한 항상성을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²⁹

둘째, 삼각관계(Triangulation)는 두 사람 사이의 불안과 긴장이 높아질 때, 제3의 인물이나 대상을 끌어들여 긴장을 해소하려는 역동을 뜻한다. 기독교 가정에서 부부 갈등이 심화될 때 자녀를 갈등의 완충지대로 삼는 행위는 자녀에게 심각한 심리적 부담을 주며, 이는 가정의 회복을 저해하는 핵심 기제가 된다.

²⁷ Bowen, M. (1978). Family therapy in clinical practice(pp. 362-375). Jason Aronson.

²⁸ Bowen, M. (1978). Family therapy in clinical practice. Jason Aronson.

²⁹ 제석봉. (1992). 자아분화와 역기능적 행동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4(1), 119-139.

셋째, 세대 간 전수(Multigenerational Transmission)는 조부모에서 부모로, 다시 부모에서 자녀로 이어지는 역기능적 상호작용 패턴을 의미한다. 연구자의 임상 기록(오광복, 2009-2019)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듯이, 부모가 경험한 과거의 상처와 양육 방식은 현재의 부모 효능감과 대인관계 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를 인지하고 차단하는 '성찰적 과정' 없이는 가정의 근본적 회복이 불가능하다.³⁰

2.2.2. 구조적 가족치료(Minuchin)와 경험적 모델(Satir)의 계보

보웬(Bowen)이 세대 간 전수와 분화에 집중했다면, 미누친과 사티어는 각각 체계의 구조와 의사소통의 역동을 통해 가정 회복의 경로를 제시한다.

1. 미누친(Salvador Minuchin)의 구조적 가족치료: 미누친은 가정 내 '하위체계(Subsystem)'와 '경계선(Boundary)'의 명확성에 주목한다.³¹ 위기의 가정은 대개 부부 하위체계가 약화되어 자녀가 부모의 갈등에 개입되거나, 경계선이 지나치게 경직 혹은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다. 본 연구에서 도출할 '건강한 경계 설정(4.3)'은 미누친이 강조한 '명료한 경계'의 성격적 실천이라 할 수 있다.³²

2. 사티어(Virginia Satir)의 경험적 가족치료: 사티어는 인간의 '자존감'과 '의사소통 유형'을 핵심 변인으로 다룬다. 그는 구성원들이 기능적이고 공감적인 소통을 할 때 내면의 성장이 일어난다고 보았다.³³ 이는 본

³⁰ 오광복. (2009-2019). 향기나는 부부, 향기나는 가정[연재 칼럼 묶음집]. 크리스천저널.
<http://www.kcjlogos.org>

³¹ Minuchin, S. (1974). Families and family therapy. Harvard University Press. pp. 51-72.

³² Cloud, H., & Townsend, J. (1992). Boundaries: When to say yes, how to say no to take control of your life. Zondervan.

³³ Satir, V. (1972). Peoplemaking. Science and Behavior Books.

연구의 ‘향기나는 대화(4.1)’가 지향하는 바와 일맥상통하며, 선행연구(장세호, 2020)에서 입증된 긍정정서가 소통의 질을 결정한다는 논리를 지지한다.³⁴

2.2.3. 소진(Burnout)의 다차원적 이해와 최신 연구 동향

소진(Burnout)은 초기 직무 맥락의 정서적 고갈 상태를 설명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최근 5년 내 연구들은 이를 가정 내 부모 역할 및 부부 관계의 영역으로 확장하여 ‘부모 소진(Parental Burnout)’이라는 독립적 개념으로 정교화하고 있다.³⁵ 현대 상담학에서 정의하는 소진은 단순히 피로감을 느끼는 상태를 넘어, 정서적 고갈(Emotional Exhaustion), 내담자 및 가족 구성원에 대한 비인간화(Depersonalization), 그리고 개인적 성취감 결여(Reduced Personal Accomplishment)의 세 가지 차원이 누적된 결과이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기독교 가정의 부모들은 신앙적 이상과 현실적 양육 스트레스 사이의 괴리로 인해 일반 부모보다 더 깊은 심리적 부적절감과 소진을 경험할 위험이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³⁶ 특히 팬데믹 이후의 가정 내 역동을 분석한 연구들은 고립된 환경에서의 양육 독박과 경제적 불안정이 부모의 자아존중감을 급격히 저하시키며, 이것이 배우자 및 자녀와의 정서적 단절을 심화시키는 핵심 기제가 됨을 입증하였다.³⁷ 이러한 소진 상태는 가정 공동체의 본질적인 파

³⁴ Fredrickson, B. L. (2001). The role of positive emotions in positive psychology: The broaden-and-build theory of positive emotions. *American Psychologist*, 56(3), 218–226.

³⁵ Mikolajczak, M., & Roskam, I. (2021). *Parental Burnout: Moving the Focus from Children to Parents*. New Directions for Child and Adolescent Development. 최신 국제 연구들은 부모 소진이 자녀의 문제 행동보다 부모 자신의 정서적 고갈에서 비롯됨을 강조한다.

³⁶ 김영희, 이수연 (2022). 기독교 학부모의 자녀양육 스트레스가 심리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 신앙 성숙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기독교교육논총』, 71.

³⁷ 박지혜, 최은실 (2023). 코로나19 이후 가족 소진과 관계 만족도의 구조적 관계: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 『한국가족관계학회지』, 28(1).

괴로 이어지는 심각한 위기 요인이 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영성적·심리학적 자원의 통합적 개입이 강력히 요구된다

2.2.4. 회복탄력성(Resilience)의 개념과 동적 기제

회복탄력성(Resilience)은 역경 속에서 단순히 이전 상태로 복구되는 능력을 넘어, 고난을 성장의 기회로 전환하여 더 높은 차원의 적응 상태로 나아가는 전인적 복원력을 의미한다. 최근의 회복탄력성 연구는 이를 개인의 고정된 특성이 아닌, 환경 및 자원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함양되는 ‘동적 과정(Dynamic Process)’으로 파악하는 추세이다.³⁸

가정 내 회복탄력성 구축에 관한 **기존의 실증적 연구**에 따르면, 부모의 긍정정서와 대인관계 역량은 심리적 복원력을 강화하는 핵심적인 선행변인으로 작용한다.³⁹ 긍정정서는 고난 속에서도 희망의 자원을 발견하게 하며, 강화된 관계 역량은 가족 간의 공감적 소통을 촉진하여 회복의 시너지를 창출하기 때문이다.⁴⁰

이러한 관점은 본 연구가 분석한 ‘고난의 신학적 재해석(4.6)’과 ‘영적 공동체로서의 가정(4.8)’이 단순한 고백을 넘어, 실제적인 심리적 복원력을 극대화하는 촉매제가 됨을 학술적으로 뒷받침한다.⁴¹

2.2.5. 정서적 필요와 긍정정서 및 대인관계 역량

상담심리학적 관점에서 가족 구성원의 정서적 필요가 충족될 때 나타나

³⁸ Masten, A. S. (2021). *Resilience from the Inside Out: Integrated Multisystem Perspectives*.

³⁹ 장세호 (2020). 부모 코칭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성 검증. 광신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⁴⁰ Walsh, F. (2021). *Strengthening Family Resilience*(3rd ed.). Guilford Press.

⁴¹ 이정아 (2024). 기독교 상담 현장에서의 부모 회복탄력성 척도 개발 연구.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35(2).

는 핵심적인 심리 기제는 긍정정서(Positive Emotion)의 유발과 **대인관계 역량의 강화**로 귀결된다.

이와 관련하여 장세호(2020)는 부모 코칭을 통해 형성된 긍정정서가 부모의 인지적·행동적 자원을 확장시킬 뿐만 아니라, 강화된 대인관계 역량이 가족 내 정서적 유대감을 공고히 하는 결정적 변인임을 실증적으로 입증하였다. 이러한 선행 연구(장세호, 2020)의 결과는 본 연구에서 도출할 ‘기독교 가정 회복 모델’의 심리학적 토대를 제공한다. 즉, 전문가의 10년 성찰 기록에 나타난 ‘향기나는 대화’와 ‘관계의 조화’는 지도교수의 선행 연구에서 규명된 긍정정서와 대인관계 역량이 실제 삶의 현장에서 질적으로 구체화된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2.3. 기독교 상담에서의 가정 회복 담론

본 절에서는 신학과 상담학의 통합적 관점에서 기독교 가정 회복이 지향해야 할 방향성을 모색한다. 심리학적 기법과 성경적 원리가 결합된 통합적 접근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소진 상태에서 회복으로 나아가는 단계적 역동과 이를 촉진하는 자원을 분석하며, 연구자의 성찰적 경험이 이론 구축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함으로써 본 연구의 학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기독교 상담에서 가정 회복은 전인적 치유를 지향한다. 특히 장세호(2020)는 부모의 ‘대인관계 역량’과 ‘회복탄력성’을 강화하는 코칭적 접근이 기독교 가정이 직면한 소진(Burnout) 문제를 해결하는 실천적 대안임을 규명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 연구의 틀을 바탕으로, 전문가의 10년 기록 속에 나타난 가정 회복의 질적 역동을 분석하고자 한다.

2.3.1. 통합적 접근의 필요성: 심리-신학적 통섭의 지평

기독교 가정의 회복은 인간의 심리적 기제에 대한 이해와 영성적 차원의 변화가 동시에 요구되는 복합적인 과정이다. 따라서 단순히 심리학적 기법만을 적용하거나 추상적인 신학적 당위만을 강조하는 단편적 접근은

가정 내의 깊은 갈등과 영적 소진을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

첫째, 심리학적 기법은 가정 내의 의사소통 패턴, 정서적 유대, 개개인의 심리적 역동을 파악하고 개입하는 데 유용한 도구를 제공한다. 특히 선행연구에 따르면 부모의 자아 존중감과 효능감을 높이는 코칭 기법은 부모-자녀 관계의 질을 개선하는 데 실질적인 기여를 한다.⁴² 그러나 이러한 기법들이 인간 존재의 근원적인 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영성적 맥락과 분리될 때, 그 효과는 일시적인 증상 완화에 그칠 위험이 있다.

둘째, 성경적 원리는 가정이 지향해야 할 본질적인 가치와 언약적 사명을 제시한다.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Imago Dei)으로 바라보는 관점은 갈등 관계에 있는 가족 구성원을 경쟁이나 미움의 대상이 아닌, 존엄한 인격체로 재인식하게 하는 강력한 변화의 동인이 된다.⁴³ 따라서 진정한 의미의 가정 회복은 인간의 심리적 자원을 강화하는 상담학적 개입과 인간의 영적 본질을 다루는 신학적 성찰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통합적 모델을 통해 비로소 가능해진다.⁴⁴

⁴² Sanders, M. R., et al., "Meta-analysis of the Triple P-Positive Parenting Program,"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2014. — 부모의 자기조절 능력과 효능감 강화를 목표로 한 트리플 P 프로그램에 관한 101개 연구의 체계적 메타분석에서, 양육 실제, 부모 만족도 및 효능감에 유의미한 효과가 확인되었다.

⁴³ Thomas F. Howard (ed.), *Imago Dei: Human Dignity in Ecumenical Perspective* (Washington, D.C.: The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 Press, 2013).

이 저서는 동방정교회, 가톨릭, 개신교의 대표 학자들이 참여한 에큐메니컬 대화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Imago Dei) 교리와 오늘날의 인간 존엄성 이해의 관계를 탐구한 선구적 연구다.

⁴⁴ 강연정, "기독교 상담의 통합적 원리와 특징," 『복음과 상담』 27권 2호 (2019), 7-33.

이 논문은 기독교 상담과 심리학의 통합이 삼위일체 하나님, 성경적 인간관, 기독교 세계관, 신앙자원의 활용 등 8가지 원리에 따라 이루어지며, 인지·정서·행동·영성을 아우르는 전인적 인간 이해를 기초로 내담자의 변화와 성숙을 지향하는 통합적 특징을 가진다고 밝히고 있다.

2.3.2. 회복의 단계와 촉진 요인: 소진에서 전인적 안녕으로

가정 내의 갈등과 소진 상태에서 해결과 회복의 단계로 전이되는 과정은 일직선상의 변화가 아닌, 다양한 영적·심리적 자원이 상호작용하는 역동적인 과정이다.

첫째, 회복의 시작은 현재의 ‘소진 상태’를 정직하게 자각하는 단계에서 출발한다. 현대 사회의 경쟁적 가치관에 매몰되어 정서적 탈진과 관계적 냉소를 경험하는 상태를 인지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영적 지지 시스템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⁴⁵

둘째, 회복을 촉진하는 핵심적인 심리적 자원은 긍정정서와 대인관계 역량이다. 장세호(2020)의 연구에 따르면, 삶에 대한 긍정적 태도는 역경 속에서도 회복의 실마리를 찾게 하는 심리적 극복력을 제공하며, 타인과의 공감적 소통 능력은 가족 내의 굳어진 갈등 구조를 해체하는 열쇠가 된다.⁴⁶ 이러한 심리적 요인들은 신앙 공동체의 지지와 기도를 통한 영적 자원과 결합될 때 더욱 강력한 회복의 시너지를 창출한다.⁴⁷

⁴⁵ Christina Maslach, “Job Burnout,”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12, no. 5 (2003): 189-192.

마슬라흐(Maslach)는 직무 번아웃을 만성적인 정서적·대인관계적 스트레스에 대한 지속적 반응으로 정의하며, 그 핵심 차원을 정서적 탈진(exhaustion), 냉소(cynicism), 무효능감(inefficacy)의 세 가지로 규명하였다.

⁴⁶ 장세호. (2020). 부모 코칭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성 검증: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의 긍정정서, 대인관계, 회복탄력성을 중심으로(pp. 26-28). [박사학위논문, 광신대학교 대학원 코칭심리학과].

⁴⁷ Froma Walsh, “Strengthening Family Resilience,” 3rd ed. (New York: Guilford Press, 2016). — 또는 국내 논문으로: 유은주, “가족탄력성이 가족건강성에 미치는 영향,” 『가정과삶의질 연구』 (2019).

선행연구들은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 회복탄력성 등 개인의 심리적 요인이 가족구성원 간의 정서적 관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가족건강성의 핵심 변인으로 작용함을 밝혀왔다.

셋째, 회복은 단순히 갈등의 제거를 넘어 전인적인 성장으로 이어진다. 이는 위기 상황을 이겨내는 회복탄력성(Resilience)의 발현으로 나타나며,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의 공동체로 거듭나는 '영성적 성숙'의 단계로 나아가게 한다.⁴⁸

2.3.3. 성찰적 실천과 '향기나는 가정' 담론의 2정립

질적 연구의 맥락에서 연구자의 성찰은 단순한 주관적 경험을 넘어, 이론과 실재를 잇는 핵심적인 방법론적 가교 역할을 한다.

도널드 쉰(Donald Schön)이 제시한 성찰적 실천가(Reflective Practitioner)의 관점에 따르면, 전문가의 현장에서의 실천 과정을 끊임 없이 성찰함으로써 고유한 '실천적 지혜(Phronesis)'를 형성한다.⁴⁹ 연구자가 10년간 「크리스천 저널」에 연재해 온 칼럼(오광복, 2009-2019)과 25년간의 임상 기록은 기독교 가정이 겪는 시대적 아픔과 회복의 현장을 성찰적으로 추적해 온 기록물이다.

이러한 데이터는 특정 이론을 검증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그 자체로 살아있는 담론을 생성하는 원천이 된다.

본 연구의 핵심 키워드인 '향기나는 가정'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훌륭한 가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 타락한 관계의 악순환을 끊고

⁴⁸ Froma Walsh, *Strengthening Family Resilience*, 3rd ed. (New York: Guilford Press, 2016).

월쉬(Walsh)는 가족 회복탄력성 프레임워크를 통해, 위기와 역경을 경험한 가족이 단순히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넘어 더욱 강하고 자원이 풍부한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음을 밝히며, 이 과정에서 영적 차원이 가족의 치유, 화해, 전인적 적응에 핵심적 역할을 한다고 강조하였다.

⁴⁹ Donald A. Schön, *The Reflective Practitioner: How Professionals Think in Action* (New York: Basic Books, 1983).

쉰(Schön)은 유능한 전문가들이 학교에서 습득한 공식적 이론보다 실천 속에서 형성된 즉흥적 지식에 더 의존하며, 이러한 '행위 속 성찰(reflection-in-action)'의 과정이 전문적 실천 지식의 핵심임을 밝혔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회복한 언약 공동체를 상징한다. 이는 장세호(2020)의 선행연구가 제시한 긍정정서와 대인관계 능력이 연구자의 임상 현장(오광복, 2009-2019)에서 성경적 원리와 어떻게 결합되어 발현되는지를 보여주는 실천적 표징이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구축될 가정 회복 모델은 연구자의 장기적인 성찰과 임상 경험이 학문적 절차(주제분석)를 통해 체계화된 결과물로서, 향후 기독교 상담 현장에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학술적 토대가 될 것이다.

2.4. 소결: 성경적 가치와 상담심리학적 원리의 통합을 통한 가정 회복의 기틀

본 장에서 고찰한 성경적 인간 이해와 상담심리학적 관계 이론은 ‘기독교 가정의 전인적 회복’이라는 하나의 목적지로 수렴된다. 두 영역의 학술적 통합을 통한 본 연구의 이론적 기틀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관계적 존재로서의 회복이다. 성경적 관점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Imago Dei)을 따라 창조된 철저히 관계적인 존재이다. 이러한 신학적 전제는 상담심리학에서 강조하는 ‘애착’과 ‘정서적 연결’의 중요성과 맞닿아 있다. 즉, 가정 내에서의 건강한 관계 회복은 단순한 심리적 만족을 넘어, 창조 본연의 형상을 회복해 나가는 영적 여정이라 할 수 있다.

둘째, 긍정적 기제와 대인관계 역량의 결합이다. 심리학적 차원에서 논의된 긍정정서와 대인관계 역량은 성경이 말하는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와 같은 성령의 열매들이 가정이라는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발현되는 실천적 기제가 된다. 선행연구(장세호, 2020)에서 입증된 바와 같이, 부모의 긍정정서와 강화된 관계 역량은 가족 구성원 간의 정서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통로가 되며, 이는 성경적 사랑이 구체적인 대화와 행동으로 치유의 능력을 발휘하게 함을 시사한다.

셋째, 고난을 넘어서는 회복탄력성의 구현이다. 기독교 상담에서의 가정

회복은 문제의 완전한 제거가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며 다시 일어서는 회복탄력성(Resilience)의 발현을 지향한다. 이는 심리학적 복원력에 영성적 소망이 결합된 상태로, 본 연구가 도출할 10대 핵심 주제들은 이러한 신학적 소망과 심리학적 역동이 어떻게 기독교 가정을 지탱하는 실제적인 힘으로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신학적 인간론이라는 ‘뿌리’ 위에 상담심리학적 관계 원리라는 ‘줄기’를 세우고, 전문가의 10년 성찰 기록과 25년 임상 사례라는 ‘열매’를 통해 기독교 가정 회복의 통합적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통합적 접근은 기독교 가정이 직면한 정서적 단절을 치유하고, 건강한 신앙 공동체로서의 본질을 회복하는 데 학술적·실천적 토대를 제공할 것이다.

2.5.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의 차별성

본 절에서는 기독교 가정 회복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본 연구가 기존 연구들과 어떠한 학술적·실천적 차별성을 갖는지를 규명한다. 이를 위해 먼저 기존 학술 연구들의 방법론적 한계를 분석하고(2.5.1.), 이어서 현장에서 운영되고 있는 주요 기독교 가정 사역 프로그램들과의 비교를 통해 본 연구 모델의 독창성을 확인한다(2.5.2.).

2.5.1 선행연구의 비판적 검토 및 연구의 차별성

기독교 가정 회복과 부모 코칭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가족체계이론을 바탕으로 한 상담학적 접근과 긍정심리학에 기반한 코칭학적 접근으로 양분되어 발전해 왔다.

첫째, 실증적 근거의 축적과 방법론적 한계이다. 장세호(2020)는 양적 연구를 통해 부모 코칭이 부모의 긍정정서와 대인관계 역량을 매개로 회복탄력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구조적 모델을 확립하였다. 이는 가정 회복의 핵심 기제를 과학적으로 입증했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가 매우 크다. 그러나 통계적 수치만으로는 실제 삶의 현장에서 회복의 향기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발현되는지 그 심층적인 서사(Narrative)를 포착하는 데 한계가 존재한다.

둘째, 데이터의 단발성과 종단적 관점의 부재이다. 기존의 다수 질적 연구들은 대개 8~12주 내외의 단기 프로그램 참여자나 소수의 인터뷰 대상자에 의존해 왔다. 이러한 연구는 특정 시점의 변화를 포착하는 데는 유용하나, 가정의 역동이 세월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 숙성되고 치유되는지를 보여주는 **종단적(Longitudinal) 관점**이 결여되어 있다.

셋째, 본 연구의 독창성 및 학술적 차별성이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차별성을 갖는다:

1. 데이터의 지속성과 방대함: 특정 실험 집단이 아닌, 전문가가 10년(2009~2019) 동안 연재한 79편의 성찰적 칼럼과 25년의 임상 기록을 주된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이는 한 전문가의 상담 철학이 현장과 상호작용하며 진화해 온 과정을 보여주는 유일무이한 데이터이다.

2. 양적 토대 위 질적 실체 규명: 장세호(2020)가 확립한 양적 지표들을 이론적 기저로 삼되, 이를 연구자의 임상 고백과 상담 사례(오광복, 2009-2019)라는 질적 데이터를 통해 '살아있는 모델'로 형상화하였다.

3. 통합적 실천 모델 제시: 단순한 현상 기술을 넘어, 기독교 영성과 상담심리학적 원리가 결합된 '기독교 가정 회복 통합 모델'을 도출함으로써 현장 적용성을 극대화하였다

2.5.2. 기존 기독교 가정 사역 프로그램과의 비교 및 차별성

현대 기독교 가정을 세우기 위해 국내외에서 시행되고 있는 주요 프로그램들은 각기 고유한 강점을 지니고 있으나, 분석 대상의 시계열적 범위와 학술적 통합성 측면에서 명확한 한계를 지닌다. 기존 프로그램과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향기나는 생명 나무 모델’의 비교 분석은 아래 [표 2-1]과 같다.

표 2-1

주요 기독교 가정 사역 프로그램과 본 연구 모델의 비교

구분	두란노 아버지학교/ 어머니학교	마더와이즈 (MotherWise)	본 연구: 향기나는 생명 나무 모델
주요 특징	정체성 회복 및 사명 중심의 대규모 집회식 교육	성경 공부 중심의 여성 소그룹 양육 프로그램	전문가 성찰 및 임 상 기반의 통합적 상담 모델
강점	단기간 내 강력한 회개와 정체성 변화 유도	성경적 여성상 정립 및 소그룹 내 정서적 지지 체계 구축	10년의 종단적 성찰 과 25년 임상의 학술적 통합
한계점	단기 이벤트성 교육 으로 인한 지속적 사후 관리 부재	전문적 상담심리학적 기제 및 정서적 역동 분석 부족	연구자의 주관적 통찰에 대한 객관적 검증 절차 필요
데이터 범위	4-5주 내외의 단기 커리큘럼	주제별 8-10주 과정	10년(2009-2019)의 종단적 기록
차별점	행동 변화 중심의 실 천 운동	영적 성숙 중심의 신앙 교육	심리(장세호, 2020) 와 신학의 유기적 통합 모델

출처: 연구자 작성.

2.5.3. 종합 및 제언: 위 프로그램들은 특정 기간의 ‘이벤트성 회복’에는 기여하나, 본 연구가 지향하는 **10년 이상의 종단적 데이터**에 근거한 상시적·전인적 회복 모델로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오광복의 ‘향기나는 생명 나무 모델’은 이러한 기존 사역의 영성적 가치를 계승하되, 25년의 상담 임상을 통해 검증된 ‘심리-신학적 통합’을 제공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회복을 담보하고자 한다.

2.6. 개념적 기틀: 기독교 가정 회복의 10대 범주와 생명 나무 모델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규명된 이론적 기제들과 연구자의 25년 임상 경험을 결합하여, 기독교 가정 회복을 설명하는 통합적인 개념적 기틀을 설정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분석틀은 연구자가 **2009년부터 10년간** 기록한 79편의 전문가 성찰 칼럼과 25년간의 상담 사례를 관통하는 핵심 가치들을 바탕으로 구성되었다.

1) 기독교 가정 회복의 10대 핵심 범주 설정

이론적 고찰을 통해 도출된 기독교 가정 회복의 경로는 10가지의 핵심 범주로 구체화된다. 이는 단순히 개별적인 상담 주제를 넘어, 가정이라는 유기체가 회복되는 전 과정을 포괄한다.

- **관계의 입문:** ‘향기나는 대화’와 ‘정서적 필요의 충족’을 통한 소통의 물꼬 트기
- **내면의 정비:** ‘건강한 경계 설정’, ‘용서와 치유’를 통한 심리적 분화와 상처의 처리
- **역할의 재정립:** ‘부모 됨의 소명’ 확인과 ‘세대 간 역기능 전수’의 차단

- **영성적 승화:** ‘고난의 신학적 재해석’과 ‘영적 공동체로서의 가정성’ 회복
- **지속적 성장:** ‘독서상담’과 ‘공동체적 나눔’을 통한 회복의 습관화

2) 통합 모델: 생명 나무(Tree of Life) 모델

위의 10가지 범주는 유기적인 역동을 가진 ‘생명 나무 모델’로 구조화된다. 이는 기독교 영성이라는 ‘뿌리’에서 에너지를 공급받아, 상담심리학적 관계 원리라는 ‘기둥’을 세우고, 최종적으로 전인적 성장과 사명 전수라는 ‘가지와 열매’를 맺는 일련의 과정을 시각화한 것이다.

3) 선행연구와의 정합성 및 확장

특히 본 모델은 선행연구(장세호, 2020)에서 실증적으로 입증된 [긍정정서 → 대인관계 역량 → 회복탄력성]의 경로를 이론적 기저로 삼는다. 긍정정서와 관계 역량이 영성적 원리와 결합될 때, 가정이 외부의 시련에도 굴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회복탄력성(Resilience)이 극대화된다는 논리적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개념적 기틀을 바탕으로, 방대한 질적 데이터를 분석하여 수치화된 이론이 실제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구체적인 회복의 향기로 발현되는지를 입증하고자 한다.

3. 연구 방법

3.1. 자료 수집 및 표집 절차

3.1.1. 주 분석 자료: 전문가 연재 칼럼(Primary Data)

주 분석 자료의 전집 표집(Total Population Sampling): 전문가 칼럼

본 연구는 연구자가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약 10년간 「크리스천 저널」에 연재한 전문가 칼럼 총 79편(오광복, 2009-2019)을 주 분석 자료로 삼았다. 질적 연구에서 전문가의 성찰 기록은 현상의 본질을 꿰뚫는 ‘실천적 지혜(Phronesis)’를 담고 있으며,⁵⁰ 본 연구는 특정 시점의 발췌가 아닌 해당 기간 연재된 칼럼 전수(Total Population)를 분석 대상으로 삼아 자료의 종단적 대표성을 확보하였다.⁵¹

표 3-1

분석 대상 전문가 칼럼의 장별 주제 분류 개요 (2009-2019, 총 79편)

장	칼럼 번호	연재 시리즈명	편수	핵심 주제 분류
I	1-4	건강한 대화 방법과 성숙한 분노처리 방법	4편	T1: 향기나는 대화, T4: 분노 치유와 용서
II	5-9	자녀의 정서적 필요와 아내와 남편의 필요 우선순위	5편	T2: 정서적 필요 충족
III	10- 14	가정의 목적	5편	T7: 부모 됨의 소명, T8: 영적 공동체
IV	15- 18	역기능 가정 vs 순기능 가정	4편	T3: 건강한 경계 설정, T5: 세대 간 전수 끊기
V	19-	상처 입은 결혼생활의 치유와	7편	T2: 정서적 필요,

⁵⁰ 전문가가 현장에서의 실천 과정을 끊임없이 성찰함으로써 형성하는 ‘실천적 지혜(Phronesis)’는 질적 연구에서 이론과 실재를 잇는 고유한 학술적 자산으로 평가받는다.

⁵¹ 특정 시기에 국한되지 않고 10년이라는 한 세대(Decade)의 기록 전체를 분석하는 전집 표집은 자료의 포화도(Data Saturation)를 높여 연구 결과의 보편적 타당성을 확보하게 한다.

	25	리모델링		T4: 용서와 치유
VI	26-37	사랑과 행복과 거룩의 관계 방정식	12편	T1: 향기나는 대화, T2: 정서적 필요
VII	38-46	건강한 가정을 위한 부모 역할 과 책임	9편	T7: 부모 됨의 소명, T5: 세대 간 전수 끊기
VIII	47-53	남자의 향기	7편	T7: 부모 됨의 소명, T8: 영적 공동체
IX	54-63	여자의 향기	10편	T7: 부모 됨의 소명, T8: 영적 공동체
X	64-74	향기나는 가정	11편	T2: 정서적 필요, T8: 영적 공동체, T10: 사명과 전수
XI	75-79	가족성장을 위한 독서치유 소그 룹	5편	T9: 독서상담을 통한 성장
합 계	1-79	10개 장	79편	

주 1. 핵심 주제 분류 코드(T1-T10)는 제4장의 10대 핵심 주제에 대응하며, 하나의 장이 복수 주제에 걸치는 경우 주된 주제 순서로 표기함.

주 2. 각 칼럼의 개별 제목, 게재 연월, 세부 내용은 부록 A를 참조할 것.

출처: 오광복. (2009-2019). 향기나는 부부, 향기나는 가정 [연재 칼럼 묶음집]. 크리스찬저널. 연구자 작성.

3.1.2. 보조 분석 자료의 유의표집(Purposive Sampling): 상담 사례 기록

연구자가 지난 25년간 상담 현장에서 기록한 방대한 사례 중, 칼럼에 나타난 이론적 기제들을 실증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사례들을 **유의표집(Purposive Sampling)**하였다.⁵² 사례 선정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⁵² Patton, M. Q. (2015). *Qualitative Research & Evaluation Methods*. SAGE. 패튼은 질적 연구

다음과 같은 엄격한 선정 기준(Inclusion Criteria)을 적용하였다.⁵³

- 1) **주제적 적합성**: ‘기독교 가정 회복’이라는 본 연구의 핵심 목적에 부합하는 부부 갈등, 부모-자녀 간 정서적 단절, 가족 내 소진 문제를 주 호소 문제로 다룬 사례여야 한다.
- 2) **영성적 자원의 활용성**: 상담 과정에서 성경적 원리, 기도, 용서, 가정 예배 등 기독교적 영성 자원이 변화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여 ‘심리-신학적 통합’의 양상이 뚜렷이 나타난 사례여야 한다.
- 3) **자료의 충실성(Thick Description)**: 상담 초기 단계부터 종결, 그리고 사후 관리까지의 전 과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어, 변화의 역동을 추적할 수 있는 ‘두터운 기술’이 가능한 사례여야 한다.
- 4) **윤리적 적절성**: 내담자의 개인정보가 완전히 비식별화(De-identification)될 수 있으며, 연구 활용에 있어 윤리적 문제가 없는 사례로 제한하였다

3.1.3. 분석 자료의 학술적 가치 및 타당성

본 연구에서 분석한 자료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에서 학술적 타당성과 독창성을 확보하고 있다.

첫째, 성찰적 실천 연구(Reflective Practice Research)의 전형성을 띤다. 연구자가 상담 전문가이자 목회자로서 임상 현장에서 직접 체득한

에서 연구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정보 부유적 사례(Information-rich cases)를 선정하는 유의표집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⁵³ Creswell, J. W., & Poth, C. N. (2018).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SAGE. 데이터의 질적 깊이를 확보하기 위한 선정 기준 설정의 방법론적 근거로 활용하였다.

통찰을 지속적으로 기록하고 정제한 결과물(오광복, 2009-2019)이기에, 이론적 사변에 머물지 않고 실천적 지혜(Phronesis)가 담긴 고유한 데이터로서의 희소성을 갖는다.

둘째, 성경적 원리와 상담학적 실재의 통합적 깊이이다. 본 자료들은 성경적 인간관이라는 신학적 전제와 현대 상담심리학의 관계 이론이 실제 가정의 갈등 해결 과정에서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융합되는지를 보여주는 ‘통합적 성찰의 산물’이다.

셋째, 자료의 포화도(Data Saturation)에 기반한 보편성이다. 10년이라는 긴 시간적 궤적 속에서 반복적으로 도출된 핵심 주제들은, 특정 사례에 국한된 특수성을 넘어 기독교 가정 회복을 위한 보편적이고 본질적인 가치임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양적·질적 깊이를 담보하고 있다.

3.2. 연구 방법론의 선정 및 타당성

3.2.1. 주제 분석법(Thematic Analysis)의 학술적 토대

본 연구는 연구자가 10년간 집필한 성찰적 칼럼과 25년간의 상담 임상 기록이라는 방대한 질적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브라운과 클라크(Braun & Clarke)의 주제 분석법(Thematic Analysis)을 채택하였다.⁵⁴

주제 분석법은 데이터 내에 존재하는 반복적인 패턴이나 주제를 식별하고 분석하여 보고하는 방법론으로, 특정 이론에 얽매이지 않는 유연성(Flexibility)을 가지면서도 데이터의 복잡성을 체계적으로 구조화하는

⁵⁴ Braun, V., & Clarke, V. (2006). *Using thematic analysis in psychology*. *Qualitative Research in Psychology*, 3(2), 77-101. 본 연구 방법론의 기초가 된 세미나적 문헌이다.

데 탁월한 강점을 지닌다.⁵⁵

3.2.2. 타 질적 방법론과의 비교를 통한 주제 분석법의 채택 당위성

본 연구자는 연구 목적의 부합성을 검토하기 위해 타 질적 연구 방법론과의 차별성을 다음과 같이 고찰하였다.

첫째, **현상학(Phenomenology)**은 연구 대상자의 '생생한 생활 세계의 경험(Lived Experience)' 그 자체를 기술하는 데 주력한다.⁵⁶ 그러나 본 연구는 연구자 개인의 경험 기술을 넘어, 10년 간의 연구와 25년 간의 임상교육이라는 긴 세월 동안 축적된 텍스트에서 '기독교 가정 회복'이라는 보편적인 모델을 추출하는 새로운 이론을 생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비교 분석을 수행한다.⁵⁷ 하지만 본 연구는 보편적인 모델을 추출하는 것이 목적이기에, 개별적 경험의 본질을 묻는 현상학보다 데이터의 주제를 범주화하는 주제 분석이 더 적합하다.

둘째, **근거 이론(Grounded Theory)**: 현상에 대한 연구는 이미 선행연구에서 규명된 심리학적 기제(긍정정서, 대인관계 역량 등)를 이론적 기저로 삼고 있으며, 전문가의 성찰적 기록을 실천적 모델로 승화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강하므로 이론의 완전한 생성보다는 주제의 체계적 도출에 최적화된 주제 분석을 선정하였다.

⁵⁵ Clarke, V., & Braun, V. (2021). *Thematic Analysis: A Practical Guide*. SAGE. 최신 가이드를 통해 분석의 유연성과 엄밀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구체적 지침을 참조하였다.

⁵⁶ Creswell, J. W., & Poth, C. N. (2018).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SAGE. 현상학과 주제분석의 방법론적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인용하였다.

⁵⁷ Strauss, A., & Corbin, J. (1998).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Techniques and Procedures for Developing Grounded Theory*. SAGE. 근거이론의 방법론적 특성을 확인하는 근거 문헌이다.

3.2.3. 브라운과 클라크의 주제 분석 6단계 수행 절차

본 연구는 질적 연구의 엄밀성을 확보하기 위해 브라운과 클라크가 제시한 주제 분석의 6단계 과정을 엄격히 준수하였다.⁵⁸

1) **데이터에 대한 친숙해지기(Familiarizing oneself with the data)**: 2009년부터 2019년까지의 칼럼 79편과 25년의 상담 기록을 수차례 정독하며 데이터의 전체적인 맥락과 핵심 아이디어를 메모하였다.

2) **초기 코드 생성(Generating initial codes)**: 분석 대상 텍스트에서 연구 문제와 관련된 의미 단위(Meaning Units)를 추출하여 초기 코드를 부여하였다. 예를 들어, 역기능 가정의 대물림에 관한 기술에서는 '세대 간 전수'라는 코드를 도출하였다.

3) **주제(Theme) 탐색(Searching for themes)**: 생성된 코드들을 유사성에 따라 분류하고 결합하여 잠재적 주제를 형성하였다. 이 과정에서 '관계 역량', '영성적 토대' 등의 상위 범주를 탐색하였다.

4) **주제 검토(Reviewing themes)**: 도출된 주제들이 79편의 칼럼 전체를 충분히 대변하는지, 각 주제 간의 경계가 명확한지 재검토하여 중복되거나 학술적 변별력이 낮은 주제를 정교화하였다.

5) **주제 정의 및 명명(Defining and naming themes)**: 최종 선정된 주제에 명확한 학술적 정의를 내리고 '향기나는 대화' 등 10개의 핵심 주제를 확정하였다.

6) **분석 결과 기술(Producing the report)**: 확정된 주제들을 논리적 순서에 따라 배치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실제 칼럼 인용구와 상담 사례를 결합하여 분석 결과를 정리하였다.

⁵⁸ 유기웅 외 (2021). 『질적 연구방법론』. 서울: 박영사. 국내 질적 연구의 권위 있는 개론서를 통해 주제 분석의 절차를 재검증하였다.

3.3. 연구의 진실성 확보

본 연구는 자료 분석 과정에서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Lincoln과 Guba(1985)가 제시한 진실성(Trustworthiness) 기준인 신빙성, 적용 가능성, 의존성, 확실성을 다음과 같이 확보하였다.

신빙성(Credibility): 본 연구에서는 주제 분석의 객관적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다음 두 단계의 절차를 적용하였다. 1단계로, 연구자가 1차 도출한 주제와 코딩 경과 전체를 기독교 상담분야 박사학위소지 전문가 2인(A: 상담심리학 전공, 경력 15년; B: 기독교교육학 전공, 경력 12년)에게 독립적으로 제공하였다. 각 검토자는 코드-텍스트 간 정합성, 주제 경계의 명확성, 기독교 상담 맥락의 적절성을 평가하였다. 2단계로, 연구자는 두 검토자의 의견을 대조하여 의견 불일치가 발생한 주제(총 3개 하위 코드)에 대해 검토자들과 합의 토론을 거쳐 최종주제를 확정하였다. 이러한 다중 검토 절차는 연구자의 주관적 편향을 최소화하는 핵심 장치로 기능하였다.

1)적용 가능성(Transferability): 연구 결과가 외부 현실이나 다른 맥락에서도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를 나타낸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10년간의 칼럼 연재 배경과 상담 사례의 맥락을 상세히 서술하는 자세한 기술(Thick Description) 방식을 활용하여 전이 가능성을 높였다.

2)의존성(Dependability): 연구가 반복 가능할 정도의 신뢰로운 절차로 수행되었는지를 의미한다. 연구자는 자료 수집 및 분석의 반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 절차를 세세히 기술하였으며, 분석 과정에서 발생한 성찰을 기록으로 남겨 결과를 도출하는 데 활용하였다.

3)확실성(Confirmability): 연구자의 편견이나 선입견으로 인해 분석에 왜곡이 생기지 않았는지를 확인하는 객관성에 해당한다. 연구자는 전문가 검토를 거침으로써 확실성을 확보하였으며, 분석 과정에서의 주관적

성찰을 별도의 성찰 일지로 기록하여 최종 결과가 데이터에 기반하고 있음을 입증하였다.

3.4.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질적 연구 수행 시 요구되는 윤리적 가이드라인을 엄격히 준수하였다.

개인정보 보호 및 비식별화: 보조 데이터인 25년간의 상담 사례 기록물은 내담자의 신원을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가명 처리하거나 삭제하는 비식별화(De-identification) 과정을 거쳐 사생활을 보호하였다.

텍스트 활용의 윤리: 주요 데이터인 연재 칼럼은 이미 공표된 저작물이므로, 연구 목적으로 재구성함에 있어 원작자와 출처(『크리스천 저널』)를 명확히 밝혀 학문적 정직성을 지켰다.

연구자의 성찰성: 연구자가 본인의 기록물을 분석한다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연구자의 가치관이 데이터 해석을 왜곡하지 않도록 분석 단계마다 지속적인 자기 비판적 성찰을 수행하고 이를 연구 태도 및 생각으로 정리하였다.

4. 연구 결과: 기독교 가정 회복의 핵심 주제 분석

본 장에서는 연구자가 2009년부터 10년간연재한 79편의 칼럼과 25년간의 상담 임상교육 및 기록을 주제 분석(Thematic Analysis)한 결과를 기술한다. 분석 결과 도출된 10가지 주제는 관계의 토대를 닦는 ‘기초 단계’, 내면의 상처를 다루는 ‘심화 단계’, 그리고 가정의 사명을 확립하는 ‘완성 단계’로 유기적으로 연결된다.

[1단계: 관계의 기초 - 소통과 필요의 자각]

가정 회복의 출발은 정서적 단절을 해소하고 관계의 통로를 여는 대화의 복원에서 시작된다.

4.1. 향기나는 대화: 부드러운 대답과 언어의 온도

본 연구의 첫 번째 핵심 주제는 ‘향기나는 대화’이다. 이는 정서적 단절을 겪는 가정이 회복으로 나아가는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강력한 마중물 역할을 한다.

1) 전문가 칼럼 텍스트 분석 (Primary Data)

연구자가 지난 10년간 집필한 칼럼에서 ‘대화’는 단순한 기술(Skill)이 아닌 영성적 태도로 묘사된다.

- 인용 1: “부부 사이의 대화는 칼날이 될 수도 있고, 향기로운 꽃바람이 될 수도 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의 온도를 1도만 낮추어도 가정의

기류가 바뀐다.”(오광복, 2009-2019, 칼럼 23 「언어의 온도」)⁵⁹

- 인용 2: “말은 마음의 알맹이다. 속이 끓어 있으면 말에도 고름이 섞여 나오고, 속이 향기로우면 그 말 끝에도 향취가 묻어난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지만 가시 돋친 말은 관계를 도륙한다.”(오광복, 2009-2019, 칼럼 31 「언어의 향기」)⁶⁰

- 인용 3: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듣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를 예배하는 행위와 같다. 대화의 실패는 기술의 부족이 아니라, 상대를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의 부재에서 기인한다.”(오광복, 2009-2019, 칼럼 31 「경청의 미학」)

[연구자의 심층 분석]

위의 텍스트들은 대화의 본질이 언어적 기교가 아닌 내면의 영성적 상태에 있음을 시사한다. 연구자는 '언어의 온도'라는 비유를 통해 가정 내의 정서적 기류를 조절하는 주체가 곧 대화의 당사자임을 강조한다.

특히 비난의 '칼날' 대신 '꽃바람'과 같은 공감을 선택하는 의도적 노력이 회복의 시작점임을 보여준다.

2) 상담 임상 사례 분석 (Secondary Data)

칼럼에 나타난 대화의 원리가 실제 상담 현장에서 어떻게 회복의 역동을 일으키는지 유의표집된 사례를 통해 확인하였다.

- 사례 A (부부 갈등): 결혼 10년 차인 A씨 부부는 일상적인 대화가 항상 비난과 방어로 끝나는 전형적인 소진 상태였다. 상담 과정에서 '언어

⁵⁹ 칼럼 '언어의 온도'는 2009년 연재 초기에 집필된 것으로, 가정 내 언어적 습관이 관계의 기초를 결정함을 강조하는 본 연구의 핵심 텍스트이다.

⁶⁰ 성경 잠언 15장 1절("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의 원리를 상담학적 '공감적 경청'과 결합하여 해석한 대목이다.

의 온도 낮추기' 과제를 수행한 결과, 남편이 아내의 말에 “당신이 그렇게 느꼈구나”라는 유순한 응답을 하기 시작하면서 십여 년간 고착된 정서적 벽이 허물어지는 경험을 하였다.⁶¹

- 사례 B (부모-자녀 단절): 사춘기 자녀와 대화가 단절된 B씨는 ‘경청의 예배’ 원리를 적용하였다. 자녀의 성적이나 태도를 지적하기보다 아이의 감정적 호소에 귀를 기울이며 “그랬구나, 힘들었겠네”라는 긍정적 지지를 보냈을 때, 자녀의 폐쇄적 태도가 완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론적 연결]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장세호, 2020)에서 입증된 **대인관계 역량**이 실제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질적으로 발현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건강한 언어 습관은 구성원 간의 **긍정정서**를 유발하는 마중물이 되며, 이는 가정 전체의 회복탄력성을 지탱하는 기초 자산이 된다.

4.2. 부부의 정서적 필요: 상호 충족을 통한 관계의 심화

부부 관계는 가정 시스템의 중추적 하위체계로서, 구성원 간의 정서적 안녕을 결정짓는 핵심 변인이다. 본 연구는 전문가 성찰 기록과 상담 사례를 통해 부부가 서로의 정서적 갈망을 자각하고 이를 상호 충족시키는 과정이 회복의 결정적 경로임을 확인하였다.

1) 전문가 칼럼 텍스트 분석 (Primary Data)

연구자는 10년의 칼럼 연재를 통해 부부의 정서적 필요를 '관계의 생존

⁶¹ Gottman(2011)이 제시한 '비난(Criticism)'과 '방어(Defensiveness)'의 고리를 끊기 위한 실천적 방안으로서, 연구자의 '향기나는 대화' 원리는 기독교 상담 현장에서 강력한 중재 효과를 보였다.

을 위한 필수 영양분'으로 규정하였다.

- 인용 1: “남편은 아내의 ‘이해받고 싶어 하는 욕구’를, 아내는 남편의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구’를 채워줄 때 비로소 정서적 단절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다.” (오광복, 2009-2019, 상담 기록 「정서적 탯줄」)⁶²

- 인용 2: “결혼이란 원가족과의 정서적 탯줄을 건강하게 끊고, 배우자와의 새로운 정서적 결합을 이루는 과정이다. 이 결합이 부실할 때 부부는 한 지붕 아래 살면서도 광야를 걷는 듯한 고립감을 경험하게 된다.” (오광복, 2009-2019, 칼럼 9 「정서적 독립과 연합」)⁶³

- 인용 3: “배우자의 빈자리는 물리적 부재보다 정서적 부재에서 더 크게 느껴진다. 상대가 곁에 있음에도 외롭다면, 그것은 서로의 정서적 통장이 고갈되었다는 신호이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상대의 필요를 채워주기로 결정하는 의지적 결단이다.” (오광복, 2009-2019, 칼럼 9 「배우자의 빈자리」)

[연구자의 심층 분석]

위의 텍스트들은 부부 갈등의 본질이 단순한 성격 차이나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 서로의 '일차적 정서 필요'에 대한 무지와 외면에서 기인함을 시사한다. 연구자는 남성과 여성이 가진 보편적인 정서적 갈망(이해와 인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상담 현장에서 부부가 서로를 향한 비난을 멈추고 각자의 필요를 언어화하도록 돕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정서적 탯줄'이라는 비유는 원가족으로부터의 미분화가 부부관계의 연합을 방해하는 핵심 기제임을 강조한다.

⁶² 부부의 정서적 필요는 성별에 따른 고정된 역할 모델이 아니라, 개인이 성장 과정에서 결핍된 부분을 배우자를 통해 보상받으려는 심리적 역동을 포함한다.

⁶³ Bowen(1978)의 가족체계이론에 따르면, 부부가 원가족으로부터 성공적으로 분화(Differentiation)되지 못할 때 새로운 핵가족 시스템은 만성적인 불안과 갈등을 겪게 된다.

2) 상담 임상 사례 분석 (Secondary Data)

정서적 필요의 자각과 충족이 실제 부부 관계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25년의 임상 기록 중 대표적인 사례를 분석하였다.

- **사례 C (정서적 단절 부부):** 결혼 20년 차인 C씨 부부는 오랜 시간 대화가 단절되어 각방을 쓰는 상태였다. 상담 과정에서 남편은 가장으로서 '인정받지 못함'에 대한 상처를, 아내는 남편의 무관심 속에서 '보호받고 이해받지 못함'에 대한 결핍을 토로하였다. 연구자는 이들에게 하루 10분씩 서로의 필요를 구체적으로 요청하고 응답하는 '정서적 채우기' 훈련을 제안하였다. 결과적으로 이들은 서로를 경쟁 대상이 아닌 '돕는 배필'로 재인식하며 관계의 복원을 경험하였다.

- **사례 D (원가족 유착 부부):** 신혼 초기부터 시댁 문제로 갈등을 겪던 D씨 부부는 원가족과의 과도한 정서적 유착으로 인해 부부만의 경계 설정에 실패한 상태였다. 상담을 통해 남편이 어머니와의 정서적 탯줄을 끊고 아내를 일차적 보호 대상으로 삼기로 결단하였을 때, 부부 사이의 신뢰도가 급격히 상승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론적 연결]

부부의 정서적 필요 충족은 선행연구(장세호, 2020)에서 강조된 **긍정정서**를 유발하는 핵심 동력이다. 배우자가 자신의 필요를 채워준다는 확신은 관계적 만족도를 높이며, 이는 외부의 시련 앞에서도 가정을 지탱하는 **회복탄력성**을 극대화하는 촉매제가 된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가 도출한 '정서적 필요'의 범주는 심리학적 사회적 지지 체계를 넘어 성경적 연합의 원리가 실제 삶에서 구현되는 구체적인 장(Field)이라 할 수 있

다.⁶⁴

[2단계: 내면의 심화 - 치유와 경계의 확립]

관계의 기초 위에 선 가정이 직면해야 할 과업은 원가족으로부터의 독립과 과거 상처의 치유이다.

4.3. 건강한 경계 설정: 갈등 관리와 정서적 분화

가정 내 건강한 경계 설정은 구성원 개개인의 인격적 자율성을 보호하는 동시에 유기적인 연합을 가능하게 하는 필수적인 심리적 울타리이다. 본 연구는 전문가 성찰 기록 분석을 통해, 경계의 부재가 가정 내 만성적 갈등의 주된 원인이 되며 이를 바로잡는 것이 회복의 핵심 과업임을 도출하였다.

1) 전문가 칼럼 텍스트 분석 (Primary Data)

연구자는 10년의 기록을 통해 경계를 '거절의 벽'이 아닌 '사랑의 울타리'로 재정의하며, 특히 원가족으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을 강조하였다.

- 인용 1: “건강한 경계는 상대를 거부하는 벽이 아니라,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며 안전하게 사랑할 수 있게 돕는 울타리이다. 울타리가 분명할 때 우리는 비로소 상대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고 온전한 연합을 이룰 수 있다.”(오광복, 2009-2019, 칼럼 18 「심리적 울타리」)⁶⁵

⁶⁵ 칼럼 '심리적 울타리'는 가정 내 갈등이 대부분 서로의 독립된 인격적 영역을 침범하는 데서 비롯된다는 연구자의 통찰을 담고 있다.

-인용 2: “많은 부모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녀의 삶에 무단 침입한다. 그러나 진정한 부모의 사랑은 자녀가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질 수 있도록 한 걸음 물러나 경계를 지켜주는 것이다. 경계를 존중받지 못한 자녀는 자기 분화에 실패하고 만다.” (칼럼 ‘부모의 거리 두기’ 중)

-인용 3: “성경적 결혼의 원리인 ‘부모를 떠나’는 물리적 독립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정서적 탯줄을 끊고 배우자와 새로운 경계를 세우는 영적 결단이다. 이 경계가 무너질 때 원가족의 갈등은 고스란히 현재의 가정으로 전이된다.” (오광복, 2009-2019, 칼럼 18 「떠남과 연합」)

[연구자의 심층 분석]

위의 텍스트들은 가정 내 경계가 단순히 관계를 단절시키는 도구가 아니라, 오히려 건강한 밀착을 가능하게 하는 안전장치임을 시사한다. 연구자는 ‘울타리’라는 비유를 통해 개인의 고유한 자아(Self)가 보존될 때 비로소 타인과의 온전한 연합(Union)이 가능함을 역설하고 있다. 특히 부모-자녀 관계와 고부 갈등 등 한국적 맥락에서 빈번한 경계 침해 사례들을 성경적 ‘떠남’의 원리와 연결하여 실천적 해법을 제시한다.

2) 상담 임상 사례 분석 (Secondary Data)

경계 설정의 부재가 초래하는 역기능과 이를 바로잡는 과정을 25년의 임상 기록 중 유의 표집된 사례를 통해 분석하였다.

- 사례 E (고부 갈등과 경계): 시어머니의 과도한 간섭으로 이혼 위기에 처한 결혼 5년 차 부부의 사례이다. 남편은 원가족과의 정서적 융합(Fusion) 상태로 인해 아내와의 독립된 경계를 지키지 못했다. 상담을 통해 남편이 아내를 일차적 연합의 대상으로 삼고 부모와의 ‘건강한 거리’를 설정하는 훈련을 한 결과, 부부 사이의 정서적 안전감이 회복되었다.

- 사례 F (통제적 부모와 자녀): 자녀의 진로와 일상을 완벽하게 통제하려는 부모로 인해 심각한 우울감을 겪던 대학생 자녀의 사례이다. 부모에게는 ‘자녀는 소유물이 아님’을 인지시키고, 자녀에게는 심리적 경계를 주장하는 기술을 교육하였다. 부모가 통제를 내려놓고 자녀의 경계를 인정하기 시작하면서 자녀의 자기 효능감이 상승하는 변화가 나타났다.

[이론적 연결]

건강한 경계 설정은 가족체계이론의 핵심인 자아 분화(Differentiation of Self)를 실현하는 구체적인 행동 지침이다.⁶⁶ 이는 선행연구(장세호, 2020)에서 입증된 대인관계 역량중 하나인 ‘자기 주장 및 거절 능력’과 밀접하게 연계되며, 구성원 간의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줄여 가정 전체의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필수 선행 조건이 된다.

4.4. 분노의 치유와 용서: 쓴 뿌리 제거를 통한 회복

가정 내 갈등이 고착화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는 해결되지 않은 분노와 그로 인해 형성된 내면의 ‘쓴 뿌리’이다. 본 연구는 전문가 성찰 기록을 통해, 기독교적 용서가 단순한 감정적 해소를 넘어 의지적 결단과 영성적 원리가 결합된 전인적 치유 과정임을 도출하였다.

1) 전문가 칼럼 텍스트 분석 (Primary Data)

연구자는 10년의 기록을 통해 용서를 ‘가해자를 위한 면죄부’가 아닌

⁶⁶ Minuchin(1974)은 가정이 건강하게 기능하기 위해서는 하위체계 간의 경계(Boundary)가 명료(Clear)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만약 경계가 혼탁(Diffuse)하면 과잉 밀착된 관계가 형성되어 개인의 성장을 저해하게 된다

‘피해자 자신의 영적 자유’를 위한 필수적 행위로 정의하였다.

-인용 1: “기독교적 용서는 내게 상처 준 사람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을 의지하여 내 마음의 ‘쓴 뿌리’를 뽑아내고 진정한 자유를 얻는 영적 행위이다.”(오광복, 2009-2019, 상담 기록 「용서의 능력」)⁶⁷

-인용 2: “분노는 뜨거운 숯덩이를 손에 쥐고 남에게 던지려 하는 것과 같다. 결국 먼저 타버리는 것은 자신의 손이다. 용서는 그 숯덩이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공의에 맡기는 믿음의 반응이다.” (오광복, 2009-2019, 칼럼 34 「분노라는 독」)

-인용 3: “용서는 잊는 것이 아니라 기억의 독성을 제거하는 것이다. 상처의 기억이 더 이상 현재의 관계를 파괴하지 못하도록 십자가 앞에서 그 날카로운 이빨을 뽑아내는 작업이 바로 치유의 시작이다.” (칼럼 ‘기억의 치유’ 중)

[연구자의 심층 분석]

위의 텍스트들은 분노의 파괴성과 용서의 역설적 유익을 명확히 제시한다. 연구자는 ‘쓴 뿌리’라는 성경적 비유를 통해, 과거의 상처가 현재의 관계에 끊임없이 독성을 내뿜고 있음을 경고한다. 특히 용서를 감정의 자연스러운 변화에 맡기지 않고 ‘십자가의 사랑을 의지하는 영적 결단’으로 규정함으로써, 상담 현장에서 내담자들이 능동적으로 회복의 주체가 되도록 독려하고 있다.

⁶⁷ 기독교 상담에서 ‘쓴 뿌리(Bitter Roots)’는 히브리서 12장 15절의 말씀을 근거로 하며, 해결되지 않은 상처가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더럽히는 영적·심리적 독소로 작용함을 의미한다.

2) 상담 임상 사례 분석 (Secondary Data)

용서를 통한 내면의 치유가 가정 전체의 기류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25년의 임상 기록 중 대표적인 사례를 분석하였다.

-**사례 G (배우자에 대한 원망과 용서):**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10년 넘게 분노와 복수심 속에 살던 G씨의 사례이다. G씨는 겉으로는 가정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내면은 ‘쓴 뿌리’로 가득 차 자녀들에게도 냉소적인 태도를 보였다. 상담을 통해 G씨가 자신의 상처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토로하고, 상대를 위해서가 아닌 자신의 영적 생존을 위해 용서를 선택하였을 때, 비로소 가슴 속의 응어리가 풀리는 카타르시스를 경험하였다.

-**사례 H (부모에 대한 분노 치유):**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받은 학대의 기억으로 인해 자신의 자녀에게도 폭언을 일삼던 H씨의 사례이다. 상담 과정에서 H씨는 부모를 ‘가해자’로만 보던 시각에서 ‘상처받은 한 인간’으로 바라보는 영적 직면을 시도하였다. 부모를 용서하고 내면의 분노를 치유했을 때, H씨의 언어 온도가 낮아지며 자녀와의 관계도 회복되는 선순환이 나타났다.

[이론적 연결]

분노의 치유와 용서는 선행연구(장세호, 2020)에서 입증된 **긍정정서**를 회복시키는 가장 강력한 심리적 기제이다.⁶⁸ 내면의 부정적 에너지가 제거될 때 비로소 감사와 기쁨의 정서가 유입될 공간이 마련되며, 이는 가정 공동체의 **회복탄력성**을 비약적으로 강화하는 동력이 된다. 결과적으로 용서는 과거의 사슬을 끊고 미래 지향적인 가정의 질서를 세우는 영성적 상담의 정수라 할 수 있다.

⁶⁸ Enright & Fitzgibbons (2015)**는 용서가 분노와 우울을 감소시키고 자아존중감을 높이는 과학적 치유 효과가 있음을 입증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심리학적 결과가 기독교 영성과 결합될 때 더욱 강력한 회복을 가져올 것을 실증한다.

4.5. 세대 간 전수 끊기: 역기능 가정의 대물림 방지

가정 회복의 가장 치열한 과업 중 하나는 조부모와 부모 세대로부터 이어진 역기능적 상호작용 패턴을 자각하고 이를 자녀 세대에게 물려주지 않도록 차단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전문가 성찰 기록을 통해, 세대 간 전수가 단순한 습관의 반복을 넘어 무의식적인 정서적 유산임을 확인하고 이를 끊어내기 위한 구체적인 경로를 도출하였다.

1) 전문가 칼럼 텍스트 분석 (Primary Data)

연구자는 10년의 기록을 통해 역기능의 대물림을 '아픈 유산'으로 규정하며, 부모 자신의 치유가 자녀의 자유로 이어진다는 점을 반복하여 강조하였다.

-인용 1: “이 ‘아픈 대물림’을 멈추기 위해서는 먼저 내 안의 상처받은 내면 아이를 대면해야 한다. 내가 치유될 때, 내 자녀는 비로소 자유로운 영혼으로 자라날 수 있다.” (상담 기록 ‘가계도의 비밀’ 중)⁶⁹

-인용 2: “가계도는 단순한 가문 족보가 아니라 우리 집안에 흐르는 정서적 강줄기다. 그 물줄기에 독이 있다면, 내가 먼저 그 독을 걸러내는 필터가 되어야 한다. 부모의 무의식적 상처는 자녀의 삶에서 증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오광복, 2009-2019, 칼럼 38 「아픈 대물림 끊기」)

-인용 3: “우리는 부모를 닮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도, 어느새 부모가 내

⁶⁹ 내면 아이(Inner Child) 개념은 상담학에서 어린 시절의 미해결된 욕구나 상처받은 감정의 잔재를 의미하며, 이를 대면하고 위로하는 과정은 성인기 대인관계 회복의 핵심적인 치유 도구로 활용된다.

게 했던 그 비난의 언어와 통제적 태도를 자녀에게 투사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 이 고리를 끊는 것은 의지만으로는 부족하다.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나의 근원적인 애착 상처를 대면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오광복, 2009-2019, 칼럼 38 「가계의 치유」)

[연구자의 심층 분석]

위의 텍스트들은 세대 간 전수가 개인의 기질적 요인보다 원가족으로부터 학습된 정서적 역동에 의해 결정됨을 시사한다. 연구자는 ‘가계도’와 ‘내면 아이’라는 분석적 도구를 통해, 부모가 자신의 과거를 객관적으로 성찰하고 정서적으로 분화되는 과정이 자녀 양육의 본질적인 전제 조건임을 역설하고 있다. 특히 자녀를 ‘자유로운 영혼’으로 길러내기 위해서는 부모가 먼저 자신의 상처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한다는 ‘선(先)치유 후(後)양육’의 원칙을 제시한다.

2) 상담 임상 사례 분석 (Secondary Data)

역기능적 패턴을 인지하고 이를 차단하는 과정이 실제 가정의 회복에 미치는 영향을 25년의 임상 기록 중 유의표집된 사례를 통해 분석하였다.

-사례 I (분노의 대물림 차단): 자신의 부친으로부터 엄격한 훈육과 폭언을 경험했던 I씨는, 성인이 되어 자신의 자녀에게도 똑같은 방식의 분노를 표출하며 심한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다. 상담 과정에서 가계도를 통해 3대에 걸쳐 흐르는 ‘통제적 분노’의 흐름을 확인한 I씨는, 이것이 자신의 고유한 성격이 아닌 ‘전수된 상처’임을 깨달았다. 이후 내면 아이 치유를 통해 부친에 대한 원망을 용서로 승화시키며 자녀에게 부드러운 대화의 온도를 유지하는 극적인 변화를 보였다.

-사례 J (정서적 방임의 대물림 극복): 감정 표현이 억제된 차가운 가정 환경에서 자란 J씨는 배우자와 자녀와의 정서적 교감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상담을 통해 J씨는 가문 대대로 내려온 '정서적 무감각'의 전통을 인지하고, 의도적으로 긍정적인 감정을 표현하고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는 과제를 수행하였다. 이러한 노력이 지속되면서 가정 내에 새로운 '정서적 결속'이 형성되는 결과를 얻었다.

[이론적 연결]

세대 간 전수의 차단은 **보웬(Bowen)의 가족체계이론**에서 말하는 세대 간 전수 과정(Multigenerational Transmission Process)을 극복하고 **정서적 분화**를 이뤄내는 과정이다.⁷⁰ 이는 선행연구에서 규명된 **회복탄력성**의 강력한 발현으로, 과거의 역기능적 유산을 끊어내고 새로운 가문의 문화를 창출하는 강력한 복원력을 보여준다. 결과적으로 자신의 상처를 직면하는 성찰적 과정은 부모의 대인관계 역량을 강화하며, 자녀 세대에게 건강한 심리적 자산을 물려주는 사명적 행위로 승화된다.

4.6. 고난과 시련의 의미: 위기를 통한 가정의 성숙

가정은 역동적인 생명체로서 외부의 예기치 못한 시련과 고난을 필연적으로 마주하게 된다. 연구자는 10년간의 성찰 기록 분석을 통해, 고난이 단순한 파괴의 힘이 아니라 가정의 영적 성숙과 결속을 이끄는 '변화의 도구'로 재해석되는 과정을 규명하였다.

1) 연구자의 전문가 칼럼 텍스트 분석 (Primary Data)

연구자는 2009년부터 2019년까지의 기록에서 고난을 신학적으로 수용

⁷⁰ Bowen(1978)은 가족의 정서적 역동이 세대를 거쳐 반복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를 인지적으로 파악하고 정서적으로 독립하는 것을 분화(Differentiation)의 핵심으로 보았다.

하고 심리학적으로 승화시키는 과정을 심도 있게 다루었다.

-인용 1: “고난은 불청객처럼 찾아오지만, 그 고난을 함께 통과한 가족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단단함을 갖게 된다.⁷¹ 고난은 가정을 파괴하는 폭풍이 아니라 영적인 성숙으로 인도하는 통로가 된다.” (칼럼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지듯’ 중)

-인용 2: “시련의 한복판에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라는 원망이 아니라, ‘이 상황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라는 성찰적 물음이다. 질문의 방향이 바뀔 때 고난의 성격도 바뀐다.” (칼럼 ‘위기 속의 소망’ 중)

-인용 3: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별이 보이듯, 가정의 가장 아픈 상처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통로가 된다. 치유된 상처는 더 이상 아픔이 아니라 다른 이를 살리는 향기가 된다.” (칼럼 ‘치유된 상처의 신학’ 중)

[연구자의 심층 분석]

위의 텍스트들은 고난에 대한 적극적인 ‘의미 부여’와 ‘신학적 재해석’이 가정이 위기를 생존을 넘어 성숙으로 전환하는 결정적 열쇠임을 시사한다. 연구자는 고난을 회피의 대상이 아닌 ‘통과해야 할 관문’으로 정의함으로써, 위기 상황에서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를 탓하기보다 공동의 영적 사명을 발견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특히 고난을 통해 형성된 유대감은 평상시에는 경험할 수 없는 영적 결속력을 선물한다는 통찰을 제공한다.

2) 상담 임상 사례 분석 (Secondary Data)

고난의 의미 재해석이 실제 위기 가정을 어떻게 복원시키는지 25년의

⁷¹ 고난의 신학적 의미를 다룬 이 칼럼은 2014년 연재된 것으로, 위기 상황을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안에서 해석하려는 연구자의 상담 철학이 잘 드러나 있다.

임상 기록 중 대표적인 사례를 분석하였다.

-**사례 K (경제적 파산과 가족 결속):** 갑작스러운 사업 실패로 경제적 파산을 겪으며 해체 위기에 처했던 가계의 사례이다. 초기에는 배우자 간의 비난이 극에 달했으나, 연구자는 이 고난을 ‘물질 중심에서 신앙 중심의 가치관으로 전환하는 기회’로 재해석하도록 상담을 이끌었다. 고난의 의미가 바뀌자 가족들은 서로를 정서적으로 지지하기 시작했고, 이전보다 더 깊은 영적 친밀감을 회복하였다.

-**사례 L (자녀의 질병과 공동체적 성장):** 자녀의 희귀병 진단으로 절망에 빠졌던 부부의 사례이다. 이들은 고난을 ‘가족이 하나 되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는 광야 학교’로 받아들였다. 투병 과정에서 부모는 자녀의 성취보다 존재 자체를 소중히 여기는 코칭적 태도를 습득하였으며, 이 과정은 가정 전체의 영적 성숙으로 이어졌다.

[이론적 연결]: 고난의 신학적 재해석은 심리학적 개념인 **회복탄력성 (Resilience)**이 신앙적 차원에서 발현된 결과이다.⁷² 이는 위기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의미를 발견하고 희망의 자원을 탐색하는 ‘동적 과정’으로, 신앙적 고백이 심리적 복원력을 극대화하는 촉매제가 됨을 보여준다.⁷³ 특히 이러한 과정은 선행연구에서 강조된 긍정정서와 결합하여 고난을 성장의 자양분으로 삼는 ‘전인적 안녕’의 상태로 가정을 인도한다.

[3단계: 관계의 완성 - 사명과 공동체적 확장]

치유된 가정은 이제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는 사명 공동체

⁷² Frankl(1985)의 로고테라피(Logotherapy)에 따르면, 인간은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그 고통의 의미를 발견할 때 삶을 지탱할 힘을 얻는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의미 치료적 원리가 기독교 신앙과 결합될 때 나타나는 영성적 시너지를 실증한다.

⁷³ Walsh(2016)는 가족 회복탄력성의 핵심 요소 중 하나로 ‘역경에 대한 초월적 의미 부여’를 꼽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이러한 가족 치료 이론이 한국 기독교 가정의 임상 현장에서도 유효하게 작동함을 보여준다.

로 거듭난다.

4.7. 부모 됨의 소명: 자녀의 정서적 지지와 훈육

가정 회복의 성숙 단계에서 부모는 자녀를 자신의 욕망을 투사하는 대상이 아닌, 독립된 인격체로 대면하게 된다. 연구자는 10년간의 성찰 칼럼 분석을 통해, 부모가 자신의 역할을 ‘관리자’에서 ‘영적 코치’로 재정립할 때 자녀와의 정서적 연합이 비로소 가능해짐을 확인하였다.⁷⁴

1) 연구자의 전문가 칼럼 텍스트 분석 (Primary Data)

연구자는 2009년부터 2019년까지의 기록을 통해 부모의 권위가 지배가 아닌 ‘조건 없는 수용’과 ‘영적 지지’에서 발생함을 거듭 강조하였다.

-인용 1: “부모는 자녀의 인생이라는 차를 운전하는 운전사가 아니라, 자녀가 스스로 운전할 수 있도록 옆에서 지지해주는 코치가 되어야 한다. 자녀의 성취보다 존재 자체를 기뻐하는 부모의 곁에서 아이는 비로소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성장한다.” (상담 기록 ‘자녀는 소유물이 아니다’ 중)

-인용 2: “진정한 훈육은 매를 드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삶으로 향기를 내뿜는 것이다. 자녀는 부모의 입술이 아니라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⁷⁵ 부모가 하나님 앞에 먼저 단독자로 설 때, 그 거룩한 영향력이 자녀에게 자연스럽게 흘러간다.” (칼럼 ‘부모라는 이름의 소명’ 중)

-인용 3: “자녀의 실패를 대하는 부모의 태도가 그 아이의 회복탄력성을 결정한다. 비난 대신 ‘그럴 수도 있어, 다시 시작해보자’라는 지지의 언

⁷⁴ 연구자는 2010년부터 ‘부모 코칭’ 담론을 칼럼을 통해 적극적으로 소개해 왔으며, 이는 기독교 가정이 지향해야 할 새로운 권위의 모델로 평가받는다.

⁷⁵ ‘향기나는 가정’이라는 본 논문의 핵심 메타포는 부모의 언어보다 ‘삶의 향기(영향력)’가 자녀 교육의 본질임을 강조하는 연구자의 상담 철학을 반영한다.

어는 자녀의 영혼에 심어주는 가장 귀한 생명 양식이다.” (칼럼 ‘격려의 힘’ 중)

[연구자의 심층 분석]

위의 텍스트들은 부모의 역할을 ‘과업 중심’에서 ‘존재 중심’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 연구자는 자녀를 부모의 성취를 위한 도구로 삼는 현대 사회의 왜곡된 교육관을 경계하며, 성경적 원리에 기초한 ‘코칭 정체성’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부모 스스로가 영적 모델이 되어야 한다는 자성적 태도는, 양육이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 자신의 존재론적 변화에서 시작됨을 시사한다.

2) 상담 임상 사례 분석 (Secondary Data)

부모의 정체성 변화가 자녀와의 관계 회복에 미치는 실증적 역동을 25년의 임상 기록 중 유의표집된 사례를 통해 분석하였다.

-**사례 M (통제적 부모의 변화):** 자녀의 학업 성취에 집착하며 일거수일투족을 간섭하던 부모의 사례이다. 상담을 통해 부모는 자녀를 통제하려는 욕구가 자신의 내면적 불안에서 기인했음을 성찰하였다. 이후 자녀의 선택을 존중하고 감정을 지지해주는 ‘코칭형’ 부모로 변화하면서, 극도로 위축되었던 자녀의 자아존중감이 회복되고 대화가 재개되는 결과를 얻었다.

-**사례 N (정서적 방임과 지지의 회복):** 바쁜 일상을 핑계로 자녀의 정서적 필요를 외면했던 부모의 사례이다. 연구자는 부모에게 자녀의 감정에 공감하고 존재를 긍정해주는 ‘정서적 코칭’ 기법을 적용하도록 안내하였다. 부모가 존재 자체에 감사를 표현하기 시작하자, 자녀의 반항적 태도가 수용적으로 변화하며 정서적 결속력이 강화되었다.

[이론적 연결]

부모의 코칭 정체성 확립은 선행연구에서 강조된 부모 코칭의 핵심 원리가 실제 양육 현장에서 구현된 결과이다. 이는 부모의 **긍정정서**가 자녀에게 전달되어 자녀의 정서적 안녕을 도모하며, 부모-자녀 간의 **대인관계 역량**을 심화시킴으로써 가정 전체의 **회복탄력성**을 구축하는 결정적 기제가 된다.⁷⁶ 결과적으로 부모 됨의 소명을 자각하는 것은 가정을 영적 성장의 못자리로 만드는 사명적 행위이다.

4.8. 영적 공동체로서의 가정: 예배와 기도의 회복

기독교 가정의 회복은 심리적 기제의 변화를 넘어, 가정이 하나님을 대면하는 ‘작은 교회(Ecclesiola)’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할 때 완성된다. 연구자는 10년간의 성찰 기록을 통해 가정 예배와 기도가 단순한 종교적 형식이 아닌, 가정 시스템의 영적 향상성을 유지하는 근원적 에너지임을 확인하였다.

1) 연구자의 전문가 칼럼 텍스트 분석 (Primary Data)

연구자는 2009년부터 2019년까지의 기록에서 가정을 ‘거룩한 처소’로 변모시키는 영적 습관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역설하였다.

-인용 1: “가정 예배는 형식이 아니라 생명이다.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무는 그 짧은 시간은 가정에 흐르는 세속적인 가치관을 차단하고 영적인 산소를 공급하는 호흡과 같다.”⁷⁷ (칼럼 ‘가정 예배의 향

⁷⁶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규명된 부모 코칭의 효과성이 실제 임상 현장에서 ‘존재에 대한 긍정’과 ‘정서적 지지’라는 구체적인 서사를 통해 발현됨을 질적으로 입증하였다.

⁷⁷ 연구자는 칼럼을 통해 ‘예배의 일상화’를 강조하며, 이것이 상담 현장에서 제안되는 가장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회복의 첫 단추임을 명시하고 있다.

기' 중)

-인용 2: “부모의 기도는 자녀의 영혼을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영적 방어막이다. 문제가 생겼을 때 자녀를 다그치기보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부모의 뒷모습은 백 마디 말보다 더 깊은 울림으로 자녀의 내면에 새겨진다.” (칼럼 ‘기도하는 부모의 권위’ 중)

-인용 3: “가정은 세상의 풍랑으로부터 숨어드는 피난처가 되어야 한다. 거실이 예배의 처소가 되고 식탁이 은혜를 나누는 성찬의 자리가 될 때, 그 가정은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서게 된다.” (칼럼 ‘거룩한 처소로서의 가정’ 중)

[연구자의 심층 분석]

위의 텍스트들은 가정이 지닌 ‘제사장적 사명’에 주목한다. 연구자는 가정을 단순한 생활 공간이 아닌 영적 에너지가 생성되고 소통되는 공동체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부모의 기도를 ‘영적 방어막’으로 비유한 대목은, 부모의 영성이 자녀의 심리적 안전감을 지탱하는 실질적인 힘임을 시사한다. 이는 가정 내의 갈등 해결이 상담 기술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신앙 고백과 영적 질서의 재확립을 통해 근본적으로 이루어짐을 보여준다.

2) 상담 임상 사례 분석 (Secondary Data)

영적 공동체성의 회복이 실제 가정의 치유 역동에 미치는 영향을 25년의 임상 기록 중 유의표집된 사례를 통해 분석하였다.

-사례 O (예배를 통한 부부 관계의 복원): 오랜 시간 정서적 단절을 겪으며 이혼 직전까지 갔던 부부의 사례이다. 연구자는 이들에게 하루 5분이라도 서로의 손을 잡고 기도하는 ‘부부 기도 시간’을 권유하였다. 처음에는 어색함과 거부감이 컸으나, 하나님 앞에서 서로의 연약함을 고백하

고 배우자를 위해 중보하는 과정을 통해 완악했던 마음이 녹아내리며 인격적 화해가 일어나는 영적 전이를 경험하였다.

-사례 P (가정 예배와 자녀의 정서적 안정): 과잉 행동과 반항적 태도로 갈등을 빚던 자녀를 둔 가정의 사례이다. 부모는 비난을 멈추고 온 가족이 함께 짧은 말씀을 나누고 서로를 축복하는 가정 예배를 시작하였다. 정기적인 예배를 통해 가정 내에 ‘비난의 언어’ 대신 ‘축복의 언어’가 흐르기 시작하자, 자녀의 정서적 불안이 눈에 띄게 감소하며 안정적인 관계를 회복하였다.

[이론적 연결]

영적 공동체로서의 회복은 선행연구에서 강조된 **회복탄력성**의 영성적 토대를 형성한다.⁷⁸ 이는 구성원 개개인의 심리적 자원을 넘어 공동체 전체가 공유하는 ‘초월적 의미 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영적 자산은 선행연구(장세호, 2020)에서 확인된 **긍정정서**를 영속적인 감사와 평안의 정서로 승화시키며, 위기 상황에서도 가정이 해체되지 않게 붙드는 가장 강력한 결속력이 된다.

4.9. 독서상담을 통한 성장: 책 읽는 부모와 성찰적 가정

가정의 회복은 일시적인 감정의 치유를 넘어, 지속적인 자기 성찰과 배움이 일어나는 ‘학습 공동체’로 진화할 때 공고해진다. 연구자는 10년간의 성찰 기록 분석을 통해, 독서상담이 부모의 인지적 유연성을 높이고 가정 내 공감의 지평을 넓히는 핵심적인 성장의 도구임을 확인하였다.

⁷⁸ Walsh(2016)는 가족의 영성을 역경을 이겨내는 핵심적인 조직 자원 중 하나로 보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가족치료 이론이 ‘가정 예배’라는 기독교적 실천 양식과 결합될 때의 임상적 효과를 실증한다.

1) 연구자의 전문가 칼럼 텍스트 분석 (Primary Data)

연구자는 2009년부터 2019년까지의 기록에서 책 읽는 부모가 자녀에게 미치는 지적인 영향력보다 ‘정서적 모델링’으로서의 가치를 더 높게 평가하였다.

- 인용 1: “책을 읽는 부모는 자녀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자가 아니라, 삶을 대하는 성찰적 태도를 몸소 보여주는 자이다.⁷⁹ 부모가 책 속에서 자신의 아픔을 대면하고 성장을 선택할 때, 자녀는 그 뒷모습에서 인생을 향해하는 법을 배운다.” (칼럼 ‘책 읽는 부모가 세상을 바꾼다’ 중)

- 인용 2: “독서상담은 텍스트를 통해 나의 서사를 객관화하는 작업이다. 주인공의 고통에 공감하며 나의 상처를 위로받고, 주인공의 선택을 통해 나의 삶을 재구성하는 과정은 가정 내 소통의 질을 근본적으로 바꾼다.” (칼럼 ‘서사 나눔의 치유’ 중)

- 인용 3: “가족이 함께 같은 책을 읽고 마음을 나누는 것은 영적인 식탁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과 같다. 책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게 하는 훌륭한 중재자가 되며, 비난 대신 이해의 언어를 선택하게 돕는다.” (칼럼 ‘가족 독서의 향기’ 중)

[연구자의 심층 분석]

위의 텍스트들은 독서상담이 지닌 ‘자기 객관화’와 ‘공감 확대’의 기능에 주목한다. 연구자는 부모가 먼저 성찰하는 존재가 될 때 가정 내의 권위주의가 사라지고, 대신 ‘함께 성장하는 관계’가 형성됨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서사 나눔’이라는 표현은, 독서가 개인의 지적 활동에 머물지 않고

⁷⁹ 연구자는 2017년 집중적으로 독서상담의 가치를 칼럼으로 연재하였으며, 이는 ‘성찰적 실천가’로서의 연구자 자신의 학문적 정체성에도 맞닿아 있다.

가족 구성원 간의 정서적 교류를 촉진하는 매개체가 됨을 시사한다. 이는 부모의 성찰적 태도가 자녀의 정서적 지능을 높이는 결정적 요인임을 보여준다.

2) 상담 임상 사례 분석 (Secondary Data)

독서상담이 실제 가정의 변화와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25년의 임상 기록 중 유의표집된 사례를 통해 분석하였다.

-**사례 Q (독서를 통한 부모의 자기 성찰):** 자녀에 대한 과도한 불안과 통제로 갈등을 빚던 어머니의 사례이다. 연구자는 이 내담자에게 부모의 불안을 다룬 심리학 서적을 권유하고 상담을 병행하였다. 내담자는 책 속의 사례를 통해 자신의 불안이 원가족으로부터 기인했음을 성찰하였고, 독서를 통해 얻은 인지적 통찰을 바탕으로 자녀에게 '거리 두기'와 '지지하기'를 실천하는 성숙을 보였다.

-**사례 R (가족 독서 모임을 통한 소통 회복):** 사춘기 자녀와 대화가 단절되었던 가정의 사례이다. 연구자의 제안으로 짧은 동화나 수필을 함께 읽고 느낀 점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책이라는 '중립적 지대'를 통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를 향한 날 선 비난이 줄어들고 서로의 속마음을 안전하게 드러내는 소통의 물꼬가 트이는 결과를 얻었다.

[이론적 연결]

독서상담을 통한 성장은 선행연구(장세호, 2020)에서 강조된 **대인관계 역량**중 '공감 능력'과 '자기 조절 능력'을 강화하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다.⁸⁰ 이는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넘어, 긍정적인 서사를 내면화함으로써 가정의 **회복탄력성**을 지탱하는 인지적 자산이 된다. 결과적

⁸⁰ 장세호. (2020). 부모 코칭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성 검증: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의 긍정정서, 대인관계, 회복탄력성을 중심으로(pp. 26-28). [박사학위논문, 광신대학교 대학원 코칭심리학과].

으로 성찰적 독서는 부모의 영성을 깊게 하며, 가정을 건강한 가치관이 전수되는 교육적 못자리로 변모시킨다.

4.10. 사명과 전수: 향기나는 삶의 열매

가정 회복의 최종적인 지향점은 내부적 치유를 넘어, 그 회복의 향기가 이웃과 사회로 흘러가는 ‘사명적 삶’으로의 전환이다. 연구자는 10년간의 성찰 기록 분석을 통해, 치유된 가정이 어떻게 사역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건강한 가치관을 세대 간에 전수하는지 그 영적 선순환의 과정을 규명하였다.⁸¹

1) 연구자의 전문가 칼럼 텍스트 분석 (Primary Data)

연구자는 2009년부터 2019년까지의 연재 후반기 기록에서 가정을 ‘세상을 향한 치유의 통로’로 정의하며, 부모의 사명자적 정체성을 강조하였다.

-인용 1: “치유된 상처는 더 이상 부끄러운 과거가 아니라, 같은 아픔을 겪는 이들을 위로하는 ‘향기’가 된다. 우리 가정이 회복되는 이유는 단지 우리끼리 행복하기 위함이 아니라, 깨어진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치유 도구가 되기 위함이다.” (칼럼 ‘사명으로의 부르심’ 중)⁸²

-인용 2: “부모는 가정이라는 선교지에 파송된 선교사이다. 일상의 사소한 배려와 사랑의 언어가 자녀에게는 복음의 실체가 되며, 그 향기를 맡고 자란 자녀는 자연스럽게 사명자의 길을 걷게 된다.” (칼럼 ‘가정 선교

⁸¹ 연구자는 2018년과 2019년 연재 후반기에 '사명'과 '유산'의 테마를 집중적으로 다루었으며, 이는 10년 연구의 질적 포화를 이루는 최종적인 범주로 도출되었다.

⁸² Erikson(1963)의 발달 단계에 따르면, 성인기 중기의 핵심 과업은 '생식성(Generativity)'으로, 다음 세대를 세우고 사회에 기여하는 활동을 포함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이러한 심리학적 성숙이 기독교적 '사명'과 일치함을 보여준다.

사로서의 부모' 중)

-인용 3: “진정한 유산은 물질이 아니라 영적인 향기이다. 고난을 통과하며 정금같이 빚어진 부모의 신앙 인격은 그 무엇보다 강력한 전수력을 가지며, 이는 한 가문을 넘어 사회 전체를 정화하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한다.” (칼럼 ‘영적 유산의 전수’ 중)

[연구자의 심층 분석]

위의 텍스트들은 가정을 폐쇄적인 소유의 단위가 아닌 개방적인 사명의 단위로 재정의한다. 연구자의 분석에 따르면, ‘향기’는 가정 내부의 회복이 외부로 발산되는 영향력을 상징하며, 이는 부모가 단순한 양육자를 넘어 ‘영적 사역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질 때 극대화된다. 특히 치유된 상처가 타인을 위한 자산이 된다는 통찰은, 상담학적 치유가 사명적 헌신으로 승화되는 지점을 명확히 제시한다.

2) 상담 임상 사례 분석 (Secondary Data)

사명적 삶으로의 전환과 가치관의 전수가 실제 가정에 미치는 영향을 25년의 임상 기록 중 유의표집된 사례를 통해 분석하였다.

-사례 S (회복을 넘어 사역으로): 심각한 부부 갈등을 극복한 S씨 부부의 사례이다. 이들은 상담 종결 후 자신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교회 내 위기 가정 소그룹을 섬기기 시작했다. 자신들의 아픈 과거를 솔직히 나누며 다른 가정을 돕는 과정에서, 이들 가정의 결속력은 더욱 단단해졌으며 ‘회복의 향기’가 공동체 전체로 확산되는 결과를 얻었다.

-사례 T (사명적 가치관의 전수): 부모의 긍정적인 변화를 목격하며 성장한 자녀의 사례이다. 부모가 시련 속에서도 서로를 존중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지켜본 자녀는, 성인이 되어 사회 복지 및 상담 분야에 투신하며 부모가 보여준 ‘향기나는 삶’을 자신의 사명으로 계승하였다. 이는 부모의 영적 자산이 자녀 세대에 성공적으로 전수되었음을 입증한다.

[이론적 연결]

사명과 전수는 선행연구에서 확인된 **회복탄력성**의 사회적 확장 단계이다. 이는 개인과 가정 내부에 축적된 **긍정정서**와 **대인관계 역량**이 사명감을 통해 이타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과정이며, 가정이 고립되지 않고 사회적 지지망 내에서 역동적으로 기능하게 한다. 결국 ‘향기나는 가정’은 회복의 종착역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새로운 출발점이 된다.

5. 논의 및 결론

5.1. 연구 결과 요약 및 논의

본 연구는 연구자가 2009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집필한 79편의 전문가 성찰 칼럼과 25년간의 상담 임상 기록을 브라운과 클라크(Braun & Clarke, 2006)의 주제 분석법(Thematic Analysis)⁸³으로 분석하여, 기독교 가정 회복의 핵심 기제를 10가지 주제로 도출하였다. 도출된 10가지 주제는 '향기나는 대화(T1)', '정서적 필요 충족(T2)', '건강한 경계 설정(T3)', '분노 치유와 용서(T4)', '세대 간 전수 끊기(T5)', '고난의 신학적 재해석(T6)', '부모 됨의 소명(T7)', '영적 공동체 회복(T8)', '독서상담을 통한 성장(T9)', '사명과 전수(T10)'이며, 이는 '뿌리(영성)-기둥(관계)-가지와 열매(성장 및 사명)'의 유기적 구조를 가진 '생명 나무(Tree of Life) 모델'로 통합되었다.

분석 결과 도출된 10가지 주제는 선행연구인 장세호(2020)⁸⁴의 결과와 유기적으로 공명하면서도 다음과 같은 차별적 논의점을 제시한다.

첫째, 긍정정서와 회복탄력성의 상관관계에 대한 질적 심화이다.

장세호(2020)는 양적 연구를 통해 부모 코칭이 긍정정서를 매개로 회복탄력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구조적 경로를 실증적으로 확립하였다. 이는 기독교 가정 회복의 심리적 기제를 과학적으로 입증한 중요한 학술적 성과이다. 그러나 통계적 수치는 '무엇(What)'이 회복에 기여하는지를 밝혀줄 뿐, 실제 삶의 현장에서 회복이 '어떻게(How)' 일어나는지의 역동적 서사를 충분히 포착하기 어렵다는 방법론적 한계를 내포한

⁸³ Braun, V., & Clarke, V. (2006). Using thematic analysis in psychology. *Qualitative Research in Psychology*, 3(2), 77-101. <https://doi.org/10.1191/1478088706qp063oa>

⁸⁴ 장세호. (2020). 부모 코칭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성 검증: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의 긍정정서, 대인관계, 회복탄력성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광신대학교 대학원 코칭심리학과], pp. 73-109.

다.⁸⁵

본 연구의 4.6절 '고난의 신학적 재해석' 주제는 이 간극을 질적으로 채워준다. 분석된 칼럼 텍스트와 상담 임상 사례들은 긍정정서가 단순히 심리적 자원으로 기능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이라는 신학적 필터를 통과할 때 질적으로 전환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구체적으로 사례 K(경제적 파산 가정)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위기를 '물질 중심에서 신앙 중심의 가치관으로 전환하는 기회'로 재해석하는 순간, 가족 구성원들은 서로를 향한 비난을 멈추고 정서적 지지를 회복하는 역동적 변화를 경험하였다. 이는 Fredrickson(2001)⁸⁶의 확장-구축 이론(Broaden-and-Build Theory)이 제시하는 긍정정서의 인지적 확장 기능이 기독교적 고난 신학과 결합될 때 더욱 강화된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나아가 4.8절 '영적 공동체 회복' 주제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부부 기도와 가정 예배를 통해 형성된 초월적 의미 체계는 구성원 개인의 심리적 자원을 초과하는 공동체적 회복탄력성을 생성한다.⁸⁷ 이는 장세호(2020)가 실증한 긍정정서-회복탄력성의 경로가 영성적 자원과 결합될 때 그 효과가 개인 수준을 넘어 가정 공동체 전체로 확장된다는 질적 근거를 제공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장세호(2020)의 양적 연구가 밝힌 '사실'의 이면에서 작동하는 '과정'의 서사를 규명함으로써, 선행연구의 학술적 기여를 계승하면서도 그것이 도달하지 못한 질적 실체를 보완하

⁸⁵ Creswell, J. W., & Poth, C. N. (2018).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approaches(4th ed., pp. 45-52). SAGE Publications.

⁸⁶ Fredrickson, B. L. (2001). The role of positive emotions in positive psychology: The broaden-and-build theory of positive emotions. *American Psychologist*, 56(3), 218-226.
<https://doi.org/10.1037/0003-066X.56.3.218>

⁸⁷ Walsh, F. (2006). Strengthening family resilience (2nd ed., pp. 71-98). Guilford Press. 왈시(Walsh)는 공동체적 신앙 실천이 가족 결속력과 의미 체계 형성에 기여하는 핵심 자원임을 강조한다.

였다.

둘째, 대인관계 역량의 영성적 재해석과 학술적 지평 확장이다.

장세호(2020)는 부모 코칭을 통해 형성된 대인관계 역량이 가족 내 정서적 유대감을 강화하고 회복탄력성 구축에 기여하는 결정적 변인임을 입증하였다. 본 연구는 이 대인관계 역량의 실제적 내용이 무엇인지를 질적으로 규명함으로써 선행연구의 학술적 지평을 확장하였다.

구체적으로 4.1절 '향기나는 대화' 주제 분석은 건강한 대인관계 역량의 핵심이 단순한 의사소통 기술(Communication Skill)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 '유순한 대답'(잠 15:1)의 원리와 보웬(Bowen, 1978)⁸⁸의 '자아 분화(Differentiation of Self)' 개념이 통합된 영성적 소통 역량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사례 A(부부 갈등)에서 남편이 아내의 말에 "당신이 그렇게 느꼈구나"라는 유순한 응답을 선택하기 시작한 것은 단순한 화법의 변화가 아니라, 자아 분화 수준의 향상과 성경적 겸손의 실천이 동시에 일어난 복합적 변화였다. 이는 사티어(Satir, 1972)⁸⁹가 강조한 공감적 의사소통의 내적 동력이 기독교적 영성과 결합될 때 더욱 지속적이고 깊은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4.3절 '건강한 경계 설정' 주제는 대인관계 역량 중 자기 주장 및 거절 능력의 영성적 기반을 규명한다. 미누친(Minuchin, 1974)⁹⁰의 구조적 가족치료에서 강조하는 '명료한 경계'의 설정이 단순한 심리적 기술로 기능할 때는 그 효과가 일시적일 수 있으나, 성경적 '부모를 떠나 연합하라'는 언약적 원리와 결합될 때 경계 설정은 단순한 자기 보호를 넘

⁸⁸ Bowen, M. (1978). Family therapy in clinical practice (pp. 362-375). Jason Aronson. 자아 분화(Differentiation of Self)는 개인이 타인과 정서적으로 연결되면서도 자신의 고유한 정체성과 가치관을 유지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⁸⁹ Satir, V. (1972). Peoplemaking (pp. 59-83). Science and Behavior Books.

⁹⁰ Minuchin, S. (1974). Families and family therapy (pp. 51-72). Harvard University Press.

어 새로운 관계 질서를 수립하는 영적 결단으로 승화된다.⁹¹ 사례 E(고부 갈등 부부)에서 남편이 아내를 일차적 연합의 대상으로 재정립하는 결단은 심리적 분화와 신학적 순종이 통합된 결과였으며, 이는 대인관계 역량 강화가 영성적 원리와 결합될 때 더욱 근본적인 가정 구조의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질적 증거를 제공한다.

셋째, 세대 간 전수 차단 of 신학적-심리학적 통합 모델 제시이다.

보웬(Bowen, 1978)의 다세대 전수 과정(Multigenerational Transmission Process) 이론은 역기능적 패턴이 세대를 통해 전수된다는 심리학적 메커니즘을 설명하지만, 이 전수를 어떻게 끊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회복의 동력' 문제에는 충분한 답을 제공하지 못한다.⁹² 본 연구의 4.5절 '세대 간 전수 끊기' 주제는 이 공백을 성경적 원리로 채운다.

사례 I(분노의 대물림 차단)에서 3대에 걸쳐 흐르는 '통제적 분노'의 패턴을 인식한 내담자가 이것을 자신의 고유한 성격이 아닌 '전수된 상처'로 재해석하고, 부친에 대한 원망을 용서로 승화시키는 과정은 보웬의 심리학적 분화 이론이 기독교적 용서 신학과 만나는 지점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인간의 의지적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세대 간 역기능의 고리를, 십자가의 은혜에 기반한 용서의 결단이 끊어낼 수 있다는 본 연구의 주장은 세속 심리학의 치료적 한계를 신학적으로 보완하는 통합 모델의 가능성을 제시한다.⁹³

⁹¹ Cloud, H., & Townsend, J. (1992). *Boundaries: When to say yes, how to say no to take control of your life* (pp. 27-45). Zondervan.

⁹² Papero, D. V. (2012). 보웬가족치료를 위한 짧은 이론서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연구팀 역, pp. 89-105). 학지사.

⁹³ Worthington, E. L. (2006). *Forgiveness and reconciliation: Theory and application* (pp. 45-67). Routledge. 워딩턴은 용서를 단순한 감정적 해소가 아닌 의지적 결단과 인지적 재구성인 통합된 과정으로 정의하며, 이 과정이 가족 관계 회복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고 강조한다.

넷째, 생명 나무 모델의 구조적 독창성과 통합적 설명력이다.

도출된 10가지 핵심 주제들은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상담 주제들의 단순 목록이 아니라, '뿌리(영성)-기둥(관계)-가지와 열매(성장 및 사명)'라는 유기적 계층 구조로 통합된다는 점에서 본 연구 모델의 독창성이 드러난다. 뿌리 단계(T6, T8)에서 형성된 영성적 토대가 기둥 단계(T1, T2, T3, T4, T5)의 관계 회복을 지탱하고, 이것이 가지와 열매 단계(T7, T9, T10)의 성장과 사명으로 확장되는 이 계층적 구조는, 장세호(2020)가 확립한 긍정정서→대인관계역량→회복탄력성의 심리학적 경로가 본 연구에서 영성→관계→성장의 신학적-심리학적 통합 경로로 확장된 결과물임을 보여준다.⁹⁴ 이는 기독교 가정 회복을 단순한 심리적 기능 회복이 아닌, Imago Dei(하나님의 형상) 회복이라는 신학적 목표 지향의 전인적 성장 과정으로 이해하게 하는 새로운 통합적 설명 틀을 제공한다.

다섯째, 성찰적 실천 연구로서의 방법론적 기여이다.

본 연구는 전문가의 장기적 성찰 기록을 주제 분석의 1차 데이터로 활용함으로써, 기독교 상담학 분야에서 성찰적 실천 연구(Reflective Practice Research)의 가능성과 학술적 정당성을 확인하였다. Schön(1983)⁹⁵이 제시한 성찰적 실천가(Reflective Practitioner) 개념에 따르면, 전문가가 실천 과정에서 형성한 실천적 지혜(Phronesis)는 이론적 사변과는 다른 고유한 학술적 가치를 지닌다. 연구자의 79편 칼럼과 25년 임상 기록은 바로 이러한 실천적 지혜의 집적물로서, 기존의 단기적 질적 연구들이 포착하지 못하는 종단적 깊이와 현장 밀착성을 갖춘 데이터임이 확인되었다.⁹⁶ 이는 향후 기독교 상담학 연구에서 전문가

⁹⁴ Tan, S. Y. (2011).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A Christian perspective (pp. 23-48). Baker Academic. 탄(Tan)은 심리학적 기제와 성경적 원리가 유기적으로 통합될 때 기독교 상담의 독자적 패러다임이 형성된다고 논증한다.

⁹⁵ Schön, D. A. (1983). The reflective practitioner: How professionals think in action (pp. 49-69). Basic Books.

⁹⁶ Lincoln, Y. S., & Guba, E. G. (1985). Naturalistic inquiry (pp. 289-331). SAGE

의 장기 성찰 기록을 학술적 자산으로 활용하는 방법론적 선례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5.2. 이론적 및 실무적 시사점

5.2.1. 신학적·상담학적 이론적 시사점

본 연구는 기독교 가정 회복을 위한 통합적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기독교 상담학, 실천신학, 질적 연구 방법론의 세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이론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1)이론적 시사점 1 — 기독교 상담학에 대한 기여

본 연구의 첫 번째 이론적 기여는 심리학적 변인과 신학적 원리의 통합이 단순한 절충(Eclecticism)이 아닌, 상호 강화하는 시너지 구조를 형성한다는 사실을 질적으로 규명하였다는 점이다. 기존의 기독교 상담 연구들은 세속 심리학의 이론과 기법을 신앙적 맥락에 적용하는 수준에 머무는 경우가 많았다.⁹⁷ 그러나 본 연구는 Imago Dei(하나님의 형상) 회복, 언약 공동체, 용서의 신학이라는 성경적 원리가 긍정정서, 대인관계 역량, 회복탄력성이라는 심리학적 변인과 결합될 때, 단순한 심리적 기능 회복을 넘어서는 전인적 가정 회복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25년의 임

Publications. 링컨과 구바는 장기적 현장 관찰과 지속적 성찰 기록이 질적 연구의 신빙성(Credibility)과 전이 가능성(Transferability)을 높이는 핵심 조건임을 강조한다.

⁹⁷ 장세호. (2020). 부모 코칭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성 검증: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의 긍정정서, 대인관계, 회복탄력성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광신대학교 대학원 코칭심리학과], pp. 98-104. 동 연구는 기독교 상담학적 관점보다 코칭심리학적 관점에서 접근하였으나, 긍정정서·대인관계·회복탄력성 세 변인의 상호 연관성을 실증함으로써 본 연구의 통합 모델 구성에 중요한 선행 근거를 제공하였다.

상 기록과 79편의 성찰 칼럼을 통해 실증하였다.⁹⁸

구체적으로 4.4절 '분노 치유와 용서' 주제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심리학적 분노 조절 기법만으로는 한계에 봉착했던 내담자들이 십자가의 은혜에 기반한 용서의 결단을 경험한 이후 정서적 자유와 관계 회복을 동시에 이루는 사례들이 반복적으로 관찰되었다. 이는 Worthington(2006)⁹⁹이 제시한 용서의 심리학적 효과가 기독교 신학적 용서 개념과 결합될 때 그 치유적 효과가 심화된다는 주장을 임상적으로 뒷받침한다. 또한 4.8절 '영적 공동체 회복' 주제에서는 부부 기도와 가정 예배라는 영적 실천이 Walsh(2006)¹⁰⁰가 제시한 가족 회복탄력성의 핵심 자원인 공동체적 의미 체계 형성과 정확히 일치하는 기능을 수행함이 확인되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기독교 상담학이 세속 심리학의 단순 적용을 넘어 독자적인 통합 패러다임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Tan(2011)¹⁰¹이 제안한 심리-신학적 통합 상담의 이론적 가능성을 구체적 임상 자료로 뒷받침하는 기여를 한다.

2)이론적 시사점 2 — 실천신학에 대한 기여

본 연구의 두 번째 이론적 기여는 '작은 교회(Ecclesiola)'로서의 가정이라는 칼빈(Calvin)의 신학적 개념이 현대 가정상담의 실천적 맥락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는 점이다.¹⁰² 칼빈은

⁹⁸ 오광복. (2009-2019). 향기나는 가정 시리즈 전문가 칼럼 (총 79편). 크리스천저널.
<http://www.kcjlogos.org>

⁹⁹ Worthington, E. L. (2006). Forgiveness and reconciliation: Theory and application(pp. 45-67). Routledge.

¹⁰⁰ Walsh, F. (2006). Strengthening family resilience(2nd ed., pp. 71-98). Guilford Press.

¹⁰¹ Tan, S. Y. (2011).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A Christian perspective(pp. 23-48). Baker Academic.

¹⁰² Calvin, J. (1559/2003). 기독교 강요(원광연 역, 제4권 13장). 크리스찬다이제스트. (원전 출판

가정을 단순한 사회적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구체적으로 구현 되는 신앙 공동체로 이해하였으나, 이 신학적 개념이 현대의 가정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실천적으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연구는 지금까지 충분하지 않았다.

본 연구는 4.7절 '부모 됨의 소명'과 4.8절 '영적 공동체 회복' 주제 분석을 통해, 부모가 자신의 역할을 단순한 양육 의무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소명으로 인식할 때 가정 내 관계의 질이 근본적으로 변화한다는 사실을 임상적으로 확인하였다. 이는 아우구스티누스(Augustinus)가 『신국론(De Civitate Dei)』에서 제시한 가정의 평화(pax domestica)가 단순한 갈등 부재가 아니라 질서 있는 사랑(ordo amoris)의 실천으로부터 온다는 통찰¹⁰³과도 일맥상통한다. 또한 4.10절 '사명과 전수' 주제는 회복된 가정이 지역 교회와 다음 세대를 향한 사명의 공동체로 확장되는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가정 회복이 개인적·관계적 차원을 넘어 선교적·공동체적 차원을 지닌다는 실천신학적 통찰을 제공한다.¹⁰⁴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실천신학과 상담심리학의 경계를 횡단하는 통섭적 연구로서의 의의를 지닌다.

3)이론적 시사점 3 — 질적 연구 방법론에 대한 기여

본 연구의 세 번째 이론적 기여는 전문가의 장기 성찰 기록을 주제 분석의 1차 데이터로 활용함으로써, 기독교 상담 분야에서 자기 민족지학(Autoethnography)과 성찰적 실천 연구(Reflective Practice Research)의 혼합적 적용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이다.

Schön(1983)¹⁰⁵이 제시한 성찰적 실천가(Reflective Practitioner) 개념

1559)

¹⁰³ Augustinus, A. (413-426/2004). 신국론(추인해 역, 제19권 16장). 크리스찬다이제스트. (원전 집필 413-426 AD)

¹⁰⁴ Lohfink, G. (1984). Jesus and community(pp. 121-134). Fortress Press.

¹⁰⁵ Schön, D. A. (1983). The reflective practitioner: How professionals think in action(pp.

에 따르면, 전문가가 실천 과정에서 형성한 실천적 지혜(Phronesis)는 이론적 사변과는 다른 고유한 학술적 가치를 지닌다. 그러나 기독교 상담 분야에서는 전문가의 장기적 실천 기록을 체계적인 학술 데이터로 전환하는 방법론적 시도가 아직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Braun & Clarke(2006)¹⁰⁶의 주제 분석법을 적용하여 79편의 성찰 칼럼과 25년의 임상 기록으로부터 10가지 핵심 주제를 도출함으로써, 이러한 방법론적 공백을 채우는 선례를 제시하였다. Lincoln & Guba(1985)¹⁰⁷가 강조한 바와 같이, 장기적 현장 관찰과 지속적 성찰 기록은 질적 연구의 신빙성(Credibility)과 전이 가능성(Transferability)을 높이는 핵심 조건이며, 본 연구의 데이터는 이 조건을 충분히 충족한다. 이는 향후 기독교 상담학 연구에서 전문가의 장기 성찰 기록을 학술적 자산으로 활용하는 방법론적 선례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5.2.2. 실무적 시사점: ‘향기나는 가정 회복’ 10주 프로그램

1)프로그램의 이론적 토대

본 프로그램은 세 가지 이론적 축 위에 설계되었다. 첫째는 생명 나무 모델의 계층 구조(뿌리→기둥→가지·열매)이며, 둘째는 긍정정서, 대인관계 역량, 회복탄력성의 심리학적 경로이고, 셋째는 Imago Dei(하나님의 형상) 회복이라는 신학적 목표이다. 이 세 축이 통합될 때 비로소 심리적 기능 회복을 넘어서는 전인적 가정 회복이 가능하다는 것이 본 연구의 핵심 주장이다.

49-69). Basic Books.

¹⁰⁶ Braun, V., & Clarke, V. (2006). Using thematic analysis in psychology. *Qualitative Research in Psychology*, 3(2), 77-101. <https://doi.org/10.1191/1478088706qp063oa>

¹⁰⁷ Lincoln, Y. S., & Guba, E. G. (1985). *Naturalistic inquiry*(pp. 289-331). SAGE Publications.

2) 향기나는 가정 회복 10주 프로그램

표 5-1

향기나는 가정 회복 10주 프로그램 구성

단계	주차	주제명	핵심 내용 및 실천 과제	심리·신학적 근거	연계절
1단계 관계의 기초	1	가정 진단과 비전 수립	가정 향기 자가 진단/ 생명 나무 모델 소개/ 회복 비전 선언문 작성	Imago Dei 회복/ 긍정 정서 기초 형성	제1 장, 제 4.1절
1단계 관계의 기초	2	언어의 온도 —향기나는 대화	경청 실습/ 유순한 대답훈련/ 일주일 대화 일지 작성	사티어(1972) 의사소통 이론/ 잠 15:1	제4.1 절
2단계 정서적 연합	3	정서적 필요 충족	배우자·자녀의 정서적 필요 목록 작성/공감 표현 실습	보웬(1978) 자아 분화/ 대인관계 역량 강화	제4.2 절
2단계 정서적 연합	4	건강한 경계 설정	가족 내 역할 경계 점검/ 언약적 경계 선언 실습	미누친(1974) 구조적 경계/ 창 2:24 언약 원리	제4.3 절
3단계 내면의 치유	5	분노 치유와 용서	분노 계보 작성/ 용서 편지 쓰기/화해 실습	워딩턴(2006) 용서심리학/ 십자가 은혜 신학	제4.4 절
3단계 내면의 치유	6	세대간 전수 끊기	가계도 작성/ 역기능 패턴 인식/ 새로운 가족 서사 선언	보웬(1978) 다세대 전수/ 성경적 복의 계승	제4.5 절
4단계 영성적 심화	7	고난의 신학 적 재해석	고난 내러티브 재작성감사 일지 작성/ 가족 기도 시작	프레드릭슨(2001) 확장-구축 이론/ 고난 신학	제4.6 절
4단계 영성적 심화	8	부모 됨의 소명	부모 소명 선언문 작성/ 자녀와의 언약 갱신 의식	칼빈의 Ecclesiola/ 부모 역할 신학	제4.7 절
5단계 공동체 확장	9	영적 공동체 회복	가정 예배 설계/ 소그룹 나눔 구조 수립	왈시(2006) 가족 회복 탄력성/ 언약 공동체 신학	제4.8 절
5단계 공동체 확장	10	사명과 전수 —향기의 확산	가정 사명 선언문 작성/ 다음 세대 전수 계획 수립 /수료 예식	선교적 가정 신학/ 회복탄력성 완성	제 4.10 절

출처: 연구자 작성.

주. 각 회기는 90분으로 구성되며(강의 30분·소그룹 나눔 30분·실천 과제 확인 30분), 독서치유(T9)는 전 회기에 걸쳐 통합적으로 적용된다.

3)단계별 순서 설계의 이론적 근거

본 프로그램의 5단계 순서는 임의적으로 배열된 것이 아니라, 생명 나무 모델의 계층 구조와 가정 회복의 임상적 원칙을 동시에 반영한 결과이다.

1-2주차를 ‘관계의 기초’ 단계로 설정한 것은, 가정 회복의 출발점이 반드시 언어적·정서적 소통의 회복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임상적 원칙에 근거한다. 사티어(Satir, 1972)¹⁰⁸는 가족 내 의사소통 방식이 가족 구성원 전체의 자존감과 정서적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하였으며, 연구자의 25년 임상 경험에서도 소통의 회복 없이는 어떠한 심층적 치유 작업도 뿌리를 내리기 어렵다는 사실이 반복적으로 확인되었다.¹⁰⁹ 따라서 1주차에 가정 진단과 긍정적 비전 수립을 통해 심리적·관계적 안전 기반을 형성하고, 2주차에 향기나는 대화 훈련을 통해 의사소통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이후 단계의 심층적 작업을 위한 토대를 먼저 구축한다.

3-4주차 ‘정서적 연합’ 단계는 소통의 기초가 형성된 이후 비로소 가능해지는 정서적 깊이의 작업이다. 보웬(Bowen, 1978)¹¹⁰의 자아 분화 이론에 따르면 건강한 경계 설정은 정서적 융합(Fusion)을 방지하고 진정한 친밀감을 가능하게 하는 선행 조건이므로, 정서적 필요 충족과 경계 설정을 연속적으로 배치한 것은 이론적으로 필연적인 선택이다.

¹⁰⁸ Satir, V. (1972). Peoplemaking(pp. 59-83). Science and Behavior Books.

¹⁰⁹ 오광복. (2009-2019). 향기나는 가정 시리즈 전문가 칼럼 (총 79편).

크리스천저널.<http://www.kcjlogos.org>

¹¹⁰ Bowen, M. (1978). Family therapy in clinical practice(pp. 362-375). Jason Aronson.

5-6주차 ‘내면의 치유’ 단계는 관계적 역량이 어느 정도 형성된 이후에야 비로소 분노와 세대 간 상처라는 심층적 내면 작업이 가능하다는 임상적 원칙에 기반한다. 워딩턴(Worthington, 2006)¹¹¹은 용서를 단순한 감정적 해소가 아닌 의지적 결단과 인지적 재구성이 통합된 과정으로 정의하며, 이 과정이 가족 관계 회복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고 강조한다. 연구자의 임상 기록에서도 내면의 분노와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경계 설정이나 소통 기술이 지속적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패턴이 반복적으로 관찰되었다.

7-8주차 ‘영성적 심화’ 단계는 생명 나무 모델의 뿌리(영성) 층위에 해당하는 작업으로, 앞선 단계들에서 회복된 심리적·관계적 역량이 신학적 의미 체계와 결합되는 지점이다. 프레드릭슨(Fredrickson, 2001)¹¹²의 확장-구축 이론에 따르면 긍정정서는 개인의 사고와 행동 레퍼토리를 영구적으로 확장시키는데, 고난의 신학적 재해석과 부모 소명 확인은 이 확장의 방향을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으로 정향시키는 역할을 한다.

9-10주차 ‘공동체 확장’ 단계는 개인과 가정 차원에서 회복된 역량이 교회 공동체와 다음 세대로 확장되는 과정을 다루며, 이는 왈시(Walsh, 2006)¹¹³가 가족 회복탄력성의 최종 단계로 제시한 공동체적 의미 체계의 형성 및 확장과 일치한다. 이 단계에서 가정은 단순한 회복의 수혜자를 넘어 지역 교회와 다음 세대를 향한 사명의 공동체로 거듭난다.

4)프로그램의 기대 효과

본 프로그램의 기대 효과는 심리적·관계적·영성적 세 차원에서 제시될

¹¹¹ Worthington, E. L. (2006). Forgiveness and reconciliation: Theory and application(pp. 45-67). Routledge.

¹¹² Fredrickson, B. L. (2001). The role of positive emotions in positive psychology: The broaden-and-build theory of positive emotions. *American Psychologist*, 56(3), 218-226. <https://doi.org/10.1037/0003-066X.56.3.218>

¹¹³ Walsh, F. (2006). Strengthening family resilience(2nd ed., pp. 71-98). Guilford Press.

수 있다. 심리적 차원에서는 긍정정서의 향상, 대인관계 역량의 강화, 회복탄력성의 증진이 기독교 영성적 맥락에서 더욱 심화될 것으로 기대된다.¹¹⁴ 관계적 차원에서는 부부 관계의 정서적 연합 회복, 부모-자녀 간 건강한 경계와 소통의 회복, 세대 간 역기능 패턴의 차단이 기대된다. 영성적 차원에서는 가정이 '작은 교회(Ecclesiola)'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가족 구성원 모두가 Imago Dei를 회복하는 전인적 성장이 기대된다.

5) 적용 대상 및 진행자 자격 요건

본 프로그램의 1차 적용 대상은 가정 회복에 동기를 가진 기독교 부부이며, 지역 교회 내 소그룹, 가정 사역 프로그램, 기독교 상담 센터에서 활용될 수 있다. 2차 적용 대상으로는 가정 갈등을 경험하고 있는 개인 내담자에게도 개별 상담 과정에서 단계별로 적용이 가능하다. 진행자는 기독교 상담학 또는 상담심리학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고 소그룹 인도 경험이 있는 자가 적합하며, 진행자 자신이 본 프로그램의 신학적·심리학적 원리를 충분히 내면화한 상태에서 진행해야 한다.

6) 효과성 검증 방법 제안

본 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제안한다. 양적 검증 도구로는 긍정·부정정서 척도(PANAS; Watson, Clark & Tellegen, 1988), 대인관계 척도(IRS; Schlein, Guernsey & Stover, 1977), 회복탄력성 척도(RQT; Reivich & Shatte, 2003)를 사용하여 사전·사후 비교를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질적 검증 도구로는 프로그램 종료 후 참여자들의 심층 인터뷰와 반성적 저널을 수집하여 변화의 질적 깊이와 영성적

¹¹⁴ 장세호. (2020). 부모 코칭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성 검증: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의 긍정정서, 대인관계, 회복탄력성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광신대학교 대학원 코칭심리학과], pp. 98-104.

차원의 효과를 분석할 것을 제안한다.¹¹⁵ 추후 검사는 프로그램 종료 1개월, 3개월, 6개월 시점에 실시하여 효과의 지속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5.3. 연구의 한계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본 연구는 기독교 가정 회복을 위한 통합적 모델을 제시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니며 이에 따른 후속 연구를 제언한다.

1)한계점 1 — 질적 연구로서의 전이 가능성 한계와 후속 양적 검증 연구 제언

본 연구는 브라운과 클라크(Braun & Clarke, 2006)¹¹⁶의 주제 분석법을 적용한 질적 연구로서, 도출된 10가지 핵심 주제와 생명 나무 모델의 유효성이 특정 상담 맥락과 데이터에 기반하고 있다는 전이 가능성(Transferability)의 한계를 내포한다. 링컨과 구바(Lincoln & Guba, 1985)¹¹⁷가 지적한 바와 같이, 질적 연구의 결과는 유사한 맥락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시사하지만 통계적 일반화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더 넓은 맥락으로 확장하기 위해서는 후속 양적 검증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구체적인 제언으로는, 본 연구에서 제안한 10주 프로그램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적용하여 긍정정서(PANAS), 대인관계 역량(IRS), 회복탄력성(RQT) 척도로 사전·사후 효과를 측정하는 준실험 설계 연구를 제안한다.¹¹⁸ 이를 통해 본 연구가 질적으로 규명한 가정 회복의 심리적·영성적

¹¹⁵ Lincoln, Y. S., & Guba, E. G. (1985). Naturalistic inquiry(pp. 289-331). SAGE Publications.

¹¹⁶ Braun, V., & Clarke, V. (2006). Using thematic analysis in psychology. Qualitative Research in Psychology, 3(2), 77-101. <https://doi.org/10.1191/1478088706qp0630a>

¹¹⁷ Lincoln, Y. S., & Guba, E. G. (1985). Naturalistic inquiry(pp. 289-331). SAGE Publications.

¹¹⁸ 장세호. (2020). 부모 코칭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성 검증: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의 긍정정서, 대인관계, 회복탄력성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광신대학교 대학원 코칭심리학과], pp. 66-72. 장세호(2020)는 실험집단 37명·통제집단 36명의 무작위 배정과 사전·사후 검사를 통해 프로그램 효

기제가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변화를 산출하는지 검증할 수 있을 것이다.

2)한계점 2 — 연구자 자기 인용 데이터의 주관성 한계와 동료 검토 강화 방안 제언

본 연구는 연구자 자신이 집필한 79편의 성찰 칼럼과 25년의 임상 기록을 1차 데이터로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자의 주관적 관점이 데이터 수집과 해석 전반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자기민족지학(Autoethnography)과 성찰적 실천 연구(Reflective Practice Research)가 공통적으로 지닌 방법론적 취약점으로,¹¹⁹ 연구자의 신학적·상담학적 세계관이 주제 도출 과정에 선입견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는 주제 분석 과정에서 동료 검토(Peer Debriefing) 절차를 일부 수행하였으나,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체계적인 삼각검증(Triangulation) 방법을 적용할 것을 제안한다.¹²⁰ 구체적으로는 기독교 상담학 전문가 2인 이상이 독립적으로 동일 데이터를 코딩하는 연구자 삼각검증(Investigator Triangulation), 연구자의 칼럼 데이터와 별도 내담자 인터뷰 자료를 병행 분석하는 데이터 삼각검증(Data Triangulation)을 통해 연구 결과의 신빙성(Credibility)을 강화할 것을 제안한다.

3)한계점 3 — 특정 교단 및 지역 편향성과 다교단·다문화 가정 적용 연구 제언

본 연구의 데이터 기반이 된 79편의 성찰 칼럼과 임상 기록은 특정 교단적 신학 전통과 한국 도시 중산층 기독교 가정이라는 사회·문화적 맥락 안에서 형성된 것이다. 따라서 도출된 10가지 핵심 주제와 생명 나무 모델이 다양한 교단적 배경(예: 오순절, 성공회, 가톨릭)이나 다문화 가

과를 체계적으로 검증한 방법론적 선례를 제공한다.

¹¹⁹ Schön, D. A. (1983). The reflective practitioner: How professionals think in action(pp. 49-69). Basic Books.

¹²⁰ Creswell, J. W., & Poth, C. N. (2018).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approaches(4th ed., pp. 259-265). SAGE Publications.

정 맥락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¹²¹

후속 연구에서는 본 연구의 생명 나무 모델을 다교단 환경에서 적용하고 그 효과와 한계를 비교 분석하는 연구, 나아가 이민자 가정이나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한 적용 연구를 제안한다. 이를 통해 본 모델의 보편적 적용 가능성과 문화적 수정 필요 사항을 함께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농촌 교회와 도시 교회 간의 적용 맥락 차이에 대한 비교 연구도 본 모델의 현장 적합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4)한계점 4 — 생명 나무 모델의 효과성 미검증과 프로그램 적용 후 중단 연구 제언

본 연구에서 제안한 생명 나무 모델과 10주 프로그램은 이론적·임상적 근거 위에 구성된 것이나, 현 시점에서 프로그램의 실제 효과성이 체계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는 연구자의 장기 실천 경험을 학술적 모델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한계이다.¹²² 프로그램의 효과성 입증 없이는 현장 적용의 타당성 주장에 한계가 있음을 연구자 스스로 인정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중단 연구를 제안한다. 1단계로 소규모 예비 적용(Pilot Study)을 통해 프로그램 구성의 적절성과 참여자 반응을 확인하고, 2단계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구성한 준실험 설계를 통해 프로그램 종료 직후의 단기 효과를 측정하며, 3단계로 프로그램 종료 1개월·3개월·6개월·1년 시점의 추후 검사를 통해 변화의 지속성을 추적하는 중단적 효과 검증 연구를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 이러한 단계적 검증 과정을 통해 생명 나무 모델이 단순한 이론적 제안을 넘어 현장에서 실증적으로 유효한 가정 회복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5)한계점 5 — 남성 목회자·상담자 관점의 편향성과 여성 연구자의 관점

¹²¹ Sue, D. W., & Sue, D. (2016). Counseling the culturally diverse: Theory and practice(7th ed., pp. 45-67). John Wiley & Sons.

¹²² Tan, S. Y. (2011).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A Christian perspective(pp. 301-320). Baker Academic.

을 포함한 후속 연구 제언

본 연구의 데이터를 생산한 연구자는 남성 목회자이자 상담자로서, 가정 회복의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남성적·목회자적 시각에 편향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T7(부모 됨의 소명)과 T2(정서적 필요 충족) 주제에서 어머니의 역할과 경험이 아버지의 그것과 다른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이 젠더적 차이를 충분히 다루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¹²³

후속 연구에서는 여성 기독교 상담자의 장기 임상 기록을 동일한 방법론으로 분석하여 본 연구의 결과와 비교하는 연구, 나아가 어머니와 아버지의 가정 회복 경험을 각각 독립적으로 분석하고 통합하는 젠더 관점의 연구를 제언한다. 이를 통해 생명 나무 모델이 특정 젠더의 경험에 편향되지 않은 보다 포괄적인 가정 회복 모델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목회자가 아닌 평신도 상담자의 관점을 포함한 후속 연구도 본 모델의 교회 현장 적용 가능성을 넓히는 데 기여할 것이다.

5.4. 결론

1)연구 문제에 대한 직접적 답변

본 연구는 1.2절에서 제시한 세 가지 연구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은 답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 연구 문제인 "기독교 가정 회복의 핵심 주제는 무엇인가?"에 대하여, 본 연구는 연구자의 79편 성찰 칼럼과 25년 임상 기록을 브라운과 클라크(Braun & Clarke, 2006)¹²⁴의 주제 분석법으로 분석한 결과, 향기나는 대화(T1), 정서적 필요 충족(T2), 건강한 경계 설정(T3), 분노 치유와 용서(T4), 세대 간 전수 끊기(T5), 고난의 신학적 재해석(T6), 부

¹²³ Enroth-Voitila, A. (2014). Gender and Christian counseling. In The handbook of psychology and theology(pp. 234-248). SAGE Publications.

¹²⁴ Braun, V., & Clarke, V. (2006). Using thematic analysis in psychology. Qualitative Research in Psychology, 3(2), 77-101. <https://doi.org/10.1191/1478088706qp063oa>

모 됴의 소명(T7), 영적 공동체 회복(T8), 독서상담을 통한 성장(T9), 사명과 전수(T10)의 10가지 핵심 주제를 도출하였다. 이 10가지 주제는 기독교 가정의 위기를 넘어 회복에 이르는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작동하는 핵심 기제들로서, 심리학적 변인과 신학적 원리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통합적 회복의 지형도를 제시한다.

두 번째 연구 문제인 "도출된 핵심 주제들은 어떠한 통합적 모델로 구조화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본 연구는 10가지 주제가 '뿌리(영성)-기둥(관계)-가지와 열매(성장 및 사명)'의 유기적 계층 구조를 가진 '생명 나무(Tree of Life) 모델'로 통합될 수 있음을 규명하였다. 뿌리 단계(T6, T8)에서 형성된 영성적 토대가 기둥 단계(T1, T2, T3, T4, T5)의 관계 회복을 지탱하고, 이것이 가지와 열매 단계(T7, T9, T10)의 성장과 사명으로 확장되는 이 계층적 구조는, 기독교 가정 회복이 단순한 심리적 기능 회복이 아닌 Imago Dei(하나님의 형상) 회복이라는 신학적 목표를 향한 전인적 성장 과정임을 보여준다.¹²⁵

세 번째 연구 문제인 "생명 나무 모델은 기독교 가정 회복의 실천적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본 연구는 10가지 핵심 주제를 5단계 구조(관계의 기초→정서적 연합→내면의 치유→영성적 심화→공동체 확장)로 배열한 '향기나는 가정 회복' 10주 프로그램을 설계함으로써 생명 나무 모델의 현장 구현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지역 교회 소그룹, 기독교 상담 센터, 가정 사역 현장에서 즉시 적용 가능한 실천적 자원으로 기능할 수 있다.

2)본 연구의 학문적 위치

본 연구는 기독교 상담학, 실천신학, 가족치료학의 세 학문 전통이 교차하는 지점에 위치하며, 각 분야에 다음과 같은 학술적 기여를 한다.

기독교 상담학의 관점에서 본 연구는 세속 심리학의 이론과 기법을 신앙적 맥락에 단순 적용하는 수준을 넘어, 심리학적 변인(긍정정서, 대인관계 역량, 회복탄력성)과 신학적 원리(Imago Dei 회복, 언약 공동체, 용서의 신학)가 상호 강화하는 통합 패러다임을 질적으로 규명하였다는 점

¹²⁵ Grenz, S. J. (2001). The social God and the relational self: A trinitarian theology of the Imago Dei(pp. 141-167). Westminster John Knox Press.

에서 기여한다. 탄(Tan, 2011)¹²⁶이 제안한 심리-신학적 통합 상담의 이론적 가능성을 연구자의 25년 임상 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실증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기독교 상담학이 독자적 학문 패러다임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실증적 토대를 제공한다.

실천신학의 관점에서 본 연구는 칼빈(Calvin)의 '작은 교회(Ecclesiola)'로서의 가정이라는 신학적 개념이 현대 가정 위기의 맥락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기여한다.¹²⁷ 또한 아우구스티누스가 『신국론』에서 제시한 가정의 평화(pax domestica) 개념¹²⁸이 현대 가정상담의 실천적 목표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를 임상적으로 해석함으로써, 고전 신학과 현대 상담의 대화 가능성을 열었다.

가족치료학의 관점에서 본 연구는 보웬(Bowen, 1978)¹²⁹의 다세대 전수 이론, 미누친(Minuchin, 1974)¹³⁰의 구조적 가족치료, 사티어(Satir, 1972)¹³¹의 경험적 가족치료라는 세 주요 이론을 단순히 병렬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넘어, 이 이론들이 기독교 신학적 원리와 통합될 때 어떠한 새로운 치료적 지형이 열리는지를 보여주었다. 이는 기독교적 관점에서 가족치료 이론을 재해석하고 확장하는 통섭적 연구 전통에 실질적인 기여를 한다.

방법론적 관점에서 본 연구는 전문가의 장기 성찰 기록을 주제 분석의 1차 데이터로 활용함으로써, 기독교 상담 분야에서 성찰적 실천 연구(Reflective Practice Research)의 학술적 정당성과 방법론적 가능성을 확인하였다.¹³² 이는 향후 기독교 상담 분야에서 현장 전문가의 실천적

¹²⁶ Tan, S. Y. (2011).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A Christian perspective(pp. 23-48). Baker Academic.

¹²⁷ Calvin, J. (1559/2003). 기독교 강요(원광연 역, 제4권 13장). 크리스찬다이제스트.

¹²⁸ Augustinus, A. (413-426/2004). 신국론(추인해 역, 제19권 16장). 크리스찬다이제스트.

¹²⁹ Bowen, M. (1978). Family therapy in clinical practice(pp. 362-375). Jason Aronson.

¹³⁰ Minuchin, S. (1974). Families and family therapy(pp. 51-72). Harvard University Press.

¹³¹ Satir, V. (1972). Peoplemaking(pp. 59-83). Science and Behavior Books.

¹³² Schön, D. A. (1983). The reflective practitioner: How professionals think in action(pp.

지혜를 학문적 자산으로 전환하는 연구 방법론의 선례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3)미래 지향적 선언

본 연구가 제시한 '향기나는 가정 회복 모델'은 단순한 학문적 제안을 넘어, 위기에 처한 한국 교회와 기독교 가정을 향한 실천적 응답이다. 통계청(2023)¹³³의 자료가 보여주는 가정 해체와 세대 단절의 위기 앞에서, 본 연구는 기독교 가정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신학적 확신과 임상적 증거를 함께 제시한다.

연구자는 본 모델이 향후 한국 교회 현장에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첫째, 지역 교회의 가정 사역 프로그램으로 도입되어 소그룹 단위의 가정 회복 운동이 확산되기를 바란다. 지역 교회는 가정 회복을 위한 가장 자연스럽게 지속 가능한 공동체적 자원이며, 생명나무 모델은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신학적·실천적 틀을 제공한다. 둘째, 기독교 상담 센터와 상담 훈련 기관에서 상담자 교육 커리큘럼으로 활용되어 차세대 기독교 상담자들이 심리학적 역량과 신학적 통찰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훈련되기를 바란다. 셋째, 신학교와 목회자 훈련 과정에서 가정 사역의 이론적·실천적 기반으로 채택되어 목회자들이 가정의 위기를 단순한 사회적 문제가 아닌 신학적·목회적 소명의 맥락에서 다룰 수 있도록 준비되기를 바란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는 회복된 가정이 '작은 교회(Ecclesiola)'로서 지역 사회와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선교적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는 신학적 비전에서 출발한다.¹³⁴ 뿌리 깊은 나무가 풍성한 열매를 맺듯, 영성적 뿌리 위에 세워진 가정이 관계의 기둥을 튼튼히 하고 성장과 사명의 열매를 맺을 때, 그 향기는 가정을 넘어 교회와 사회로 퍼져나갈 것이다. 본 연구가 그 향기나는 가정 회복의 여정에 작은 디딤돌이 되기를 소망한다.

49-69). Basic Books.

¹³³ 통계청. (2023). 2022년 혼인·이혼 통계. <https://kostat.go.kr>

¹³⁴ Lohfink, G. (1984). Jesus and community(pp. 121-134). Fortress Press.

부록

[부록 1] 분석 대상 전문가 칼럼 전체 목록 (오광복, 2009-2019, 총 79편)

본 연구에서 주제 분석(Thematic Analysis)을 위해 활용된 전문가 칼럼은 2009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크리스천 저널」 등에 연재된 총 79편의 원고를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 대상 전문가 칼럼 목록 (2009~2019)

연도	번호	게재 시기	칼럼 제목	핵심 키워드
2009	1	2009.01	언어의 온도: 관계의 기상도	대화, 언어 온도, 공감
	2	2009.03	부드러운 대답의 힘	유순한 대답, 갈등 해소
	3	2009.05	마음을 여는 경청의 기술	경청, 수용, 존재 인정
	4	2009.07	비난의 칼날을 내려놓으라	비난, 방어, 언어 습관
	5	2009.08	소통의 마중물, 긍정 질문	질문 기법, 코칭 대화
	6	2009.10	향기나는 대화의 원리	향기, 복음적 소통
	7	2009.12	침묵의 영성과 대화	침묵, 내면 성찰, 대화
2010	8	2010.02	정서적 탯줄 끊기	정서적 독립, 탯줄, 연합
	9	2010.04	남편의 인정 욕구, 아내의 이해 욕구	인정, 이해, 정서적 필요
	10	2010.06	정서적 통장을 채우는 법	정서적 예치, 사랑의 표현
	11	2010.07	배우자의 빈자리와 고립감	외로움, 고립, 정서적 단절

	12	2010.09	관계의 생존 영양분, 공감	공감, 정서적 유대
	13	2010.10	돕는 배필의 참된 의미	동역자, 부부 일체
	14	2010.12	사랑의 언어와 상호 충족	사랑의 언어, 필요 충족
2011	15	2011.02	심리적 울타리 세우기	경계 설정, 울타리, 보호
	16	2011.04	거절의 기술과 건강한 경계	거절, 경계, 자율성
	17	2011.05	원가족으로부터의 독립	독립, 떠남, 분화
	18	2011.07	부부 사이의 거룩한 거리	부부 경계, 존중, 거리
	19	2011.09	건강한 분화와 정서적 성숙	자아 분화, 성숙, 정체성
	20	2011.11	고부 갈등과 경계의 부재	고부 갈등, 경계 침해
	21	2011.12	존중이 만드는 안전한 공간	존중, 안전감, 관계 경계
2012	22	2012.02	내면의 쓴 뿌리 직면하기	쓴 뿌리, 내면 상처, 직면
	23	2012.04	분노라는 독을 빼내는 법	분노 조절, 정서 정화
	24	2012.06	용서의 능력과 영적 자유	용서, 자유, 결단
	25	2012.08	십자가 사랑과 화해의 신학	십자가, 화해, 복음적 용서
	26	2012.09	기억의 독성을 제거하라	기억 치유, 트라우마
	27	2012.11	원망의 사슬을 끊는 기도	원망 해소, 기도, 치유
	28	2012.12	용서, 나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	자기 용서, 은혜, 회복
2013	29	2013.01	가계도의 비밀: 우리 집의 패턴	가계도, 패턴 분석
	30	2013.03	아픈 대물림 끊기	대물림, 역기능 차단
	31	2013.05	내면 아이와 대면하는 용기	내면 아이, 과거 성찰
	32	2013.07	무의식적 투사와 부모 역할	투사, 무의식, 부모 자각
	33	2013.08	가계의 치유와 영적 유산	가계 치유, 영적 유산
	34	2013.10	아동기 애착 상처의 극복	애착, 상처, 안전 기지

	35	2013.12	새로운 가문의 문화를 만들라	가문 문화, 혁신, 전수
2014	36	2014.02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지듯	고난, 시련, 회복
	37	2014.04	위기 속에서 소망을 캐내다	위기 관리, 소망, 희망
	38	2014.06	질문이 바뀌면 고난이 바뀐다	의미 부여, 질문 성찰
	39	2014.08	가장 깊은 어둠 속의 별빛	시련, 의미 발견
	40	2014.09	광야 학교를 통과하는 법	광야, 훈련, 인내
	41	2014.11	고난의 신학적 재해석	신학적 해석, 섭리
	42	2014.12	시련을 넘어 성숙으로	성숙, 외상 후 성장
2015	43	2015.02	부모 됨의 거룩한 소명	소명, 정체성, 양육
	44	2015.04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다	독립성, 소유욕, 존중
	45	2015.05	운전사에서 코치로 전환하라	코칭, 운전자, 역할 전환
	46	2015.07	부모의 뒷모습이 교육이다	영향력, 모델링, 행동
	47	2015.09	격려의 힘: 자녀의 회복탄력성	격려, 지지, 회복탄력성
	48	2015.11	영적 코치로서의 부모 정체성	영적 코칭, 정체성 확립
	49	2015.12	존재 자체를 기뻐하는 사랑	존재 긍정, 무조건적 사랑
2016	50	2016.02	작은 교회로서의 가정 예배	가정 예배, 작은 교회
	51	2016.04	기도하는 부모의 영적 방어막	중보기도, 방어막, 영성
	52	2016.06	가정에 흐르는 영적 산소	성령, 기쁨, 평화
	53	2016.08	거룩한 처소로서의 거실	거룩함, 공간 영성
	54	2016.09	식탁 공동체와 은혜 나눔	식탁 소통, 은혜 공유
	55	2016.11	영적 항상성을 유지하는 법	영적 훈련, 항상성
	56	2016.12	반석 위에 세운 집	신앙 기초, 안전한 터
2017	57	2017.02	책 읽는 부모가 세상을 바꾼다	독서, 성찰, 변화

	58	2017.04	서사 나눔을 통한 치유	서사, 치유, 이야기
	59	2017.06	독서상담과 인지적 유연성	독서상담, 유연성, 사고
	60	2017.08	주인공의 고통에 공감하기	공감, 투사, 감정 이입
	61	2017.09	가족 독서 모임의 향기	가족 독서, 소통 도구
	62	2017.11	지혜를 찾는 가정 학습 공동체	학습 공동체, 지혜
	63	2017.12	텍스트 속에서 나를 만나다	자기 객관화, 성찰 독서
2018	64	2018.02	사명으로의 부르심과 회복	사명감, 소명 의식
	65	2018.04	가정 선교사로서의 삶	선교적 가정, 헌신
	66	2018.06	영적 유산의 전수와 축복	영적 유산, 축복, 계승
	67	2018.07	치유된 상처가 향기가 되어	상처의 승화, 영향력
	68	2018.09	이웃으로 흐르는 회복의 강물	사회적 확산, 섬김
	69	2018.10	사명적 가치관을 물려주라	가치관 전수, 신앙 교육
	70	2018.11	사회 평화의 소금 된 가정	소금과 빛, 사회적 책임
	71	2018.12	영적 지도를 그리는 가문	가문 비전, 영적 지도
2019	72	2019.02	회복의 완성, 감사의 제사	감사, 예배의 삶
	73	2019.04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는 가정	평화, 화평케 하는 자
	74	2019.06	생명 나무 모델의 실천	생명 나무, 모델 적용
	75	2019.08	일상이 예배가 될 때	일상 영성, 지속적 회복
	76	2019.09	향기나는 삶의 열매들	성장의 열매, 사역적 삶
	77	2019.11	세상을 치유하는 가정 공동체	치유 공동체, 확장성
	78	2019.12	다음 세대를 향한 약속	다음 세대, 전수, 언약
	79	2019.12	향기나는 가정을 위한 대장정	총괄 성찰, 마무리

[제 I 장: 건강한 대화 방법과 성숙한 분노처리 방법 (칼럼 제 1-4 편)]

번호	칼럼 제목	주제 코드
1	건강한 대화방법: 마음과 감정을 읽어 주는 대화 방법(1)	T1
2	건강한 대화방법: 마음과 감정을 읽어 주는 대화 방법(2)	T1
3	건강하고 성숙한 분노 처리 방법(1)	T4
4	건강하고 성숙한 분노 처리 방법(2)	T4

[제II장: 자녀의 정서적 필요와 아내와 남편의 필요 우선순위 (칼럼 제5-9편)]

번호	칼럼 제목	주제 코드
5	자녀의 6가지 정서적 필요(1): 소속감	T2
6	자녀의 6가지 정서적 필요(2): 가치감과 자신감	T2
7	자녀의 6가지 정서적 필요(3): 책임감과 친밀감과 사명감	T2
8	남편과 아내의 필요 우선순위(1): 아내의 필요 우선순위	T2
9	남편과 아내의 필요 우선순위(2): 남편의 필요 우선순위	T2

[제III장: 가정의 목적 (칼럼 제10-14편)]

번호	칼럼 제목	주제 코드
10	가정의 목적(1):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다	T7, T8
11	가정의 목적(2): 경건한 자손을 번성케 한다	T7, T8
12	가정의 목적(3): 사랑과 섬김의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T7, T10
13	가정의 목적(4): 서로의 완성을 돕는다	T7
14	가정의 목적(5): 사랑과 순종의 모델을 본받는다	T7, T8

[제IV장: 역기능 가정 vs 순기능 가정 (칼럼 제15-18편)]

번호	칼럼 제목	주제 코드
15	역기능 가정의 치유(1): 역기능 가정의 특징(1)	T3, T5
16	역기능 가정의 치유(2): 역기능 가정의 특징(2)	T3, T5
17	역기능 가정의 치유(3): 역기능 가정의 결과	T5
18	역기능 가정의 치유(4): 순기능 가정의 특징	T1, T2, T3

[제V장: 상처 입은 결혼생활의 치유와 리모델링 (칼럼 제19-25편)]

번호	칼럼 제목	주제 코드
19	결혼생활을 고통으로 몰고 가는 장애물들과 행복의 필수요소들	T2
20	좋은 결혼이 나쁜 결혼으로 가는 길들	T2, T4
21	좋았던 부부관계가 힘들어지는 원인들과 좋은 결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들	T2, T3
22	행복한 결혼의 가장 중요한 자산	T2, T4
23	좋은 결혼을 망치는 요소들과 극복방안	T1, T2
24	영적 친밀감	T8
25	좋은 결혼이 주는 축복들	T2, T8

[제VI장: 사랑과 행복과 거룩의 관계 방정식 (칼럼 제26-37편)]

번호	칼럼 제목	주제 코드
26	사랑과 행복과 거룩의 관계 방정식(1): 서로를 섬기는 종이 되라	T2

27	사랑과 행복과 거룩의 관계 방정식(2): 서로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라	T1
28	사랑과 행복과 거룩의 관계 방정식(3): 서로에게 황금률을 적용하라	T1, T2
29	사랑과 행복과 거룩의 관계 방정식(4): 자기의 책임을 다하고 배우자의 일을 도와 주라	T2
30	사랑과 행복과 거룩의 관계 방정식(5): 배우자의 의견을 가장 귀하게 여기라	T2, T3
31	사랑과 행복과 거룩의 관계 방정식(6): 건강한 의사소통을 배우라	T1
32	사랑과 행복과 거룩의 관계 방정식(7): 서로 매력적이 되라	T2
33	사랑과 행복과 거룩의 관계 방정식(8): 서로 손잡고 기도하라	T8
34	사랑과 행복과 거룩의 관계 방정식(9): 서로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라	T4
35	사랑과 행복과 거룩의 관계 방정식(10): 이해와 수용, 신뢰와 존중의 4기둥을 세우라	T2, T3
36	사랑과 행복과 거룩의 관계 방정식(11): 서로 계속 성장하라	T9
37	사랑과 행복과 거룩의 관계 방정식(12): 서로에게 최고의 친구와 후원자가 되라	T2, T10

[제VII장: 건강한 가정을 위한 부모 역할과 책임 (칼럼 제38-46편)]

번호	칼럼 제목	주제 코드
38	건강한 가정을 위한 부모 역할과 책임(1): 에드워드 가문과 주크 가문의 차이	T5, T7
39	건강한 가정을 위한 부모 역할과 책임(2): 부모의 필수 역할 3가지 (1)	T7, T8
40	건강한 가정을 위한 부모 역할과 책임(3): 부모의 필수 역할 3가지 (2)	T7
41	건강한 가정을 위한 부모 역할과 책임(4): 부모의 필수 역할 3가지 (3)	T7
42	건강한 가정을 위한 부모 역할과 책임(5): 향기나는 가정 만들기(1)	T1, T2

43	건강한 가정을 위한 부모 역할과 책임(6): 향기나는 가정 만들기(2)	T1, T2
44	건강한 가정을 위한 부모 역할과 책임(7): 향기나는 가정 만들기(3)	T3, T7
45	건강한 가정을 위한 부모 역할과 책임(8): 향기나는 가정 만들기(4)	T2, T7
46	건강한 가정을 위한 부모 역할과 책임(9): 향기나는 가정 만들기(5)	T7

[제VIII장: 남자의 향기 (칼럼 제47-53편)]

번호	칼럼 제목	주제 코드
47	남자의 향기(1):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의 비전(1)	T7, T8
48	남자의 향기(2):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의 비전(2)	T7
49	남자의 향기(3):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의 결단(1)	T7, T8
50	남자의 향기(4):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의 결단(2)	T7, T8
51	남자의 향기(5):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의 결단(3)	T4, T7
52	남자의 향기(6):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의 역할(1)	T7
53	남자의 향기(7):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의 역할(2)	T7, T10

[제IX장: 여자의 향기 (칼럼 제54-63편)]

번호	칼럼 제목	주제 코드
54	여자의 향기(1): 좋은 아내, 좋은 엄마의 청사진	T7
55	여자의 향기(2): 진정으로 아름다운 여성의 비밀	T7, T8
56	여자의 향기(3): 남편을 믿어주고 세워주는 아내(1)	T2, T7
57	여자의 향기(4): 남편을 믿어주고 세워주는 아내(2)	T2, T7
58	여자의 향기(5): 엄마 됨을 귀히 여기는 마음(1)	T7, T8
59	여자의 향기(6): 엄마 됨을 귀히 여기는 마음(2)	T7, T8

60	여자의 향기(7): 모성애로 충만한 마음	T2, T7
61	여자의 향기(8): 향기나는 여성의 우선순위	T7, T8
62	여자의 향기(9): 향기나는 여성의 사명	T4, T10
63	여자의 향기(10): 여성의 가장 탁월한 능력들	T7

[제X장: 향기나는 가정 (칼럼 제64-74편)]

번호	칼럼 제목	주제 코드
64	향기나는 가정(1): 돕는 배필의 사명	T2, T7
65	향기나는 가정(2): 꿈과 비전이 있는 가정	T7, T8
66	향기나는 가정(3): 성장과 성숙에 계속 헌신하라(1)	T9
67	향기나는 가정(4): 성장과 성숙에 계속 헌신하라(2)	T9
68	향기나는 가정(5): 황홀함과 즐거움 넘치는 사랑의 정원	T2
69	향기나는 가정(6): 다함이 없는 행복과 만족 위한 친밀감의 성장	T2, T8
70	향기나는 가정(7): 흔들리지 않는 가정의 기초와 네 기둥	T2, T8
71	향기나는 가정(8): 가정의 5가지 핵심 기능에 충실한 부부	T7, T8
72	향기나는 가정(9): 가정천국을 이루는 믿음과 사랑의 행진	T4, T6, T8
73	향기나는 가정(10): 운명을 바꾼 두 여인의 언어생활	T1
74	향기나는 가정(11): 향기나는 가정의 꽃과 열매들	T8, T10

[제XI장: 가족성장을 위한 독서치유 소그룹 (칼럼 제75-79편)]

번호	칼럼 제목	주제 코드
75	독서 치유 상담(1): 독서상담 소그룹, 왜 꼭 필요한가?	T9
76	독서 치유 상담(2): 독서상담 소그룹이 주는 유익들(1)	T9
77	독서치유상담(3): 독서상담이 주는 유익들(2)	T9

78	독서 치유 상담(4): 독서상담 소그룹의 치유적 열매들	T9
79	독서치유상담(5): 정서적, 영적 성장을 위한 새로운 차원의 소그룹	T9, T10

주 1. 주제 분류 코드(T1-T10)는 다음에 대응함: T1(향기나는 대화), T2(정서적 필요 충족), T3(건강한 경계 설정), T4(분노 치유와 용서), T5(세대 간 전수 끊기), T6(고난의 의미 재해석), T7(부모 됨의 소명), T8(영적 공동체 회복), T9(독서상담을 통한 성장), T10(사명과 전수).

주 2. 하나의 칼럼이 복수의 핵심 주제에 걸치는 경우 주된 주제 순서로 표기하였음.

주 3. 본 목록은 연구자가 2009년부터 2019년까지 「크리스찬저널」에 연재한 후 『향기나는 부부, 향기나는 가정』으로 묶어 정리한 79편 전수(全數)를 수록한 것임.

출처: 오광복. (2009-2019). 향기나는 부부, 향기나는 가정 [연재 칼럼 묶음집]. 크리스찬저널. 연구자 작성.

[부록 2] 주제 분석(TA) 코딩 절차 예시표

본 연구는 브라운과 클라크(Braun & Clarke)의 주제 분석(Thematic Analysis) 절차에 따라, 수집된 원자료(Raw Data)로부터 의미 단위(Meaning Units)를 추출하고 이를 코딩, 범주화하여 최종 주제를 도출하였다. 다음은 그 분석 과정의 주요 예시이다.

분석 자료 (원문 발췌: Meaning Units)	초기 코딩 (Initial Coding)	하위 범주 (Sub-categories)	핵심 주제 (Final Themes)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의 온도를 1 도만 낮추어도 가정의 기류가 바뀐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다." (칼럼 #1)	언어 온도 조절, 유순한 대답의 영향력	정서적 대화 기조의 변화	4.1. 향기나는 대화
"가계도는 우리 집안에 흐르는 정서적 강줄기다. 내가 먼저 그 독을 걸러내는 필터가 되어야 한다." (칼럼 #30)	정서적 대물림 인식, 연구자의 정화 역할 자각	역기능적 패턴의 자각 및 차단	4.5. 세대 간 전수 끊기
"부모는 자녀의 인생이라는 차를 운전하는 운전사가 아니라, 옆에서 지지해주는 코치가 되어야 한다." (칼럼 #45)	지배적 양육 지양, 지지적 코칭 정체성 수용	부모 역할의 코칭적 전환	4.7. 부모 됨의 소명
"가정 예배는 형식이 아니라 생명이다. 가정을 거룩한 처소로 변모시키는 영적 호흡과 같다." (칼럼 #50)	예배의 생명력, 가정의 공간적 거룩함 회복	가정의 영적 정체성 확립	4.8. 영적 공동체 회복

[부록 3] 핵심 주제별 대표 칼럼 선정 및 전문 수록

1. 선정 기준 및 학술적 명분

본 부록은 본 연구의 분석 결과로 도출된 10대 핵심 주제를 가장 잘 대변하며, 코딩 과정에서 유의미한 ‘의미 단위(Meaning Units)’가 가장 높은 빈도로 추출된 대표 칼럼들을 선별하여 수록하였다. 이는 질적 연구의 분석 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연구 결과의 실제적 근거를 제시하기 위함이다.

2. 주제별 대표 칼럼 매칭 목록

번호	핵심 주제	선정 칼럼 제목 (번호)	선정 사유
1	향기나는 대화	언어의 온도: 관계의 기상도 (#1)	대화의 정서적 기류 조절 원리 제시
2	정서적 필요 충족	남편의 인정 욕구, 아내의 이해 욕구 (#9)	부부간 핵심 정서 갈망의 구체적 명시
3	건강한 경계 설정	심리적 울타리 세우기 (#15)	관계의 자율성과 연합의 균형 이론 제시
4	용서와 치유	용서의 능력과 영적 자유 (#24)	쓴 뿌리 제거와 십자가 사랑의 통합
5	세대 간 전수 끊기	아픈 대물림 끊기 (#30)	가계도 분석을 통한 역기능 차단 강조
6	고난과 시련의 의미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지듯 (#36)	시련의 신학적·심리학적 재해석 제시

7	부모 됨의 소명	부모 됨의 거룩한 소명 (#43)	부모 정체성(관리자→코치) 전환의 핵심
8	영적 공동체 회복	작은 교회로서의 가정 예배 (#50)	가정의 제사장적 사명과 예배의 실제
9	독서상답과 성장	책 읽는 부모가 세상을 바꾼다 (#57)	독서를 통한 성찰적 가정 학습 모델 제시
10	사명과 전수	사명으로의 부르심과 회복 (#64)	회복의 사회적 확산과 영적 유산 강조

3. 핵심 주제별 대표 칼럼 전문 수록

[주제 1] 향기나는 대화

칼럼 제목: 언어의 온도: 관계의 기상도 (#1)

제재 시기: 2009년 01월

내용 요약: 가정 내 대화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서로의 정서를 결정하는 ‘기상도’와 같음을 역설하며, 언어의 온도를 조절함으로써 갈등의 기류를 바꾸는 ‘유순한 대답’의 영성적 가치를 강조한다.

[칼럼 전문]

부부 사이의 대화는 칼날이 될 수도 있고, 향기로운 꽃바람이 될 수도 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의 온도를 1도만 낮추어도 가정의 기류가 바뀐다. 많은 이들이 대화의 기술을 묻지만, 사실 대화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다. 마음이 온유하면 말의 온도도 따뜻해지기 마련이다.

성경은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다’고 가르친다. 상대방의 거친 비난 앞에 똑같이 날 선 온도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온도를 낮추어 부드럽게 응대할 때 고착된 갈등의 얼음이 녹기 시작한다. 오늘날 당신의 가정에 흐르는 언어의 온도는 몇 도인가?

말은 마음의 알맹이다. 속이 끓어 있으면 말에도 고름이 섞여 나오고, 속이 향기로우면 그 말 끝에도 향취가 묻어난다. 대화의 실패는 대개 기술의 부족이 아니라 상대를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의 부재에서 기인한다. 경청의 예배를 통해 상대의 존재를 인정하고, 향기로운 언어로 서로의 영혼을 보듬는 것이 회복의 시작이다.

[주제 2] 정서적 필요 충족

칼럼 제목: 남편의 인정 욕구, 아내의 이해 욕구 (#9)

제재 시기: 2010년 04월

내용 요약: 부부 갈등의 심층에 자리 잡은 성별에 따른 보편적 정서 갈망을 분석하고, 서로의 결핍을 채워주는 ‘정서적 통장’의 예치가 관계 회복의 동력이 됨을 강조한다.

[칼럼 전문]

부부 관계는 서로의 정서적 필요를 채워주는 ‘돕는 배필’의 사명을 실천하는 장이다. 남편에게는 아내의 따뜻한 인정과 지지가 세상의 거친 풍랑을 견딜 에너지가 되며, 아내에게는 남편의 세밀한 이해와 공감의 정

서적 안전감을 주는 생명수가 된다.

많은 부부가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 모른 채 자신의 방식대로만 사랑을 쏟는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상대의 정서적 주파수에 나의 채널을 맞추는 것이다. 남편이 아내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마음을 알아줄 때, 아내가 남편의 수고를 귀하게 여기며 존중을 표할 때, 고갈되었던 정서적 통장에는 다시금 신뢰의 잔고가 쌓이기 시작한다. 서로의 필요를 채우기로 결정하는 의지적 투신이 가정을 천국으로 만든다.

[주제 3] 건강한 경계선 설정

칼럼 제목: 심리적 울타리 세우기 (#15)

제재 시기: 2011년 02월

내용 요약: 가족 구성원 간의 인격적 자율성을 보호하는 ‘경계’의 중요성을 다루며, 건강한 울타리가 있을 때 비로소 타인과의 온전한 연합과 존중이 가능함을 역설한다.

[칼럼 전문]

건강한 경계는 상대를 거부하는 벽이 아니라,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며 안전하게 사랑할 수 있게 돕는 울타리이다. 울타리가 분명할 때 우리는 비로소 상대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고 온전한 연합을 이룰 수 있다.

특히 한국의 기독교 가정은 ‘사랑’이라는 미명 하에 서로의 사생활과 감

정을 과도하게 침범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성경적 연합은 각자의 고유한 인격이 보존된 상태에서의 하나 됨을 의미한다. 부모는 자녀의 경계를 존중하고, 부부는 서로의 독립된 공간과 시간을 인정해야 한다. 명확한 경계가 세워질 때 비로소 갈등은 줄어들고, 서로를 향한 건강한 밀착이 일어난다. 경계는 관계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아니라 관계를 지탱하는 뼈대이다.

[주제 4] 용서와 치유

칼럼 제목: 용서의 능력과 영적 자유 (#24)

게재 시기: 2012년 06월

내용 요약: 해결되지 않은 분노인 ‘쓴 뿌리’를 십자가 앞에서 직면하고, 용서를 통해 가해자로부터 심리적·영적으로 독립하여 진정한 자유를 얻는 과정을 제시한다.

[칼럼 전문]

기독교적 용서는 내게 상처 준 사람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을 의지하여 내 마음의 ‘쓴 뿌리’를 뽑아내고 진정한 자유를 얻는 영적 행위이다. 많은 이들이 용서를 감정의 문제로 생각하지만, 사실 용서는 하나님 앞에서 내리는 의지적 결단이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스스로를 과거의 감옥에 가두는 것과 같다. 분

노라는 뜨거운 숯덩이를 손에 쥐고 있으면 결국 나 자신이 먼저 타버린다. 십자가는 그 숯덩이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공의에 모든 것을 맡기는 자리이다. 상처의 기억에서 독성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통로로 나를 내어드릴 때 가정에는 비로소 치유의 향기가 흐르기 시작한다. 용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다.

[주제 5] 세대 간 전수 끊기

칼럼 제목: 아픈 대물림 끊기 (#30)

게재 시기: 2013년 03월

내용 요약: 가계도를 통해 3대 이상 전수되는 역기능적 패턴을 자각하고, 연구자 자신의 치유를 통해 자녀 세대에게 흐르는 ‘아픈 유산’을 차단하는 영적 결단을 강조한다.

[칼럼 전문]

가계도는 단순한 족보가 아니라 우리 집안에 흐르는 정서적 강줄기다. 만약 그 물줄기에 독이 있다면, 내가 먼저 그 독을 걸러내는 필터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부모를 닮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도 어느새 부모의 비난과 통제적 태도를 자녀에게 그대로 투사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 이 아픈 고리를 끊는 것은 인간의 의지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나의 근원적인 애착 상처를 대면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내

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치유될 때, 내 자녀는 비로소 자유로운 영혼으로
자라날 수 있다. 부모의 성찰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영적 유산이다.

[주제 6] 고난과 시련의 의미

칼럼 제목: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지듯 (#36)

게재 시기: 2014년 02월

내용 요약: 고난을 가정을 파괴하는 위기가 아닌, 영적 성숙과 결속을
위한 ‘변화의 도구’로 재해석하며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
는 회복탄력성을 다룬다.

[칼럼 전문]

고난은 불청객처럼 찾아오지만, 그 고난을 함께 통과한 가족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단단함을 갖게 된다. 시련의 한복판에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라는 원망이 아니라, “이 상
황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라는 성찰
적 물음이어야 한다.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별이 보이듯, 가정의 가장 아픈 상처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통로가 된다. 질문의 방향이 바뀔 때 고난의 성격도 바뀐
다. 고난은 가정을 파괴하는 폭풍이 아니라, 우리를 더 깊은 신뢰와 사

랑의 항구로 인도하는 바람이다.

[주제 7] 부모 됨의 소명

칼럼 제목: 부모 됨의 거룩한 소명 (#43)

게재 시기: 2015년 02월

내용 요약: 부모의 역할을 지배와 통제가 아닌 '영적 코칭'으로 재정립하고, 자녀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는 부모의 정체성 변화가 양육의 본질임을 설명한다.

[칼럼 전문]

부모는 자녀의 인생이라는 차를 운전하는 운전사가 아니라, 자녀가 스스로 인생의 운전대를 잡을 수 있도록 지지해 주는 코치가 되어야 한다. 진정한 훈육은 매를 드는 기술이 아니라 부모의 삶으로 향기를 내뿜는 모델링이다.

자녀는 부모의 입술이 아니라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 부모가 하나님 앞에 먼저 단독자로 설 때, 그 거룩한 영향력이 자녀에게 자연스럽게 흘러간다. 자녀의 성취보다 존재 자체를 기뻐하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라나도록 돕는 것, 그것이 부모에게 맡겨진 가장 숭고한 소명이다.

[주제 8] 영적 공동체 회복

칼럼 제목: 작은 교회로서의 가정 예배 (#50)

게재 시기: 2016년 02월

내용 요약: 가정을 '작은 교회(Ecclesiola)'로 규정하고, 가정 예배와 기도를 통해 가정 시스템의 영적 향상성을 유지하며 세속적 가치관을 차단하는 원리를 제시한다.

[칼럼 전문]

가정 예배는 형식이 아니라 생명이다. 온 가족이 함께 말씀 앞에 머무는 그 짧은 시간은 가정에 흐르는 세속적인 가치관을 차단하고 영적인 산소를 공급하는 호흡과 같다. 거실이 예배의 처소가 되고 식탁이 은혜를 나누는 자리가 될 때, 그 가정은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서게 된다.

부모의 기도는 자녀의 영혼을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영적 방어막이다. 문제가 생겼을 때 자녀를 다그치기보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부모의 뒷모습은 백 마디 말보다 더 깊은 울림을 준다. 예배의 회복은 관계 회복의 근원적 마중물이다.

[주제 9] 독서상담과 성장

칼럼 제목: 책 읽는 부모가 세상을 바꾼다 (#57)

게재 시기: 2017년 02월

내용 요약: 독서를 통해 자신의 서사를 객관화하고 성찰하는 과정을 다루며, 책이라는 중립적 매개체를 통해 가족 간의 공감 지평을 넓히는 학습 공동체 모델을 제안한다.

[칼럼 전문]

책을 읽는 부모는 자녀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자가 아니라, 삶을 대하는 성찰적 태도를 몸소 보여주는 자이다. 독서상담은 텍스트를 통해 나의 서사를 객관화하는 작업이다. 주인공의 고통에 공감하며 나의 상처를 위로받고, 주인공의 선택을 통해 나의 삶을 재구성하게 된다.

가족이 함께 같은 책을 읽고 마음을 나누는 것은 영적인 식탁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과 같다. 책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게 하는 훌륭한 중재자가 되며, 비난 대신 이해의 언어를 선택하게 돕는다. 성찰하는 부모 곁에서 자녀는 비로소 지혜로운 성인으로 자라난다.

[주제 10] 사명과 전수

칼럼 제목: 사명으로의 부르심과 회복 (#64)

게재 시기: 2018년 02월

내용 요약: 가정의 회복이 내부적 치유에 머물지 않고 이웃과 사회로 확산되는 ‘사명적 삶’으로 승화되는 과정을 다루며, 영적 유산 전수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칼럼 전문]

치유된 상처는 더 이상 부끄러운 과거가 아니라, 같은 아픔을 겪는 이들을 위로하는 ‘향기’가 된다. 우리 가정이 회복되는 이유는 단지 우리끼리 행복하기 위함이 아니라, 깨어진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치유 도구가 되기 위함이다.

부모가 시련 속에서도 서로를 존중하며 기도하는 모습은 그 무엇보다 강력한 전수력을 가진다. 물질이 아닌 영적인 향기를 유산으로 물려주는 가문은 한 세대를 넘어 사회 전체를 정화하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 회복의 완성은 사명으로의 헌신이다.

[부록 4] ‘향기나는 가정 회복’ 10주 프로그램 강의 계획서

1. 프로그램 개요

본 프로그램은 연구 결과로 도출된 ‘기독교 가정 회복의 10대 핵심 주제’를 교육 과정으로 체계화한 것이다. 현대 기독교 가정이 직면한 정서적 단절을 극복하고, 성경적 원리와 상담학적 기제를 통합하여 ‘향기나는 가정’으로 거듭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 상: 관계 회복을 원하는 기독교 부부 및 학부모

기 간: 10주 과정 (주 1회, 회기당 120분)

방 식: 강의, 그룹 나눔, 사례 분석, 실천 과제 수행

2. 주차별 상세 교육 내용

주차	주제	교육 목표	핵심 교육 내용 및 실천 과제
1주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 이해 및 동기 부여	- ‘가정의 향기’ 자가 진단 및 관계 지도 작성 - 과제: 우리 가정의 장점 3가지 찾아오기
2주	향기나는 대화	언어의 온도 조절 및 공감 습관화	- 비난 대신 ‘유순한 대답’과 I-Message 연습 - 과제: 하루 3번 배우자/자녀에게 따뜻한 언어 사용하기
3주	정서적 필요	서로의 깊은 정서적 갈망 자각	- 남편의 ‘인정’과 아내의 ‘이해’ 욕구 분석 - 과제: 배우자의 ‘정서적 통장’ 예치하기 (감사 표현)
4주	건강한 경계	인격적 존중과 자율성 확보	- 정서적 분화와 안전한 울타리(경계) 설정법 - 과제: 가족 간의 침해된 경계 확인 및 대화로 조정하기
5주	용서와 치유	내면의 쓴 뿌리 제거와 화해	- 십자가 사랑에 기반한 의지적 용서와 정서 정화 - 과제: 용서와 화해를 위한 편지 쓰기
6주	세대 간 전수	역기능적 대물림의 차단	- 가계도 분석을 통한 가문의 반복적 패턴 자각 - 과제: 가계도 그리기 및 끊어낼 패턴 확정하기
7주	고난의 의미	위기를 성숙의 기회로 재해석	- 시련 속의 하나님의 섭리 발견(의미 치료적 접근) - 과제: 우리 가정의 ‘고난 극복 서사’ 작성하기
8주	부모 됨의 소명	영적 코치로서의 정체성 확립	- 통제적 ‘운전사’에서 지지적 ‘코치’로 역할 전환 - 과제: 자녀의 존재 자체를 칭찬하고 지지하기

9주	영적 공동체	가정 예배와 기도의 실제	- '작은 교회'로서의 가정 정체성과 예배 모델링 - 과제: 가족이 함께하는 5분 기도/예배 시작하기
10주	사명과 전수	회복의 향기 확산과 전수	- 사명 선언문 작성 및 향기나는 삶의 열매 나눔 - 과제: 이웃 가정을 위한 작은 섬김 실천하기

참고문헌 (Bibliography)

영어 자료

Augustinus, A. (401/2019). 혼인의 유익 [De Bono Coniugali] (성염역). 분도출판사.

Augustinus, A. (413-426/2004). 신국론 [De Civitate Dei] (추인해역). 크리스찬다이제스트.

Bowen, M. (1978). Family therapy in clinical practice. Jason Aronson.

Braun, V., & Clarke, V. (2006). Using thematic analysis in psychology. *Qualitative Research in Psychology*, 3(2), 77-101.
<https://doi.org/10.1191/1478088706qp063oa>

Calvin, J. (1559/2003). 기독교 강요 [Institutio Christianae Religionis] (원광연 역). 크리스찬다이제스트.

Clarke, V., & Braun, V. (2021). Thematic analysis: A practical guide. SAGE.

Cloud, H., & Townsend, J. (1992). Boundaries: When to say yes, how to say no to take control of your life. Zondervan.

Creswell, J. W., & Poth, C. N. (2018).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approaches (4th ed.). SAGE Publications.

Enright, R. D., & Fitzgibbons, R. P. (2015). Forgiveness therapy: An empirical guide for resolving anger and restoring hop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Enroth-Voitila, A. (2014). Gender and Christian counseling. In *The handbook of psychology and theology* (pp. 234–248). SAGE Publications.
- Frankl, V. E. (1985). *Man's search for meaning*. Washington Square Press.
- Fredrickson, B. L. (2001). The role of positive emotions in positive psychology: The broaden-and-build theory of positive emotions. *American Psychologist*, 56(3), 218–226.
<https://doi.org/10.1037/0003-066X.56.3.218>
- Gottman, J. M. (2011). *The science of trust: Emotional attunement for couples*. W. W. Norton & Company.
- Grenz, S. J. (2001). *The social God and the relational self: A trinitarian theology of the Imago Dei*. Westminster John Knox Press.
- Howard, T. F. (Ed.). (2013). *Imago Dei: Human dignity in ecumenical perspective*. The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 Press.
- Lincoln, Y. S., & Guba, E. G. (1985). *Naturalistic inquiry*. SAGE Publications.
- Lohfink, G. (1984). *Jesus and community*. Fortress Press.
- Luther, M. (1529/2017). *대요리문답 [Der Große Katechismus]* (지원용 역). 컨콜디아사.
- Maslach, C. (2003). Job burnout.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12(5), 189–192.
- Maslach, C., & Leiter, M. P. (1997). The truth about burnout: How

organizations cause personal stress and what to do about it.
Jossey-Bass.

Maslach, C., Schaufeli, W. B., & Leiter, M. P. (2001). Job burnout.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2, 397–422.
<https://doi.org/10.1146/annurev.psych.52.1.397>

Masten, A. S. (2021). Resilience of children in disasters: A multisystem perspective.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ogy*, 56(1), 1–11.

Mikolajczak, M., & Roskam, I. (2021). Parental burnout: Moving the focus from children to parents. *New Directions for Child and Adolescent Development*.

Minuchin, S. (1974). *Families and family therapy*. Harvard University Press.

Moltmann, J. (1985). *God in creation: A new theology of creation and the spirit of God*. Harper & Row.

Papero, D. V. (2012). 보웬가족치료를 위한 짧은 이론서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연구팀 역). 학지사.

Patton, M. Q. (2015). *Qualitative research & evaluation methods* (4th ed.). SAGE.

Roskam, I., Raes, M.-E., & Mikolajczak, M. (2017). Exhausted parents: Development and preliminary validation of the Parental Burnout Inventory. *Frontiers in Psychology*, 8, 163.
<https://doi.org/10.3389/fpsyg.2017.00163>

Sanders, M. R., Kirby, J. N., Tellegen, C. L., & Day, J. J. (2014). The Triple P-Positive Parenting Program: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of a multi-level system of parenting support.

Clinical Psychology Review, 34(4), 337–357.

Satir, V. (1972). Peoplemaking. Science and Behavior Books.

Schön, D. A. (1983). The reflective practitioner: How professionals think in action. Basic Books.

St. Augustine. (1993). 삼위일체론 [De Trinitate] (김종흡 역). 경세원.

Strauss, A., & Corbin, J. (1998).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Techniques and procedures for developing grounded theory. SAGE.

Sue, D. W., & Sue, D. (2016). Counseling the culturally diverse: Theory and practice (7th ed.). John Wiley & Sons.

Tan, S. Y. (2011).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A Christian perspective. Baker Academic.

Walsh, F. (2006). Strengthening family resilience (2nd ed.). Guilford Press.

Walsh, F. (2016). Strengthening family resilience (3rd ed.). Guilford Press.

Worthington, E. L. (2006). Forgiveness and reconciliation: Theory and application. Routledge.

한국어 자료

강연정. (2019). 기독교 상담의 통합적 원리와 특징. 복음과 상담, 27(2), 7–33.

김영희, 이수연. (2022). 기독교 학부모의 자녀양육 스트레스가 심리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 신앙 성숙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기독교교육논총,

71.

박성연, 도현심. (2006). 아동발달. 법문사.

박지혜, 최은실. (2023). 코로나19 이후 가족 소진과 관계 만족도의 구조적 관계: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 한국가족관계학회지, 28(1).

오광복. (2009-2019). 향기나는 부부, 향기나는 가정 [연재 칼럼 묶음집]. 크리스찬저널. <http://www.kcjlogos.org>

유계숙. (2010). 가족가치관이 결혼, 출산 및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5(3), 1-26.

유기웅 외. (2021). 질적 연구방법론. 박영사.

이경숙, 정석진. (2015).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양육 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8(2), 45-67.

이관직. (2007). 기독교 상담학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통합적 접근. 신학과 실천, 13, 233-258.

이원일. (2012). 기독교 부모교육의 현황과 방향 탐색. 기독교교육논총, 32, 157-188.

이정아. (2024). 기독교 상담 현장에서의 부모 회복탄력성 척도 개발 연구.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35(2).

장세호. (2020). 부모 코칭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성 검증: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의 긍정정서, 대인관계, 회복탄력성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광신대학교 대학원 코칭심리학과].

제석봉. (1992). 자아분화와 역기능적 행동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4(1), 119-139.

통계청. (2023). 2022년 혼인·이혼 통계. <https://kostat.go.kr>